

丙子傳錄三

宗仁祖大王四年丙子十二月金大舉東搶大駕入

南漢以圖暘溪鄭公好仁慷慨倡義召募鄉兵遠

近響及鄉人推公爲義兵將乃備器

聞慶自嶺南都義陣時爲都大將

將末義自副元帥營召以從事官已

義陣罷

義將

監察鄭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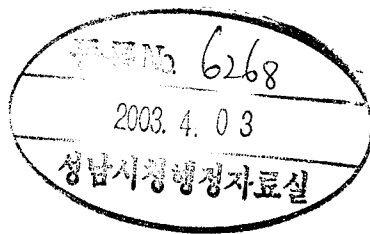
字子見孫慕堂張依軒門人戊午進士義公之  
文科官至牧使文學政績蔚有時望所  
莅郡有去思碑行誼實蹟詳見

성남시청



MB005601

성남문화원



# 성남지역의병조사연구

성남문화원

## 성남정신의 원형을 찾아서

우리 성남시의 역사는 오랜 과거로부터 격동의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자립적이고 성숙된 도시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남시의 과거 역사에 대한 정리를 통해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남의 역사를 설명할 때 남한산성을 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한산성은 민족자존의 역사가 서린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산성이요 실전을 겪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 의병 항쟁 연구에 있어서도 남한산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습니 다. 그러므로 성남의 의병항쟁의 역사는 남한산성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한강 이남의 옛 광주 땅 성남에서 그 정신을 잇는 자긍심은 오늘 다시 의병정신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의병정신의 실천성에서 성남 정신의 원형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



남 선 우  
성남문화원장

각됩니다. 남한산성의 의병정신에서 발원하여 나아가 한말 개화사상, 그리고 3·1독립정신으로 이어지는 민족자존의 정신을 담아내는 성남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을 뿌리로 한 성남 의병 연구의 맥을 짚어 성남정신의 원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서곡을 열었다는데 이번 책자발간의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남 의병관계 조사연구의 초석으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 고장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쁜 시간 중에서도 좋은 글을 써주신 집필진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들 외에도 소리가 지 않게 성남의 역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차 례

### 발간사 · 2

### 병자호란시 성남지역의 의병자료 연구

1. 머리말 · 7
2. 성남지역의 병자호란시의 의병항쟁 · 9
3. 병자호란시 의병 관련 자료 분석 · 26
4. 성남지역의 의병정신의 특성 · 42
5. 맺는말 · 47

### 한말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1. 성남지역 의병운동의 이해 방향 · 50
2. 남한산성에서의 의병항쟁 · 53
3. 성남지역의 중기 · 후기 의병항쟁 · 64

### 일제하 성남지역 항일 의병정신의 계승

1. 민족해방운동의 정신사적 조류 · 75

2. 성남지역 의병정신의 배경 · 82
3. 일제 강점 후 성남지역의 의병 활동 · 83
4. 유인석 의병부대의 소모장 이명하 · 85
5. 의병정신을 계승한 성남지역의 3.1운동 · 89
6. 1920년대 성남지역의 의병정신 계승 양상 · 92
7. 성남지역 신간회운동의 전개 과정 · 93
8. 의병정신을 계승한 연암 한순회의 활동 · 95
9. 1930년대 성남지역의 민족해방투쟁 · 95
10. 광주공산당협회의회의 활동 · 97
11. 식계환의 항일 의식 · 101
12. 민중직접혁명론에 기초한 의열투쟁 · 102
13. 광복군 염재항의 투쟁 · 104

## 성남 지역의 항일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1. 머리말 · 105
2. 김하락(金河洛)의 <진중일기(陣中日記)> · 107
3. 김태원(金泰元)의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 · 121
4. 한순회(韓順會)의 <재암일지(霽菴日誌)> · 130
5. 맺음말 · 137





# 병자호란시 성남지역의 의병자료 연구

## 1. 머리말

성남의 역사를 설명할 때 남한산성을 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남한산성은 민족자존의 역사가 서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사의 절과 목의 역할이 있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성이요 실전을 겪은 산성이기에 조선왕조 350년 동안 성을 쌓고 지키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요새화를 이루었고, 이 산성을 두고 숭한 역사의 고비가 점철되는 현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나라 의병 항쟁 연구에 있어서도 남한산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성남의 의병항쟁의 역사는 남한산성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성남시의 의병항쟁연구는 남한산성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병자호란시 남한산성의 치열하였던 전투에서 후방의 의병들의 활동은 눈부신바가 많다.

병자호란시 청군이 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각지로부터 관찰사

병사 등에 의해 구원병이 출전 기병 하였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기  
도 전에 무너지거나 패하고는 하였지만 의병들의 항전은 계속되었다.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의 군사는 험천에서, 이성 현감 김홍익, 남포 현  
감 이경은 초전에 전사하였으며, 경상 좌병사 허완과 경상 우병사 민  
영의 군사는 광주 쌍령에서 산화하였다. 전라 병사 김준룡이 용인 광  
교산에 이르러 적장 액부양고리를 죽이고 승첩을 거두기도 했으나 곧  
역습을 당하고 수원으로 퇴각하여 훗날을 기약하다가 무너지고 말았  
다.

또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는 김화에서 전사하였고, 부원수 신경원은  
맹산 철웅에서 사로잡혔으며, 도원수 김자점의 군사는 토산에서, 그  
리고 강원 감사 조정호, 함경 감사 민성휘 등이 모두 패퇴, 중도에서  
좌절하고 마나 남한산성은 이제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말  
았다. 뿐만 아니라 명에 요청했던 원군도 바랄 수 없는 처지였고, 경  
기 호남 경상도 등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별로 큰 전과  
를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무너지면 또 일어나고 다시 서는 끊임없는  
항쟁의 물결은 계속된다.

병자호란 때도 여러 곳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그런데 의병이 조직적  
으로 구성되는 후방지역인 호남이었다. 청의 침입 소식이 전해지자  
옥과 현감 이흥발·대동찰방 이기발·순창현감 최 온·전한림 양만  
용 전찰방 류즙등이 자진하여 의병 모집에 앞장섰다. 인조 14년(1636)  
12월 19일 포위중인 남한산성에서 위급을 알리며 의병을 규합하고 군  
량과 무기를 수집하여 청의 침략군을 무찌르라는 교서가 전달되자 기  
병의 움직임은 더욱 박차를 더하게 되었다.

이흥발 등 위의 다섯 사람은 모의청을 설치하고 그달 25일 도내에

격문을 보내어 각 고을에 모의도유사·유사를 나누어 배정하고 일제히 쫓기하였다. 조수성·조관등은 화순에서, 류평은 광주에서, 나혜봉등은 나주에서 먼저 거의하여 모였으며,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음해 정월 20일 이들은 다시 모여 책임을 띠고 공주에 있는 정홍명을 대장으로 정하는 한편, 전라감사 이시방과도 합세할 것을 결의하였다. 정홍명은 당시 충청도 의병장으로 공주에서 각처로부터 모여든 의병들을 점검하여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을 선발하였다. 그런데 그가 의병장이 된 것은 관에 의한 것이어서 의병장으로서 소모사를 겸하였는지 아니면 의병장이 되었다가 소모사에 차정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끝임없이 이어진 남한산성을 향한 의병들은 조국의 종묘사직과 만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활동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갔다.

## 2. 성남지역의 병자호란시의 의병항쟁

### 1) 병자호란의 경위

정묘호란 후 조선은 후금의 요구를 들어 1628년(인조6) 이후 중강과 회령에서 각각 무역을 재개하는 외에도 약간의 필수품을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후금의 태종은 당초의 맹약을 위반하고 조선에 대해 식량을 강청하고 병선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후금군은 압록강을 건너와 변경 민가에 침입, 약탈을 자행하는 것이

찾아졌고, 이에 변방민과 그곳 수장들의 고통은 점점 더하여 갔다. 이와 같이 후금이 조선과의 맹약을 어기게 되자 조선의 여론은 군사를 일으켜 후금을 치자는 척화배금론이 비등하여 갔는데, 도리어 후금은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고쳐 '군신의 의'로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황금 백금 1만냥, 전마 3,000필 등 종전보다 훨씬 무리한 세폐와 정병 3만까지 요구해 왔다. 이 무리한 요구에 조선은 크게 반발, 전국에 선전의 교서까지 내리고 후금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던 차에 1636년 4월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개칭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왕자를 볼모로 보내 사죄할 것을 요구, 불응할 경우 조선을 공략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조선에 의해 받아들여질 리가 없자 청 태종은 직접 10여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침입을 감행한 바, 이른바 병자호란이다.

그 해 12월 1일 청 태종은 청군 7만, 몽고군 3만, 한군 2만, 도합 12만의 대군을 심양에 모아 예친와 대선, 예친왕 다이곤, 예친왕 다탁과 패륵, 약탁, 호격, 두도 등을 인솔하여 다음 날 몸소 조선 침략에 나섰다. 9일 압록강을 건너 청군은 다탁으로 하여금 전봉장 마부태에게 명해서 곧바로 서울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마부태는 의주 부윤 임경업이 백마산성을 굳게 지키고 있음을 알고 이를 피하여 밤낮으로 달려 심양을 출발한지 10여일 만에 서울에 육박하였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입하였다는 급보가 중앙에 전달된 것은 12일, 의주 부윤 임경업과 도원수 김자점의 장계가 도착한 뒤였다. 보고에 접한 조정에서는 비로소 적의 형세가 급박한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토록 빨리 진격 해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13일

오후 늦게 재차 치계가 이르러 청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조정은 갑작스런 변란에 황망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고, 도성 안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흥흥하여지면서 성을 빠져나가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14일에는 개성 유수의 치계로 청군이 개성을 지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황급히 판윤 김경징을 검찰사로, 부제학 이민구를 부사로 임명하고 강화 유수 장신으로 주사 대장을 겸직시켜 강화를 수비하도록 하는 한편, 원임 대신 윤방과 김상용에게 하명,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세자빈 강씨, 원손, 둘째 왕자 봉립대군, 셋째 왕자 인평대군을 인도하여 강화도로 피난토록 하였다. 그리고 상종의 심기원을 유도 대장으로 삼고, 호조 참의 남선을 찬획사에 임명하였다.

실은 인조도 그날 밤에 남대문으로 해서 서울을 빠져나와 강화도로 향하려고 하였으나, 적정을 탐색하던 군졸이 달려와 청군이 이미 영서역(지금의 은평구 대조동과 불광동 사이)을 통과하였으며, 마부태는 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홍제원에 도착, 일대를 보내 양천강을 차단하고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미 강화로의 피난은 불가하다고 보고하자, 인조는 다시 성안으로 들어와 사후 대책을 물었다. 이때 전 철산 부사 지여해가 정병 500으로 사현에 나가 청군의 선봉을 무찌르겠다고 하니 제신들은 소수의 군사로 적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 결국 이조 판서 최명길의 홍제원 청군 진영에 나가 굴과 고기를 먹이면서 출병의 이유를 묻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인조는 세자와 백관을 대동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인조 일행이 남한산성에 온 뒤 영의정 김류 등은 본 산성은 지리적으로 불리함을 들어 아음을 틈타 강화도로 옮길 것을 역설, 익일 15일 새벽 인조는

강화도로 향하려 하였으나 마침 눈이 내린 뒤라 산비탈 길이 미끄러워 왕은 말조차 탈 수가 없었으므로 걷기로 하였다.

그러나 길도 험할 뿐더러 몸도 편치 못하여 강화도로 옮기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산성으로 되돌아와 산성 수비의 진영을 정비, 서울로부터 뒤따라온 훈련 대장 신경진은 동성 망월대를 지키게 하고, 이영달은 중군, 충용사 구굉은 남성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수원 부사 구인후는 부장, 이혁은 중군을 삼고, 어영대장 이서는 북성을, 수어사 이시백은 서성을 지키게 하였다. 또한 이직을 중군으로 삼는 동안 여주 목사 이필원, 이천 부사 조명옥, 양근 군수 한희일, 지평 현감 박환 등과 파주 목사 기종현이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였다.

당시 성안에 있는 군사의 수는 1만 3천명 정도로서, 도원수·부원수와 각도의 관찰사 병사에서는 근왕병을 모으도록 하는 한편 명나라에 위급함을 알려 원병을 청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성안에는 양곡 1만 4천 3백석, 장 220항아리, 소금 90여석이 있어 겨우 50여일을 견디어 낼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전에 광주 목사 한명묘의 군량미 확보 계획에 따라 중대면 삼전도 부근 강변에 감사창을 별도로 짓고, 여기에 적치한 양곡이 상당히 있긴 하였으나 산성으로의 피난이 워낙 창졸간에 이루어진지라 미처 산성으로 운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청군의 선봉 부대는 12월 16일에 이미 남한산성에 다다랐고, 청 태종의 사신 담태의 군사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서울에 입성, 그 길로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 1일에는 청 태종이 친히 2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성 밑 탄천변에 포진, 산성 동쪽의 망월봉에 올라 성안을 굽어보며 조선 군의 동태를 살피

기에 이르렀다. 산성이 포위 당한 상태에서 산성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청병의 약탈의 대상이 되어 그 참상은 이루 형언키 어려울 지경이었다. 특히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족과 서민의 부녀자들은 대부분 청군에게 납치 당하였고, 어린아이들은 내버려진 채 얼어죽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조선군은 포위 당한 상태에서 12월 18일 부사 원두표가 성안의 장사를 모집, 성을 빠져나가 순찰 중인 적군 6명을 죽인 것을 비롯하여 20일에는 훈련 대장 신경진이 출전, 적병 30명을, 익일에는 어영대장 이기축이 다시 1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려 성안의 사기를 올리는 듯 하였으나, 그 외에는 이렇다 할 큰 전과 없이 40여일이 경과하게 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안의 상황은 처참하게만 되어 갔다.

청군이 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각지로부터 관찰사 병사 등에 의해 구원병이 출전 기병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패하고 말았다.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의 군사는 협천에서 패하였고, 이성 현감 김홍익, 남포 현감 이경은 초전에 전사하였으며, 경상 좌병사 허완과 경상 우병사 민영의 군사는 광주 장령에서 괴멸되고 말았다. 전라 병사 김준룡이 용인 광교산에 이르러 적장 액 부양고리를 죽이고 승첩을 거두기도 했으나 곧 역습을 당하고 수원으로 퇴각, 무너지고 말았다.

또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는 김화에서 전사하였고, 부원수 신경원은 맹산 철웅에서 사로잡혔으며, 도원수 김자점의 군사는 토산에서, 그리고 강원 감사 조정호, 함경 감사 민성휘 등이 모두 패퇴, 중도에서 좌절하고 마나 남한산성은 이제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명에 요청했던 원군도 바랄 수 없는 처지였고, 경

기 호남 경상도 등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별로 큰 전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산성을 향하여 오는 구원병은 모두 붕괴되고 성중은 밖과 완전히 두절된 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차츰 강화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주화파는 주전파와 여러 차례 논쟁을 거듭하였고, 주전파 역시 난국을 타개할 만한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예조 판서 김상헌, 이조 참판 정온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세는 강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1637년 1월 3일, 인조는 최명길 이식 장유 등에게 회답의 국서를 기초하게 하였는데, 최명길의 글이 그 중 공손하다 하여 그것을 채택, 좌의정 홍서봉, 호조 판서 김신국 등을 청군 진영에 보내어 화호를 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 태종의 답서는 조선 국왕이 친히 성안에서 나와 자기 군문에 항복하고 척화 주모자 몇 명을 결박지어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조선은 이에 선뜻 응할 수 없어 정론이 구구한 채 또 다시 주저하게 되었을 즈음, 이 무렵 강화도가 청군에게 함락 당하였다는 비보가 당도하였고, 얼마 안 있어, 포로가 된 대군의 수서와 재신 윤방과 한홍일 등의 장계를 보이는 한편, 강화 함락과 더불어 붙잡힌 군신의 처자 등 200여명을 남한산성 청군 진지에 송치, 참상을 목도케 하니 성중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인조는 드디어 출성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홍서봉 최명길 김신국 등이 적진을 내왕하며 항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또 청군 진영에서도 용골대 마부태 등의 사신이 우리 성안에 들어와서 조건을 제시한 끝에 다음과 같은 조약에 합의하게 되었다.



1. 조선은 청에 대하여 신의 예를 행할 것.
2. 조선은 명으로부터 받은 고명책인을 청에게 바치고 명과의 교호를 끊으며, 명의 연호를 사용하지 말 것.
3. 조선 왕은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낼 것.
4. 청이 명나라를 정벌할 시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5. 청이 가도를 공취할 때 조선은 배 50척을 보낼 것.
6. 성절 상삭 동지 중궁천추 태자천추 경 조 때의 사신의 파견은 명의 구례에 따를 것.
7. 압록강을 건너간 뒤에 피로인 중에서 도망한 자는 진송할 것.
8. 내외 제신과 혼인을 맺어 화호를 굳게 할 것.
9. 조선은 신구의 성원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
10. 올랑합인은 마땅히 쇠환할 것.
11. 조선은 기묘년(1639)부터 세폐를 보낼 것.

이상의 11개조문은 조선으로서는 힘겨운 부담이며, 고통이었다. 드디어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호곡 소리가 산 성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서문으로 출성하여 한강 연안의 삼전 나무에서 '성하의 맹'의 예를 행한 뒤 한강을 건너 서울에 돌아왔다.

비록 한 달 남짓한 짧은 전쟁 기간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당한 그 피해는 왜란 때의 피해에 버금가는 것이요, 조선으로서는 일찍이 당해 보지 못한 일대 치욕이었다. 어쨌든 이로써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청나라에 복속하게 된 바, 이

와 같은 관계는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청에 항복 후 조선은 청의 명에 따라 삼전도 남쪽 향단 자리에 소위 '대청황제공덕비'를 세우게 되었다. 비의 건립 공사를 위해 청장 마복탑이 파견되어 감독하였고, 대제학 이정석이 비문을 찬하였는데 비문은 몽고어 만주어 한문의 세 가지로 새겨졌다. 흔히 '청태종비', 또는 '삼전도비'라고 불리며, 현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 입구 소로변에 세워져 있다.

병자호란으로 일대 치욕을 당한 조선은 청에 인질로 갔던 봉림대군이 즉위해서 효종 임금이 되자 국가적 굴욕과 고초를 벗기 위해 북벌 계획을 세웠다. 즉 어영청을 통해 군비를 확장시키고 이완으로 하여금 군사 훈련을 강화시키는 한편, 송시열 등의 노력으로 정청북벌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북벌 정책은 국왕이 친위군과 수도 경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그치고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 2) 병자호란시 의병들

### (1) 호남의병

병자호란 때도 여러 곳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그런데 의병이 조직적으로 구성되는 후방지역인 호남이었다. 청의 침입 소식이 전해지자 경향각지에서 자진하여 의병 모집에 앞장섰다. 인조 14년(1636) 12월 19일 포위중인 남한산성에서 위급을 알리며 의병을 규합하고 군량과 무기를 수집하여 청의 침략군을 무찌르라는 교서가 전달되자 기병의 움직임은 더욱 박차를 더하게 되었다.

이흥발 등은 모의청을 설치하고 그달 25일 도내에 격문을 보내어 각 고을에 모의도유사·유사를 나누어 배정하고 일제히 쫓기하는 큰 역할을 하였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음해 정월 20일 이들은 다시 모여 책임을 띠고 공주에 있는 정홍명을 대장으로 정하는 한편, 전라감사 이시방과도 합세할 것을 결의하였다. 정홍명은 당시 충청도 의병장으로 공주에서 각처로부터 모여든 의병들을 점검하여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을 선발하였는데 실적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가 의병장이 된 것은 관에 의한 것이어서 의병장으로서 소모사를 겸하였는지 아니면 의병장이 되었다가 소모사에 차정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호남의병의 구성은 정홍명을 대장으로 추대하기 전에 이미 갖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각 읍의 의병 소모의 책임자는 도유사였으며, 이것이 정해진 고을은 옥과·창평·광주·남평·무장·화순·동복·낙안·홍양·보성·장흥·해남·진도·고부·고성·순천·영광·홍덕·함평 등으로 적게는 2, 3인에서 많게는 14인의 도유사가 있는 곳도 있었음을 호남병자창의록은 기록하고 있다.

의병 소모에 활약한 인사들 중에서 정묘호란 때 의병막부의 핵심 간부로 활약했던 인물이 많다. 유증·안방준·이민구·신탁·류평·박충겸·구영·고전민·김해수·김집·이덕양·기의현·고전립·박종·이정태 등이 이러한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병자 호남의병의 경우 정묘의병의 인사가 다수 참여하였으며, 이들에 의해서 의병 활동이 주도되었던 것 같다.

각 고을에는 '전위 진사·충의·교생·품관으로 싸움터에 임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용감하고 힘이 세 전문하고 계략이

뛰어난 사람을 초출하여 명단을 작성하여 일각을 지체치 말고 본청으로 보내야 하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종군의 대가로 종을 대신 보내든가 아니면 군량·군기·전마를 모아서 보내되 각 고을의 도유사는 거두어들인 실적을 우선적으로 급히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문이 하달되었음이 호남병자창고 기록에 기술되어 있다. .

그후 소모사 정홍명은 호소사의 직함을 받고 이흥발·이기발·최온·양만용·유즙 등 5인이 추축이 되어 여산에 모인 의병을 이끌고 포위된 남한산성을 향해 출정길에 올랐다. 그러나 청주에 이르렀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나라에 굴복하였다는 고식을 듣고 진군을 포기하고 의병을 해산하여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호남의병은 청군과 일전을 겨뤄보지도 못하고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 (2) 다른 지역의 의병

의병의 군세가 정묘호란 때 의병만은 못하나 평안도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특히 의주·평양·선천·곽산 등지에서 의병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것 같다.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바 있는 최효일은 병자호란 때도 홀로 활약하여 적장을 사로잡는 등 전공을 세우다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의병을 일으켜 부원수 정충신에게 의탁해 놓고 자신은 청에 들어가 거짓 내부하여 적의 장수가 된 뒤 계책을 써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사실은 용만지에 기술되어 있다. 강서에 사는 전만호 정지성은 촌가에 있다가 난을 당하여 사람들을 따라 보산성에 들어갔다. 그는 졸지에 적의 기병이 이르러 성 밖에 있는 남녀 수백명을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보자 무장을 갖추고 말을 달려 적

진에 뛰어들어 수 명을 죽였다. 적이 당황하여 그대로 달아나자 정지성은 끌려가던 사람들을 구제하여 돌아왔다. 성안에서 겁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힘을 얻어 비로소 생기를 찾아 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강서현지에 설명되어 있다.

이여각은 난을 피하여 능한산성에 들어갔는데 정주목사 안영남과 광산군수 정빈이 서로 관성대장이 되고자 다투다가 안영남이 자살하자 정빈은 성을 지킬 계책을 찾지 못하고 휘하의 군사만 인솔하여 부원수가 있는 근처로 갔다. 이에 성안에 가득한 군사들도 흩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여각은 스스로 아장이 되어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힘을 다해 방수하여 성안 사람들을 보존했다. 이 공으로 그는 고산리첨사에 제수되었다. 홍천감은 담력과 용맹이 뛰어난 인물로 난중에 선천 검산성에 들어가 의병장이 되어 청천강에 나가 싸우기를 자원하였다. 그 공으로 청강검사가 되었으며 죽은 뒤에는 장례원판결사에 추증되었다. 또 홍천록은 의병장이 되어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뒤에 절의로서 충신정려가 내려졌다.

황해도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 김응남은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수문장에 이르렀다. 그는 길이 막혀 왕을 호종하지 못하게 되자 의병을 모집하여 멸악산을 근거지로 삼고 적장을 참획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이를 의지하여 살아남은 피란민들이 많았다. 김응남은 그 공으로 좌부장에 제수되었고 후에 훈련원정이 증직되었다는 평산읍지의 기록이 남아있다. 류 직도 난중에 황해도에서 의병을 이끌고 힘써 싸워 많은 적을 참수하였고 그 공으로 훈련원부정에 제수되었다는 해주읍지의 기록이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강화성이 적에 포위되어 공격을 받을 때 의병이 혈전

을 벌여 적 1천여 명을 살상했다는 조경남의 속장록이 남아 있다..

경상도에선도 김시회등이 의병을 일으켜 여주에서 퇴각하는 경상감사 심연의 군과 함께 조령과 죽령 사이를 잠행하였으나 청군이 침입해 온다는 와전으로 도산하여 무위로 끝났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도 자모군이 성을 나가 적 50명을 살해하여 일시나마 성중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자모군은 관군의 특공대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의병으로 봄이 좋을 것 같다. 김집도 양호지방에 내려가 의병을 모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적세가 매우 급하고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병자호란 중에도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와 같이 의승군의 활약이 있었다. 그 규모나 성과는 임진왜란 때의 의승군의 활약에 미치지 못하난 국난을 당하여 의승군이 봉기했다는 면에서는 같다. 정묘호란 때 의승권을 이르켜 활약한 허백당 명조대사는 병자호란 때도 의승권을 일으켜 의을 수백여 석을 모곡하여 군량에 충당토록 하는 등 공을 세웠다. 조정에서 그를 가상히 여겨 「가선대부국일도대선사시종수대교북국우세비지쌍운의증도대장등계」의 직첩을 내렸음을 이경석의 벽암 비명에 잘 나타나 있다.

또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전공을 세운 바 있는 벽암 각성은 지리산 화엄사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는 소식을 듣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기의하였다. 그는 남쪽 각 사찰에 격문을 보내 모인 수천 명의 의승군을 향마군이라 부르고 인조가 포위된 남한산성으로 향하다가 중도에서 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다.

이 밖에도 전라감사 이시방 이 좌병영과 친병을 이끌고 공주로부터 천안에 나올 때 좌우도의 승군이 계속해서 이르고 있었던 것을 보면

관군과 함께 많은 의승군이 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병자호란 때 의병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정묘호란 의병에 비해서도 부진했다. 그럼에도 임진왜란의 의병정신이 정묘호란으로 이어지고 다시 병자호란으로 이어져 관군의 무력을 의병이 대신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가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3) 의승 대장 벽암 각성 선사

남한산성의 불교문화 유산을 살필 때 우리는 먼저 호국정신의 고향으로 남한산성의 특성을 살펴야 한다. 조선왕조의 배불정책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불교는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호국의 정신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의 축성을 위하여 조선의 8도 승려들이 동원되었고, 축성의 대임을 완성한 이들도 승려들이었다는 기록은 인조실록과 남한산지의 여러 가지 기록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원래 여기 남한산에는 신라시대의 사찰인 망월사와 옥정사가 있었다. 인조 2년(1624년)에 이괄의 난을 겪은 조종은 대대적인 축성을 시작하면서 승려들이 거처할 사찰을 건립하였다. 이때에 건립된 사찰이 남한산성 내에 있는 망월사와 옥정사를 제외한 7개의 사찰 국청사, 천주사, 남단사, 한홍사, 장경사, 개원사, 동림사였다. 그러므로 개원사를 본영으로 하고, 8개의 사찰은 4장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2개씩 사찰이 배치되어 조선 8도의 부처님의 원력이 총집결되었다. 남한산성 내에 있는 사찰은 조선 8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모두 남한산성의 축성에 참여한 승려들이 세운 사찰들이다. 그러므로 진충보국하는 호국의 사찰이 되어

나라사랑의 실천도량이 되었다. 사찰 이름도 호국과 관계가 있는 국청, 천주, 한홍 남단사등 이었다. 이 모든 조선땅을 부처님의 힘으로 하나로 모았고, 실천에 옮긴 중심인물은 벽암 각성선사로서 조선 8도 도총섭이었다.

벽암 각성선사는 조선왕조의 3대 팔도도총섭으로 임명되어 남한산성의 축성의 대임을 완성한 호국 의승군장이다. 나아가 병자호란 시 호국승군인 항마군을 조직한 전술가요, 승군을 이끈 용장이기도 하였다. 벽암 각성선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의 중요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벽암 각성선사는 선조 8년(1575) 12월 충북 보은의 서삼산에서 김해 김씨인 아버지와 조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징원이며, 법명은 각성이고, 스스로 지은 호가 벽암이다. 어느날 밤 어머니 조씨가 백발 노인으로부터 옛 거울을 받아 지니는 꿈을 꾸 태몽으로 그를 회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점을 살필 때 각성은 양가와 정성어린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기도 하였다.

각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서, '생김새가 비범(風骨異常)하고 뛰어난 얼굴(容貌 美)로 눈동자는 빛났다(星眼如電)'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 타고난 자질이 출중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효심과 웃어른 대한 공경심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벽암은 10살 때 뜻을 세워 군내의 화산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 설목장노를 스승삼아 제자가 되었다. 이어 14살 때는 머리를 깎고 불도에 정식으로 입문하여 구족계를 보정대사로부터 받았으며 그후 불경을 공부하였다. 훗날 그의 스승이 된 부휴선사가 화산에 왔었다. 그런데 한눈에 벽암이 불



법의 진수를 담을 수 있는 훌륭한 그릇임을 알아차렸다고 전한다. 그 뒤로 벽암은 부휴선사를 쫓아 스승으로 모셨다. 속리산 등 여러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며 스승을 늘 그림자처럼(形影相隨) 따라 다녔고, 경, 울, 론 삼장을 널리 열람하였다. 그리고 선조 25년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역시 스승을 모시고 장검하여 명나라 장수와 함께 특히 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전투에 분연히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리니 명나라 장수들도 각성의 해전에 뛰어난 전술과 인품에 탄복하였다고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는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가야산에 있을 때 벽암이 스승 모시기에 정성스럽게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지라, 사명대사도 줄곧 "훌륭한 시자"를 두었다고 축하해 마지 않았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 이종성도 해인사를 지나갈 때, 벽암의 모습이 으뜸감(相貌逸偉)을 보고 부휴선사에게 "백락의 마굿간에는 준마의 망아지만 많을 뿐, 선사의 시자는 천리마와 같은 청년"이라고 부러워했으며, 또 부휴와 각성의 사제 관계를 자기 나라의 불도징과 도안 관계에 비유해 도징도안복견어해외(圖澄道安復見於海外)라고 찬탄한 일도 있다. 벽암 각성은 스승 모시는 일에 철저하였고 그 인품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은 부휴와 각성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대불, 소불이라고 하며 존경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광해군은 벽암 각성을 봉은사에 머물게 하고 판선교도총섭의 직함을 내렸으며, 많은 하사품도 내리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대부와 교우를 갖게 되었다.

벽암 각성선사는 인조 2년(1624.7.28.)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팔도도총섭이라는 중요한 직책, 즉 승군대장으로 산성 축성의 대임을 전적으로 책임 지게 되었다. 조선 팔도에서 소집된 의승군은 성내의 8사

에 배치되고 망월사 등 8사(옥정사, 개원사, 국청사, 천주사, 남단사, 장경사, 동림사)에는 모두 병기창과 화약고 그리고 군량미를 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산성내의 동, 서, 남, 북 네 봉우리에 장대를 설치하고 그 장대의 좌, 우에 사찰을 배치하였고, 승군 본영 사찰로 개원사에서 모든 지휘 통솔을 하였다. 벽암 각성은 의승군 대장으로서 전국 의승군을 지휘 감독하여 나라로부터 아무런 보조 없이도 2년 5개월 만에 완전히 축성의 대임을 마쳤다. 남한산성은 수도권 호위에 적절한 산성 요새였고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는 양병훈련장이 되었다. 그리고 벽암 각성이 영도하던 의승군은 이때부터 수도 방위를 위한 상비 정예군으로서 면목을 갖추어 조선왕조 270년 간의 승변제를 유지 발전 시켰다.

그리고 진충호국하는 불교도의 빛나는 애국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관군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축성역사를 헌신적 노력으로 훌륭히 완성 한 벽암 각성은 나라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으므로 왕으로부터 특별한 치하를 받았다. 즉 인조 4년(1626) 11월에 받은 구례 화엄사에 현존하는 사령에 의하면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시호와 가사와 발우가 특별히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벽암 각성은 화엄사로 내려와 사찰을 중수(1633)하여 율창한 총림을 차리고 불법 홍포에 정진하면서 도제 양성에 온 정열을 쏟았다.

이와 같이 벽암은 남한산성을 축성 수비 경영하는 데 앞장섰고, 향마군을 조직하여 쓰러져가는 국운을 바로 잡으려는 등 그의 충성스런 애국심과 헌신적 역량은 높이 평가되었다. 1640년 봄에 쌍계사로 돌아가서 옛 사찰을 중수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호남관찰사, 원평부원군 원두표 등의 주언으로 그는 규정도총섭으로 임명되어 무주의 적상산성에 있으면서 사고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국가적 중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각성은 1642년 해인사에 돌아와 있었던 6월에는 사명대사를 뒤이은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각성은 말을 달려 서울로 향하던 도중 노병으로 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본 사신의 자리를 사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명대사가 맡았던 애국적 대일 외교활동을 각성에게 맡기고자 했던 나라의 의도로 보아 각성의 애국적 역량이 뛰어났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후에는 백운산 상선암에 머물렀으며, 1642년 보개산으로 들어가서 법석을 열었다. 이때 왕자였던 효종은 그를 만나 화엄종지를 배웠다. 1646년 가을 법주사에서 동문인 희언과 은거하였고, 희언이 화엄사로 가서 입적하자 그도 화엄사로 가서 지내다가 제자들에게 "도업에 힘써 국은에 보답할 것"과 "사후에 비를 세우지 말 것"을 유언한 뒤 입적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법주사에 세워진 정두경의 비문이나, 구례 화엄사의 이정석이 지은 비문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그때가 나이 86세요, 법랍 73세였다. 이상은 벽암 각성선사의 진충보국하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살폈다. 한국불교의 이러한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어 발전되어진 호국정신의 기본바탕에는 불교와 민족은 둘일 수 없다는 한국불교의 특성이 살아 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조선 8도의 역량이 총동원된 호국의 의지가 서린 역사의 땅이므로 모든 것을 포용한 또 하나의 한국정신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곳이다.

### 3. 병자호란시 의병 관련 자료 분석

#### 1. 『양구기사』(규11509) 4권 4책, 필사본

병자호란과 이후 청과의 강화과정을 기록한 자료. 특히 병자호란의 과정을 응천일기, 조야기문, 병자록, 일월록 등에서 발췌하여 수록. 주내용은 청병의 침입, 명병과의 연합, 주화파·주전파의 논쟁, 남한산성 전투, 청과의 외교문제, 강화도 관군의 패전 사실, 각 지역의 의병 활동, 삼학사 등 항전순국인물, 삼전도비문내력, 승려 독보와 임경업 장군 기록. 따라서《남한기략》《병자록》과 함께 병자호란 연구의 귀중한 사료다.

#### 2. 『남한기략』(규15563) 1책(36장), 필사본

김상헌(1570~1652)이 병자호란때 남한산성에 왕을 호종했을 때와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을 때의 기록. 주로 남한산성 피란 이후 주화파, 주전파 입장과 김상헌의 주전론, 강도에서 순절한 김상용의 활동을 기록한『강도순의』, 남한산성 장수명단『남한수성제장』, 호종신하『호종제신』, 청의 볼모로서 용호와의 문답내용, 기타 김상헌의 상소 등 수록. 이 책의 특징은 주전, 주화파의 주장과 명분 및 그에 따른 유신들의 견해와 대청외교사를 연구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저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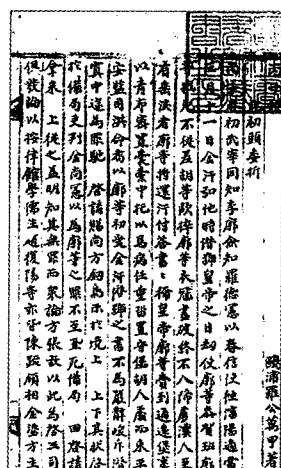
#### 3. 『남한일기』(규998.4342), 석지형, 4책, 필사본.

인조 14(1636)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 입성과 항복할 때까지의 기록. 1책은 1636.12.14~20. 인조의 남한산성 입성 상황을, 2책은 주화파, 주전파의 대립과 물자부족 상황, 3책은 대신간의 갈등, 근왕병의

전투상황, 4책은 강화도의 함락, 인조항복, 천도의 기록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호종록』을 수록하고 있음. 이 책은 주화파와 주전파의 입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며 저자의 『남한해위록』과 함께 남한산성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남한일기의 저자 석지형의 생애와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지형은 1610(광해군2)~? 조선후기 문신이다. 자는 숙진, 호는 수현, 본관은 화원, 경하의 아들이다. 1633년(인조11)진사가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뒤에 형조 좌랑이 되었다. 횡성 현감으로 재직중 김해에 귀양갔다가 곧 풀려나와 오랫동안 강화부 교수를 지냈다. 1653년(효종 4) 『오행귀감』을 편찬, 왕에게 바쳐 역경, 심경·호피 등을 하사 받았으며, 현종 때 개성부 교수를 지냈다. 그리고 정지호의 『남한일기』와 남평조씨, [남한일기] 필사본등도 전해 오고 있다.

#### 4. 『병자록』(규12493) 나만갑저, 1책(121장), 필사본

구포 나만갑(1592~1642)이 병자호란의 전말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실제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위했던 나만갑의 실제경험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으로 병자호란의 배경, 남한산성에서의 목격사실, 삼전도의 항복 이후 각종 사실 등을 수록하여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전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이 책의 저자 나만갑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만갑은 1592(선조 25)~



丙子錄

1642(인조 20).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자는 몽퇴. 호는 구포, 본관은 안정, 보덕급의 아들이다. 1613년(광해군 50)시에 합격, 성균관에 입학했으나 인목대비의 서궁 유폐 사건이 일어나자 낙향, 독서로 세월을 보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순릉 참봉이 되고, 이해 통덕랑으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을 거쳐 교리가 되었을 때 노서인 김유가 복인인 남이공을 등용하자 소서로서 이를 반대, 강동 현감등해 환도하여 병조 정랑·수찬·지평을 역임. 1635년 형조 참의로 시정을 논하다가 파직당했다. 이듬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들어가 공조 참의로 기용, 이어 병조 참지로 전직되었으나, 강화 후 무고를 받아 남해에 유배되었다. 1639년 풀려나와 영주에 돌아가 죽었다.

#### 5. 『봉황성일기』(규12826) 시강원편, 1책(14장), 필사본

병자호란 때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가 인조 20(1642) 청태종의 명령에 의거 봉황에 유리되었을 때의 일기. 당시 세자의 일상사, 청국의 사정, 조선측 인사나 입장을 기록한 책이다.

#### 6. 『서봉일기』(규6776) 편자미상, 1책(160장), 필사본

이귀의 아들인 서봉 이시방(1594~1660)의 일대기 및 정묘, 병자호란 등의 사실 기록한 책이다.

#### 7. 『소현 동궁일기』(규12821) 시강원편, 12책, 필사본

소현세자(1612~1645)가 동궁에 있을 때 시강한 내용과 동정을 적은 자료. 세자책봉 이후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기록과 분조관련 사실기록으로『소현분조일기』와 함께 분조연구에 도움이 되는

사료이다.

## 8. 『소현분조일기』(규12824) 시강원편, 4책, 필사본

정묘호란때 소현세자의 분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 분조란 임진왜란때 이후 광해조의 예를 본받아 군사방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긴급히 왕을 강화도 등에 피난가게 하게 별도로 소현세자로 하여금 왕권을 대리케 한 제도. 주내용은 인조의 분조결정 과정, 세자의 분조 설치 이후 분조의 대행 내용. 군량미, 의병소모 사실, 강화와의 연락, 각 읍의 군기(화약) 수발관계 기록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병자호란 당시 분조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주며 삼남 지방의 군량, 의병, 화약 등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기록한 점에서 호란 당시의 지방사 연구에 일조 할수 있는 책이다.

## 9. 『심양일기』(규12825--1~2) 편자미상, 필사본

10책과 8책의 두 질이 보관되고 있음. 10책은 초서로, 8책은 해서로 쓰여져 있음. 『봉황성일기』 1책은 인조20년(1642)10월과 11월 일기이고, 북행일기 1책은 1644년 4~6월 일기인데 아마도 10책의 일부로 추정됨. 병자호란 이후 인조 15(1637) 남한산성의 출성부터 소현, 봉림대군이 인질로 심양에 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8년간의 기록. 주내용은 남한산성 출성 이후 삼전도 항복, 세자일행의 심양도착, 봉림대군의 서행, 임경업장군의 활동 금주성 공격 전말, 배종신의 활약상, 윤집 등 삼학사처형, 청의 군사동원, 김상헌, 최명길압송, 청태종의 사망과 북경천도 등 수록하고 있음. 이 책은『심양장계』와 함께 대청외교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료다.

#### 10. 『심양장계』(규9918,1878) 편자미상, 10책의 정본과 부분으로 구성된 필사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종신과 함께 인조 15년(1637)2월19일~인조 21(1643)12월 15일까지 청의 심양에 볼모로 있을 때 시강원 재신과 강관을 통해 승정원에 보낸 8년간의 장계등록임. 주 내용은 세자 및 종신의 동정, 청아문과의 교섭, 심양의 실정, 명과의 관계, 포로송환, 교역문제, 청황실의 문제, 청과 일본, 몽고와의 관계, 가도의 상황, 담배 종이 등의 교역 등 수록. 이 책은『심양일기』,『비변사등록』과 함께 명청교체기 조선의 대청외교사, 청조사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료다.

#### 11. 『심양왕환일기』(규15682) 박난영저, 1책(38) 필사본

인조 9(1631) 박난영(?~1636)이 심양에 사신으로 다녀온 기록. 병자호란 때 용골대 등과 화의내용을 중심으로 개시문제, 포로쇄환문제, 가도주둔 명군 문제 등을 연구하는데 참고자료. 이 책 역시 대금외교의 연구에 중요한 1차 사료다.

#### 12. 『신사서대시치행사건』(규9891) 편자미상, 1책(16장), 필사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에 볼모로 잡혀갔을 때 청태종의 금주 정벌에 동행한 사실을 기록한 책. 청태종이 인조 19(1641) 명군의 주둔지 금주를 정벌할 때 심양에서 몽고 근방의 송산까지 왕복한 34일간의 일기. 특히 청의 금주성 정벌에 따른 조선의 원병 파견 문제, 전마 문제 등을 수록하여 조선의 원병과 청의 세자 대우, 그리고 당시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료다.



### 13. 『조야기문』(규12714) 저자 미상, 5권 5책, 필사본

조선시대 이성계의 고조(목조)에서 병자호란까지의 역대사실과 관련인물의 열전을 모은 사서. 특히 4책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의 배경과 과정, 5책은 옹호의 왕래와 병자호란의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호란 연구에 크게 기여한 자료다.

### 14. 『아아록』(규7770) 남기제저, 4권4책, 필사본

남기제가 동서로소 분당의 시말과 사화, 왜란, 호란에 관한 전말을 기록한 책. 특히 4권에서 임진사략과 병자사략이 수록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사대존모와 존명배척의 사실을 기록하고 김상헌, 송시열을 옹호하고 최명길 등 주화파를 비난한 글이 수록. 아마 노론의 입장에서 당시의 당쟁과 주전론을 전개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다.

### 15. 『난중잡록』(규6586) 조경남저, 16책, 필사본

임진왜란 때 남원의 의병장인 조경남(1570~1641)이 난중의 내용을 편년체로 기록. 특히 속편은 광해군 3(1611)~인조 15(1637)까지 병자호란의 참상을 기록. 조경남은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때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활동 전개. 특히 속편에서는 광해군의 폐정, 인조반정, 정묘호란의 교섭, 정묘호란의 항쟁과 참상, 대청관계, 병자호란과 의병항쟁 등을 수록하여 호란사 및 호란 당시 의병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 16. 『김의정강도정축록』(규6977) 김광환편, 1책(30장) 목판본

병자호란때 강화성이 포위되자 김상헌의 형 선원 김상용(1561~

1637)의 사적과 척화파의 추송의 전말을 기록한 책. 주내용은 청군의 의주입성부터 강화피난, 강화성 포위, 김상용의 자살문제 등을 수록. 삼학사의 항청절의정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17. 『양호거의록』(규6796,4817,4818,5604) 호남유생 편, 3권1책, 활자본**

정묘호란때 양호호소사로 임명된 사계 김장생(1548~1691)의 호서, 호남에서 활동한 의병기록. 영조 36년(1760)에『광산의거록』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나 내용이 소략하여 정조 22(1798) 호남유생이 증보하여 편찬한책. 상, 중, 하 3권으로 나뉘어 의병소모사실과 장계, 격문, 의병장들의 내력, 무장, 고창, 흥덕, 태인, 전주, 남원, 나주, 김제, 영광 등에서의 소모사실 기록. 따라서 정묘호란시 호남지방 의병연구에 도움.『정묘거의록』이라고도 한다.

**18. [호남병자창의록](규4102,4192) 호남유림 편, 5권2책, 고활자본**

병자호란때 호남지방의 유생, 지방수령들이 주동하여 일으킨 의병의 전말을 기록한 책. 초간은 호남유림들이 영조 31(1755) 간행하였으나 그후 정조 22(1789)에 재간행. 주내용은 창의사실과 통문, 보첩, 소모사실, 의병참가인물 기록. 특히『화순거의시일기』는 생원 조수성의 장자가 의병 및 군자모금, 청주까지 북진한 내용 등 기록—각읍의 보첩이나 일기에 의하면 의병군으로서 노비, 승려, 교생이 주류를 이루고 기타 포수의 활약상과 임난 이후 도입한 삼수.속오법에 의한 부대편성 사실을 파악하는데 도움. 이책의 특징은 17세기 병자호란시

의병의 항쟁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뿐만 아니라 지방사회 내지 군사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있다.

#### 19. 『소위포 창의록』(규6596) 김리공 편, 2편, 필사본.

김리공이 편찬한 김우(1572~1627)의 정묘호란시의 소위포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실상을 기록한 책. 특히 김우의 임진왜란 당시 활약, 용골성 수축감독 그리고 정묘호란때 관서지방에서 의병3,700명을 모아 소위포에서 의병항쟁사 기록하였음. 『소위포창의진도』에서 의병항쟁 및 모문룡과의 왕래, 명군과의 토난대책, 승전과 패전 사실 상세히 기록. 이책은 강홍립이 후금과 내통한 전모와 호란의 과정 그리고 모문룡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다.

#### 20. 『호남절의록』(광주향교 소장본) 전3권 활자본.

이승만 1964년에 호남지방의 선열들의 우국충정의 절의를 숭상하고 후손에 전하기 위해 『구호남절의록』, 『병자창의록』, 『동서전난사』, 『왕진사』, 『한국독립운동사』, 『기로수필』, 『매천야록』, 『대동사강』 등의 여러 사료를 참고하여 조선시대 태종 병년(1406)의 부터 세종 기해(19419)의 그리고 이시애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인좌의 난, 홍결애난, 병인양요, 3.1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500년간의 국난극복의 사실을 기록한 책. 그중 정묘호란 당시의 호남지방의 근왕병인 의병의 활약상은 『호남절의록』 권3. 제11장 「인조정병의적」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 정묘호란시 김장생은 양호처소사, 장현광을 경상 호소사로 파견하여 소모한 사실과 병자호란시 남한산성으로부터 근왕병을 소모하는 교문이 내려오자 옥과 이흥, 대동찰방 이기손, 창현

감 최 등이 창의하여 모병청을 설치하고 도내에 격문을 발송, 산에서 집결하여 청주로 진격할 것 등에 관한 사실과 의병의 명단을 자세히 전하고 있어 정묘, 병자호란시 호남지방에서의 의병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 21. 『호남모의록』 단권.

호남지방의 의병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영조36년(1760) 안동 김원행과 파평 김조구의 서문과 기, 윤인복의 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광 부감사에서 출간된 문헌임. 특히 「활란시사실fir」에는 이괄의 난 때에 호남에서 의병을 모집한 사실과 그들의 신분 및 이력의 전말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 의병들의 활약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 22. 『영양창의록』 활자본.

경상도 영양지방의 의병기록. 임진왜란 당시 동래, 우산, 경주 및 영양에서 진사 정세가 의병장이 되어 창의한 사실을 모은 「진창의록」, 정묘호란시 영양군의 유학손, 전지성, 신준용 등이 창의한 사실을 적은 「창의록」 그리고 병자호란시 감찰 정호인이 남도의를 편성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하기 위해 창의한 사실을 적은 「병자창의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경상도 영양지방에서의 의병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헌임. 이외에 여조 당시의 이인좌의 난을 기록하고 있어 이를 『영양사난창의록』이라고도 한다.

## 23. 『매은 라선생 병자난 성행』 필사본.

병자호란 당시 인조 임금을 호종한 매은 나이준과 정신국의 행적을

『영천군지』, 『지지』, 『서당』, 『국조현감』, 『태학성전』 등에서 발췌하여 필사한 자료임. 이 자료는 『진종록』과 함께 호란 당시 호종신하들의 역할과 향후 정치세력화에 나가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다.

#### 24. 『임충공실기』

정묘, 병자호란시 의주 백마산성에서 청과 치열한 전투를 통해 임경업 장군의 용맹성과 절의 정신을 기록한 자료임. 충렬사에 배향되었으며, 구한말 일제시기에는 『임경업장군전』이 간행되어, 그의 충절을 되새기며 국권회복 정신의 기틀을 마련하는 수신서로 크게 각광을 받았다.

#### 25. 『호남절의록』

『병자록적』 호남지방에서의 병자호란 당시 의병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책으로 「화 공사실」에서는 운암 이흥발은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서 동생 이기흥과 함께 모의청을 설치, 모병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으며, 「순절자공사실」에서는 이항길, 백선남 등의 순절사실을 「창의자공사실」에서는 라해, 안후지 등의 창의사실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전해주고 있는 호남의병사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 26. 남평 조씨, 『남한일기』 필사본.

병자호란 당시 남이웅의 처 남평 조씨가 피난길에 보고 들은 백성들의 참상과 일상생활속에서 국난을 당하면서도 꾀꾀한 사대부 가문의 부녀자로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한글체 일기임. 이 자료는 조선후

기 한글 발달사연구 및 규방문화를 살피는데 중요한 문헌이다.

## 27. 『동국전란사(전)』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우리나라 전란사에 관한 자료를 모은 자료 집이다. 소화2년(1927)에 한양서원에서 발행된 책으로 고대부터 근대 을미사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외침의 사실을 기록한 책. 내용구성은 승수, 연계자국, 사대국 과 권1, 중국난부 권2, 호난부 권3.4, 이난부 권 5.6 내란부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호난부에서는 말간, 거란, 여진, 몽고, 홍건전의 침입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및 병자사를 기록하고 있다. 「병자호란」부분에서는 인조 14년 1636) 2월에 나덕헌을 춘시사로, 이괄을 회답사로 심양에 파견한 사실부터, 홍익한, 오달제, 윤집의 척화상소와 최명길의 주화론을 살필 수 있는 상소문 그리고 후금의 침입에 대하여 광주 쌍령전투, 광교산전투 등 우리 측과의 전황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이 책은 일제시기 항일 운동의 정신적 기상을 드높이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 28. 이민환 『자암선생문집』

(상.중.하)3권. 이민환의 시문집. 광준의 아들로 호란 당시 건주기를 전문한 사실이나 병자호란시 건주위 누루하치 군대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방비책 6조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국내외 외교 및 군사와 마정 등의 정치현황을 살피는데 필요한 자료임. 「서행록」, 「건주간견록」, 「병자춘시」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29. 책명 불명.

태조부터 각 연대 왕의 시대 사건을 기록한책. 인조 연간의 이괄의 난, 병자호란 사실을 기록한 김인래 사실과 봉림대권이 청나로 인질로 끌려가면서 청석령 고개를 넘으면서 지은 시가 전해지고 있다.

## 31. 『남한일기』 권4, 필사본.



한글본 남한일기(南平曹氏)

이기진이 인조 14년 (1636)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 입성과 항복할 때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책. 1책은 1636.12.14~20. 인조의 남한산성 입성 상황을, 2책은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화파, 주전파의 대립과 물자부족 상황, 3책은 12월 27일부터 대신간의 갈등, 근왕병

의 전투상황, 4책은 1637년 1월 6일 이후 강화도의 함락, 인조항복, 천도의 기록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 「진종록」을 수록하고 있음. 이책은 주화파와 주전파의 입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며 『남한일록』과 함께 남한산성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다. 이 책의 저자 이 진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진은 1687년(숙종 13)~1755(영조 31) [조선]문신. 자는 군범, 호는 목곡, 보관은 덕수, 양구현감 당의 아들, 백부인의 문인. 1717년(숙종 43) 진사가 되고 이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 ·홍무관에 재직.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급거 상경, 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난이 평정된 뒤에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있다가 1729년 다시 기용되어 함경도 관찰사·대사간·경상도 관찰사·형조판서·경기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741년(영조 17) 판의금부사·이조 판서를 지내고 1744년 홍주 목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다시 경기도 관찰사·판의금부사를 지내고 이어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1749년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15년 광주부 유수로 『한봉도』를 지어 올렸고, 판도령부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헌. 『국역 남한일기』는 광주문화원에서 1992년에 출판하였다.

### 32. 『보 감』권6, 활자본.

숙종(1674~1720) 재위 46년간의 치세 내용을 기록한 보감. 숙종시대에는 도성방위를 위해 북한산성을 축성하였으며, 한편 남한산성의 증.개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수어사 김진조가 남한산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군병을 원주진 등으로부터 동원하여 ‘모민작순’ 함으로써 산성을 방어하도록 청하는 상소 등이 수록되어 있어 숙종시대의 남한산성 방어대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헌이다.



### 33. 『남북한의승방변통절목』 (『비변사등록』130책, 영조 32년 1월 12일조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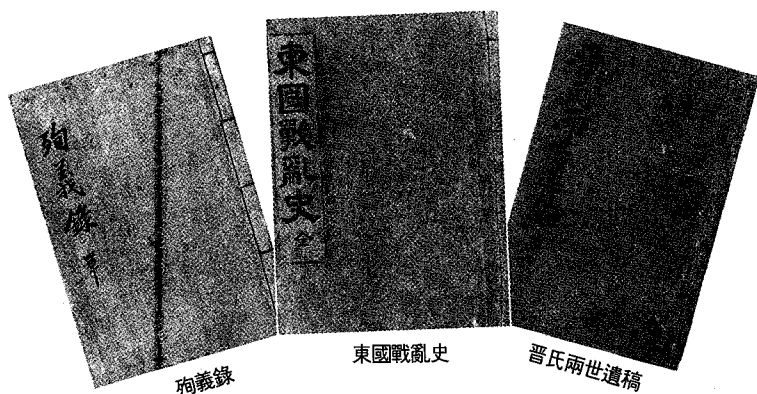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축성과 수비에 있어 각 지방의 향승을 의승이라 하여 산성역에 입번시키다 이후 폐단이 발생하여 상변입역대신에 방변전을 납부케 한 변통과정을 기록한 절목. 남한의승의 편성은 경기도 14명, 충청도 28명, 강원도 14명, 황해도 4명, 전라도 136명, 경상도 160명 등 356명이며, 각각 의승방변전을 납부하여 산성의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이것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의승의 입번과 방법의 실태, 당시 고립제 일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 34. 『비어고』(규7708) 이중협 편, 10책, 사본

이중협이 역대 군사관계의 자료를 편찬한 총서의 일종. 『비어촬요』, 『비어고』, 『비어전고』 등을 기초로 하여 유성룡의 『성수기의』, 『징비록』, 신유환의 『해유록』, 정약용의 『일본고』 등을 편집한 책. 그 중 강방고와 해방고 그리고 산성고는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평안, 함경도의 산성에 관하여, 제8책 정묘록, 병자록 등은 정묘, 병자호란에 대한 기록임. 따라서 이 책은 조선후기 산성과 호란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자료다.

### 35. 『순의록』 단권.

이용구의 활자본 저술이다. 병자호란 당시 광주 쌍령전투에서 절의를 지킨 이기육의 일대기를 기록한 절의록임. 권상규 등의 서문과 영천인 이기육의 전기 및 그의 묘비명 아지 묘정 비명 병서 등을 수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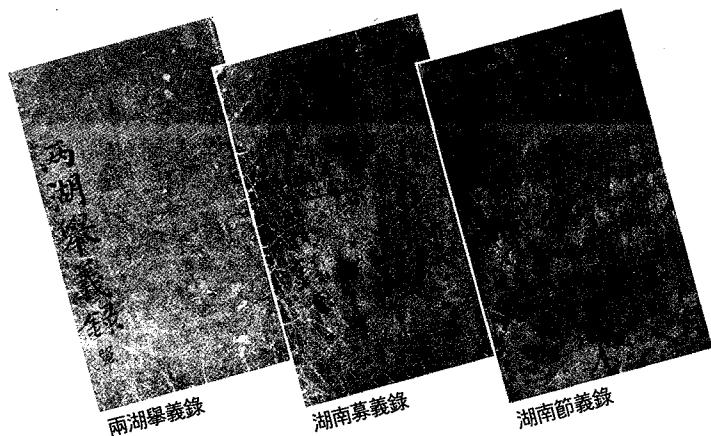
였음. 이 자료는 양호거의록 등과 함께 병자호란시의 지방의병 활동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다.

### 36. 『호남절의록』 전4권. 활자본.

이 절의록은 병자호란시 호남의병장 및 의병들의 활동상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권5 병자의적에는 이흥발, 김지수, 김동준, 유지화 등이 병자호란시 척화한 제공의 사실을 기록하여 병자호란시 호남지방 의병들의 신분과 활약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 37. 『호남절의록』 천.지.인 3권.

이 절의록은 조선초기 태종대 왜구침입부터 인조대 정묘.병자호란 그리고 광주학생사건에 이르기까지 500년간의 내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호남인사로서 입절한 사실을 수록하였으며, 타도 출신일지라도 자손이 호남에 거주한 자의 수단도 수록하였다. 광주향교 소장본



임. 이 자료는 병자호란당시의 호남절의록과 더불어 당시 호남지방의 병사를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38. 『호남모의록』 단권.

송정133년 경진 안동 김원행과 파평 윤봉구의 서문. 특히 팔난시사 실락에는 이괄의 난 때 호남지방에서 의병을 모집한 사실 즉 통문과 9읍의 도회관 그리고 모의에 참여한 여러 의병들의 신분과 이력의 전말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 이괄의 난을 진압할 당시 호남지방 의병들의 신분과 활약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임. 송정기원후 3경진 5월 영광 불갑사에서 출간한 자료. 유취기, 윤일복의 발문이 있다.

### 39. 『창곡집』. 단권 활자본.

창곡 이희백의 문집. 가정 이곡의 후손. 이 문집 중에 6도에는 망남한산성통곡도와 창의둔용문산도 등이 있으며, 특히 권3에 용만회화좌

목기, 제호남의록후, 창의록과 용만록은 병자호란 당시의 의병관계를 기록하고 있어 호란시의 의병사연구에 도움이 된다.

#### 40. 『진씨양세유고』 단권.

남원 진씨 후손들의 병자호란 당시의 기록. 진대봉의 『인과일고』 진수성의 『소은실기』가 수록되어 있어 병자호란시의 남원 진씨들의 활약상을 전해주는 자료다.

#### 41. 『강도일기』 『호종록』 남급의 『난리일기』

[조선]문신. 자는 탁부, 호는 유유헌, 본관은 영양, 용달의 아들.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 1630년 음보로 벼슬에 기용되고, 1636년 병자호란때 사옹원 참봉으로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다. 당시 청나라 침입의 상황을 <<난리일기>>로써 기록했다. 종묘시 직장이 되었다가 사직하였고, 뒤에 별제로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잠농여어>>를 저술했다. 현감에 이르렀고, 80세에 죽었다. 참판에 추증되었다.

### 4. 성남지역의 의병정신의 특성

한강 남쪽 남한산성을 중심 축으로 발전되어온 성남시는 광주라는 도시는 문자에서 시사 받는 말 그대로 넓은 고을이라는 뜻이다. 이 넓은 고을을 동광주와 서광주로 다시 구분하여 보면 오늘의 성남시는 서광주 지역에 속하는 땅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광주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미래의 역할이 주어진 역사의 고향이다.

이땅에는 일찍이 온조대왕과 백제의 10제 공신이 한성 백제의 도읍지로 하남 위례성을 건설하여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성 백제 시대 약 470년간 문화의 중심을 이루면서 한강과 그 남쪽의 넓디넓은 땅 광주의 역사와 문화가 꽃피었던 도시였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2000년의 민족정서가 서린 민족의 성스러운 땅이요, 민족의 자존이 숨쉬는 땅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 숭열전(경기도 문화재 제2호)이 있어 백제 개국의 정신이 흐르는 민족의 정신적 도량이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도 한산주로서 9주 중 가장 중요시 되었을 뿐 아니라, 고려 시대에도 전국을 5도로 구분하여 중부 지방을 양광도라고 하여 한강 북쪽의 양주와 한강 남쪽의 광주를 그 중심축으로 삼아 발전한 중요 지역이었다.

조선시대를 통해서도 유수부를 두어 정치적으로 중요시했을 뿐 아니라, 남한산성의 수축 시에는 조선 팔도의 전 역량이 모았다. 성곽 주변의 4장대지 좌우에는 조선팔도를 상징하는 여덟 개의 사찰을 창건하여 진충보국하는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정신적 고향이 되게하였다.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광주부는 경도보장지로서의 역할과 남한산성의 행궁이 완성되면서 임시 수도의 기능까지 함께 갖춘 한강 이남의 최대 도시로 발전하였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조선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항쟁의 장소였다. 그러므로 많은 의병들의 활약과 그 정신이 면면히 계승 발전되어온 땅이다.

남한산성에는 조선 선비정신의 표상이요, 충절의 선비인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영혼을 모신 현절사가 있어 조선의 선비정신을 떠올리게 된다. 남한산성의 현절사가 그땅에 그 역사를 간직하고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다.

그러나 조선왕조에 있어서 대청과의 관계를 살필 때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청나라는 대국의 의지에 반하는 삼학사의 사당을 만든다는 일이 어찌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숙종임금은 만년을 무릅쓰고 남한산성 양지바른 언덕에 삼학사의 영혼을 모신 사당을 만들었고 우암 송시열선생에게 명하여 삼학사전을 쓰게 하였다.

조선의 선비된 사람들은 모름지기 남한산성의 현절사에서 삼학사에 대하여 배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연 선비라고 말 할 수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조선의 선비들로 하여금 남한산성의 삼학사가 계신 현절사를 찾게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시대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들이 줄을 이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민족정기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민족 주체의식을 심화시키는 장소로, 그리하여 패배의 절망을 딛고 더욱 빛나는 문화전통을 일으켜 세우는 저력을 보인 땅이 남한산성이었다.

우리 민족은 남한산성에서 그 역사를 배우며 그때 그 일을 잊지 말자며 수어장대의 내부 편액을 “무망루”라고 까지 하였다.

숙종 대왕 17년 7월 13일에는 산성내에 1000호의 가옥이 만들어 저한강 남쪽의 제일 규모가 큰 도시로 발전케 하였다. 우리 나라의 산성 취락 도시로도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산성리 마을이기도 하였다. 17

세기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는 조선의 개국 정신이었던  
존주 친명 정책이 무너지면서 민족의 자주 의식이 싹트는 계기를 맞  
이하게 된다.

조선 주자학의 이론 존중과 실제 경시의 특징은 새로운 도전에 직  
면하게 된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신 학풍을 주도하는 세력  
으로 한강 이남의 옛 광주 땅을 중심으로 근기학파의 활동이 두드러  
진다. 광주를 중심으로 근기학파는 이러한 기존의 경향을 반대하는  
신 학문 활동을 전개한 실학의 태생지로서의 자리를 잡아갔다. 실학  
의 정신은 ‘자아’ 즉 사상적, 민족적 주체성의 재검토, 재확립에 있다  
고 하였다. 훗날 근대 지향성과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발  
전하여 갔다. 그러므로 보편적 요소를 갖춘 과학성과 민족의 자주  
의식 즉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발전  
하였다.

이러한 학풍이 한강 남쪽 광주 땅 성남을 진원지로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풍토와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실일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근기학파의 산실로서 우리는 성남의 위상을 생각할  
때이다. 근대화의 여명을 열었고 민족의 자주의식에 불을 지폈던 옛  
광주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학의 비조 유형원을  
비롯하여 실학을 하나의 학파로 이룩한 성호 이익과 윤희, 순암 안정  
복, 박제가, 그리고 실학을 집대성 시킨 다산 정약용 등이 모두 이 지  
역 출신의 실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한말 의병 활동의 중심 무대요, 일제 시대는 3.1운동의 봉  
화를 높이 들었던 민족 자존의 역사를 간직한 땅이다. 그러나 성남시

서울에서 가까운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이래로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 지역으로 남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광주는 민족 자존의 역사가 숨쉬는 곳으로 민족정신의 산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일제는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았고 철저한 파괴와 민족말살 정책의 희생양으로서 광주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식민지 책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장이기도하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군권을 장악한 이후 민족 자존의 땅 남한산성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병권을 쥐고 조선 군대를 해산하더니 그후 1907년 8월 1일 산성내의 200여 곳의 무기고와 화약고가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하여 산성내 현지에서 무참히 폭파되었다. 조선인은 무기와 화약을 자주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민족으로 우리를 격하시켜나갔다.

그리고 산성내의 많은 문화재 또한 일제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어 갔다. 특히 남한산성 내의 250여 칸의 행궁 마저 파괴되는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 되었다. 그 이후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의 뒤편길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왜곡되면서 일제에 의하여 치욕적인 땅, 패전의 땅이란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이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망령의 쇠사슬을 끊어 내지 못하고 남한산성을 “치욕적인 땅”이니 “패전의 땅”이니 하는 일제의 식민지 사관에 의하여 비하 당하는 슬픈 역사를 우리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그렇게 불러 왔던 세월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인식의 태도였으며 우리들의 한계요 무지였다. 성남의 역사에서는 이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 비전을



제시하는 성남의 뿌리를 확인하여 그 빛나는 새역사의 정신을 찾아내야 한다. 그 정신이 의병항쟁의 정신으로 이지역에 꽃피었던 정신인가 한다.

## 5. 맺는말

성남의 의병관계 조사 연구의 특성은 남한산성의 역사와 그 속에 깃든 정신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남한산성에서의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조선은 크나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병자호란은 남한산성의 국한된 전란이 아니었고 전 조선적인 의병을 봉기를 일으켰으며 이 정신이 조선을 지배하는 하나의 축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병자창의록, 모의록, 거의록, 순의록 등등은 조선사회 전체 전국적인 의병항쟁의 불길을 말하여 주는 사료들이다. 이러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성남의 의병관계를 조사하면서 남한산성에 깃든 정신의 원형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백제 개국정신의 원류로서 개척정신과 창조적 정신을 들 수 있다. 이 정신은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의 기운이기도 하다. 성남의 뿌리로서 백제의 개국정신은 신 개척정신이요 창조적 정신으로서 우리들의 제일의 가치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나라사랑의 정신, 진충보국 하는 정신, 호국정신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선비정신의 고향으로 성남의 정신을 파악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근기학파의 산실로서 성남을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강 이남의 옛 광주 땅 성남에서 그 정신을 잇는 자긍심은 오늘 다시 의병정신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의병정신의 실천성이 강조되어지는 성남이기에 정신의 원형 또한 남한산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의 의병정신에서 발원하여 나아가 한말 개화사상, 그리고 3·1독립정신으로 이어지는 민족자존의 정신을 담아내는 성남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을 뿌리로 하여 성남 의병 연구의 맥을 짚어나가야 할 때이다. 성남정신의 원형중에 하나로 의병정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의의 서곡을 열었다는데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남의 의병정신을 논하면서 남한산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성의 지혜를 통하여 성남의 의병정신의 특성을 파악 할 수밖에 없다.

백제 온조대왕이 이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백제 개국의 정신이 흐르는 성남이어야 한다. 산성의 성돌들 처럼 팔도의 시민이 축성한 진충보국하는 호국정신의 산실로서의 성남의 정신을 생각하자. 옳고 그름을 먼저 분별하고 정의를 위하여 목숨마져 버릴 수 있는 조선의 울골은 선비정신의 도량 현절사 삼학사의 정신을 본 받는 성남시민이 되어야 한다. 조선의 민족적 자아를 확립한 근대화의 기수들을 배출한 근기학파의 산실로서 성남의 “철학”과 “성남학”을 새롭게 열어 가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을 길러내는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한다 이곳에 내일의 성남 정신이 있기에 그 뿌리로서 의병연구의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근대 실학의 정신을 꽃피운 그 정신의 원형도 의병활동의 정신이 면면이 흐르는 성남지역의 정서에서 기인한 우리들의 의식

에서부터 발아한 사실이다. 이러한 정신의 쇠퇴는 결국 일제의 식민지 책략 때문이었고 이 지역의 쇠퇴 또한 그러한 연유였다.

이제 우리는 성남 의병관계 조사연구의 초석으로 남한산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남한산성을 쌓았던 선인들의 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남 의병정신의 틀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의 의병관계 조사연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남 정신의 원형을 새롭게 확인하는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말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 1. 성남지역 의병운동의 이해 방향

개항 이후 대한제국 멸망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는 근대화운동·국권 수호운동의 민족운동이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역사적 과제는 안으로는 근대화를 달성해야만 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야만 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국권이 점차 침탈당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국권수호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권 수호운동 가운데 무력적(武力的)인 방법으로 국권을 지키고자 하던 운동이 곧 의병항쟁이다.

의병항쟁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의 봉건지배층의 수탈과 외국 상인의 상권침탈을 저지하려는 민중들의 반제·반봉건 투쟁이 직접적인 연원이 되었다. 초기 의병항쟁에서 유생층들은 의병장으로서 동학농민전쟁의 실패로 결집력이 약화된 농민층을 반외세의 기치하에 의병전쟁을 발발시켰다.

성남지역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행정개편 때마다 여러번 구획이 변

경되었다. 즉, 1895년 전국을 23부로 개편할 때 한성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광주군으로 되었고, 1896년에는 경기도 광주부가 되었다가, 1906년 지방구역 정리 때 광주군이 되었다. 하지만 성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주로 광주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말 성남지역 의병은 편의상 광주군 관내에서 일어난 의병활동 전체를 기술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 글에서는 의병항쟁의 전개과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구분에 따랐다. 즉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전기의병과, 1904년부터 1907년 7월까지의 중기의병, 1907년 8월부터 1909년 10월까지를 후기의병, 1909년 11월부터 1915년까지를 전환기의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sup> 하지만, 성남지역에서는 주로 전기의병과 후기의병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서술내용은 전기와 후기에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다.

성남지역에서는 1896년 남한산성 전투를 비롯하여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치열하게 의병전투가 치러졌던 지역이다. 성남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20년간 줄기차게 의병항쟁이 전개된 곳으로서, 전국 가운데서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중심권역에 속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성남지역은 한강의 남쪽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방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군사요충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한산성 의병은 제천의병, 춘천의병, 강릉의병, 진주의병, 안동의병, 홍성의병 등과 함께 초기 의병항쟁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1) 조동걸, 『한말 의병전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3-16쪽.

성남지역은 남한산성 의병의 중심부대인 김하락(金河洛) 의진의 활동에 대해 그가 기록했던 『진중일기』(陣中日記)와 김태원(金泰元)이 기록한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 전기의병 당시 일본에서 발간되었던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 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남지역 의병은 단발령이 공포된 후 가장 먼저 기의 한 점,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던 유일한 의진이라는 점, 최초로 대규모의 서울진공작전을 계획 실행한 점 등 때문에 이미 여러 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하지만 성남(광주)지역 의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다. 남한산성 전투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단발령 이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광주의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될 뿐 정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 의병이 와해되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김하락 의진에 대해서 잘 알려진 『진중일기』에 의거하였는데, 이천의병이 남한산성에 입성하던 1896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에 해당하는 날짜가 『진중일기』에 없고, 또 남한산성 전투에 대해서도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전투상황은 김태원의 『집의당유고』와 기타 자료에 의해 상세히 보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산성 의병의 목표가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가 되면, 고종의 환궁을 목표로 친러 개화와 정권과 충돌한 첫 번째 사례였다는 건

2)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유한철, 「김하락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해도 있다.<sup>3)</sup>

후기의병의 경우에도 산발적인 자료에서 광주(성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규모의 의병조직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규모가 4백 여명이 넘는다는 것, 해산군인들이 참여하였다는 것, 무장항쟁을 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 확인될 뿐, 항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자료에서 산전되는 후기의병 자료들을 면밀하게 정확한 역사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2. 남한산성에서의 의병항쟁

동학농민전쟁의 실패와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를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중국은 반식민지(半植民地)로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변화시키는 국제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사건을 계기로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무력적 배경을 통하여 갑신정변 이후 침체된 개화파 정부가 집권하게 되었고, 이들이 일본의 무력에 의해 집권하면서 한국민의 반발을 사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일제가 도발한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정간섭을 감행하는 양면 전략으로 한국침략을 강화하게 되었다. 갑오개혁이 재야의 유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 나아가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일

---

3) 이상찬, 「광주 이천 의병 운동의 재검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 2002년 7월.

제침략으로 야기된 이러한 긴박한 시국상황에서 항일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게 된다.

또한 1895년 국모시해사건(國母弑害事件)을 계기로 전국에서는 ‘국모보수’(國母報讐)의 기치하에 의병 봉기의 주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을미사변 직후 서울에서는 창의(倡義) 고시문이 나붙고, 제천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정산(定山)에서는 안창식(安昌植)·이세영(李世永)이, 홍주에서는 김복한(金福漢)·이설(李僎)이, 안동에서는 김흥락(金興洛) 등이 거의(舉義)를 도모하였다. 한편 동학농민군에 참가했던 농민들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10월 충청도 보은에서 문석봉(文錫鳳)을 중심으로 의병항쟁에 돌입하였다.

을미사변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반일의 분위기가 성숙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일군의 정치세력들은 반일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을 추진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에 은신해 있었다. 그런데 1895년 12월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지자 이에 촉발되어 본격적인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즉,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 하기 위해서 침략을 강화하려 하자 극동에 진출해 있던 러시아를 비롯한 독일·프랑스의 삼국개입을 초래하여 일본은 지위가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은 이의 만회를 위하여 을미사변과 단발령 일으키는 등 친일세력의 부식에 온갖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모시해사건과 단발령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의병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 성남지역 의병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남한산성 의병은 경기도 이천에서 결성된 의진에서 시작되었다. 이천의병은 단발령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 1895년 12월 31일 조직되었다. 서울에 있던 김하락, 조



성학(趙性學), 구연영(具然英), 김태원(金泰元), 신용희(申龍熙) 등의 우국지사들이 단발령에 격분, 이천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sup>4)</sup> 특히 김하락은 화포군(火砲軍) 도영장(都領將) 방춘식(方春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방춘식과 김하락은 포군 명부를 가져다 놓고 포군 1백 여명을 선발하였고, 김하락을 위시한 다섯 사람은 분담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때 구연영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근·지평으로, 조성학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광주로, 김태원은 안성으로, 신용희는 음죽으로 각각 떠났다. 김하락은 이현(梨峴)에 남아 충지회를 맡았다.

김하락 등의 의병 모집과정에서 1백 여명의 관포군(官砲軍)이 중요한 역할하였으며, 관포군의 활동으로 주변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와 김하락의진은 단기간에 대규모의 의병부대로 결성될 수 있었다. 구연영은 양근·지평에서 군사 3백 여명, 조성학은 광주산성의 별패진포군(別牌陣砲軍) 3백 여명, 신용희는 음죽·죽산에서 화포군 3백 여명을 각각 모집하였고, 김태원은 안성으로 들어가 이미 창의했던 민승천(閔承天)과 합세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단기간 대규모 군사를 모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인근의 용인·안성·포천·시흥·수원·안산 등에서 자발적으로 의병에 합세하면서, 김하락은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를 이천에 설치하였다.

이천의병에는 성남지역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당시 광주출신 인물로는 안옥희(安玉熙),<sup>5)</sup> 조성학이 광주에서 데려온 3기이대십장

4) 柳漢詰, 「金河洛義陣의 義兵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3쪽.

5)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광평리 출신(金東玉, 「한말 의병운동과 이천」, 『이천의 의병운동과 3·1운동』, 1987, 44쪽).

(三騎二隊十長) 이준성(李俊性), 구연영의 집안은 선조 때부터 광주군 실촌면 삼리에 세거하였다.

이천의병은 창의대장 민승천을 중심으로 도지휘(都指揮) 김하락, 좌군장 김구성(金龜性), 우군장 신용희, 선봉장 김태원, 중군장 구연영 등의 편제를 갖추어 활동에 들어갔다.<sup>6)</sup> 1896년 1월 17일 이천수창의 소의 의진결성이 마무리되자, 1월 18일 복병전술로 백현(魄峴)에서 일본군수비대 1백 여명을 공격하였으며, 패주하는 적을 광주군 노루목[獐項] 장터까지 추격해 무기·군량 등 많은 전리품을 노획한 뒤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2월 12일 이현전투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와해되고 말았다. 이현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천의병의 핵심인물이었던 김하락, 민승천, 신용희, 구연영, 전귀석, 김태원 등의 인물들이 2월 25일 다시 모여 흩어진 포군과 민병을 규합하였다. 이때의 병력규모가 포군이 1,800여명이었고, 장수·종사관을 합해 약 2천 여명이었다고 한다.<sup>7)</sup>

의진을 수습한 후 이천수창의소는 곧바로 활동근거지를 남한산성으로 입성하였다. 이천의진이 입성한 남한산성에 대해 김하락은 “사방 산이 깎아지른 듯이 솟고 성첩이 견고하여 참으로 한 사람이 관물을 지키면 만명이라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성중을 두루 살펴보니 쌓인 곡식이 산더미 같고 식염(食鹽)이 수백석에 달하고, 무기도 구비되어 대완기(大碗器)가 수십자루, 불랑기(佛狼機)가 수십 자루, 천자포(天字砲)·지학포(地學砲)도 수십 자루, 천보총(千步銃)이 수백 자루였고, 나머지 조총도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탄약·철환이

6) 金奎聲 譯, 『金河洛征討日錄』, 啓蒙社, 1968, 19-20쪽.

7) 위의 책, 19-20쪽.

산더미 같았다. 여러 장수들은 군용이 유여한데다 진칠 곳마저 견고하여 몹시 기뻐하였다.”<sup>8)</sup> 다음은 남한산성의병의 편제이다.

대장	朴準英		
여주대장	沈相禧		
軍師兼都指揮	김하락		
都召募	전귀석	선봉장	김태원
중군장	구연영	좌익장	김귀성
후군장	신용희	우익장	경성

이 무렵 광주 일대에서는 이천의병과는 별도로 심진원(沈鎭元 혹은 沈鎭澤)을 중심으로 한 의병이 활동하고 있었다. 광주의병은 광주군수 박기인(朴基仁)도 이 무렵 의병에 의해 처단되었을 만큼 성세를 떨쳤다. 김태원의 『집의당유고』에 따르면,

광주의장(廣州義將) 심진원이 남한산성에서 격문을 보내 가로데 “금(今) 10일 성중에 입거(入據)하였는데 참령 장기렴(張基濂)이 병사 8백 명을 거느리고 수잡(數匝)으로 성을 포위하고 있다. 지형이 협소하고 우리 병사수가 적어 저으기 함락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며 하루에 세 차례나 알리어 왔다. 이에 친히 정병(精兵) 수천을 거느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 크게 싸워 물리치고 성에 들어갔다. 이때는 정월 15일(양력 2월 28일)이었다.

8) 金河洛, 『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1, 591쪽.

심진원의 광주의병은 이천의병에 앞서 2월 23일 남한산성을 장악,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광주의병은 서울에서 출동한 관군의 공세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심진원은 이천의진에 서한을 보내 합세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남한산성의병은 2월 28일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sup>9)</sup> 즉, 남한산성의병은 이천의진이 광주의진과 남한산성에서 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일본의 『동경조일신문』에서도 의병의 남한산성 점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남한산성 안의 적 수는 약 1천 6백 명이다. 그 가운데 1천 여명은 광주, 이천, 그리고 양근(양평-필자)의 포군, 즉 구 지방병이고, 그 나머지 6백 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의병장-필자)는 광주의병장 심영택, 이천의병장 박주영(朴周英, 朴準英-필자), 양근의병장 이석용(李錫容) 등 3명이다.

위의 기사로 미루어 본다면, 남한산성 안의 의병 가운데 근간이 되는 병력은 광주지역의 포군과 농민이며, 이천과 양평에서도 많은 의병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 점령 후 선봉장 김태원은 남문을, 후군장 신용희는 북문을, 우익장 김정성은 서문을, 좌익장 김귀성은 동문을, 그리고 중군장 구연영은 성 중앙부를 각각 파수케 하여 수성(守城)에 만전을 기하였다. 3월 5일 관군 5백 여명이 남한산성에 몰려와 진을 치고 전투가 벌어졌

9) 金泰元, 『集義堂遺稿』(『韓末義兵資料集』,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所收), 108쪽.

는데, 이 전투상황에 대해 『동경조일신문』 기사에는, “친위대 1중대와 대포 2문을 무장한 공병대 30여명은 재작일 그 세(勢)를 합(合)해 성을 공격했으나, 적은 그 지(地)의 이(利)를 점하고 있어 관병을 감하(瞰下)하여 방전(防戰)하였다. 소수의 친위병은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드디어 송파부근 모지(某地)로 후퇴했고 대포 1문을 적에게 빼앗겼다. 차일(此日)의 전(戰)은 전적으로 친위병의 불리로 돌아갔다”<sup>10)</sup>라고 하여 남한산성 점령 후의 제1차 전투는 연합의진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에서는 2월 29일 지방의 폭도는 광주산성으로 친위 2대대 1소대와 강화도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때의 포위상황을 보면 성 안의 의병 2천 명에 대하여 관군은 친위대와 강화병을 합해 3개 중대와 2개 소대로, 지휘소를 남문 밖 매착동(梅着洞-현재 창곡동)에다 설치하고 1개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문 밖 불당곡(佛堂谷)과 향교리(鄕校里)에 각 1개 중대, 서문 밖 석회당(石會堂)과 동문 쪽 엄현리(奄峴里)에 각 1개 소대를 분산 배치하고 군수미 보급로를 차단하며 포위공격의 태세를 취하였다.<sup>11)</sup>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본공사관의 우치다(內田定槌)가 1896년 3월 18일 일본본국에 보낸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지방의 폭도는 현재 광주성(서울에서 50리 거리)에서 농성중이고, 여주·안성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한 형세로 조선정부는 친위대와 강화도의 군사를 보내 정토(征討)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에 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10) 『東京朝日新聞』 1896년 3월 18일자.

11) 『漢城新報』 1896년 3월 19일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20쪽.

집합과 해산이 일정하지 않다고 조선인중에는 종종 소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sup>12)</sup>

관군과 제1차의 전투가 있는 후 소강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정부에서는 3월 4일 친위대 1개 중대를 추가 파견하였다.<sup>13)</sup> 또한 3월 9일 가흥(可興)에 주둔하던 일본군들도 파견되었다.<sup>14)</sup> 그러나 남한산성에 합세해 오는 의병이 날로 증가하여 갔는데, 이에 따라 남한산성의진에서는 서울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sup>15)</sup> 서울진공계획은 3단계로, 제1단계는 먼저 수원근방의 의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는 남한산성의진과 춘천·분원·공주·청주 및 수원의진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 및 일본군을 협공하여 격파하고, 마지막 3단계는 삼남지방의 의병까지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본군을 구축하고 러시아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킨다는 것이다.<sup>16)</sup>

남한산성의 의병들과 성 밖의 관군 간에는 소강상태가 진행되었지만, 작은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하지만 전투 때마다 지리적으로 우세를 점한 의병측에 유리하게 전황이 돌아갔다. 관군은 기습 작전을 펴기도 하고 화공(火攻)을 계획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공성(攻城)작전을 벌였으나, 그때마다 의병측의 반격으로 번번히 격퇴당해 성에 접근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1896년 3월 22일 관군의 공격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I, 2001, 26쪽.

13) 『日本公使館記錄』 9책, 160-161쪽.

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I, 2001, 76-77쪽.

15) 柳漢喆, 앞의 논문, 20-21쪽.

16) 유한철, 앞의 논문, 21쪽.

이 시작되었는데, 일본공사관의 공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지난 22일 오전 친위대는 광주성의 세 방면을 포위 공격하여 성벽을 함락하고 결국 완전히 이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폭도는 남문을 통해 달아나 楊根 및 陽智 방향으로 패주했습니다. 폭도의 사망자는 1백 여명이 고, 巨魁 朴周榮은 그 부하에게 타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근에는 지난 19일 이래 폭도 1천 여명이 취합하고 광주의 패잔병이 이에 합하여 그 수가 대략 2천명을 웃돈다고 합니다.<sup>17)</sup>

위와 같이 남한산성이 점령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진이 와해되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보아 두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의진의 핵심인물 김하락과 김태원이 기록한 내용에는 주장 박준영의 배신으로 와해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곧 관군측에서는 비밀리에 김귀성으로 하여금 박준영이 귀순하기만 하면 그를 광주유수에 임명하고, 김귀성을 수원유수에 임명한다는 감언이설로 매수토록 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군에 매수된 3월 20일 저녁 전군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 연회를 성대히 벌였고, 그의 흥계를 눈치채지 못한 성내의 병사들은 이날 저녁 만취가 되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따라 박준영이 서문과 북문을 열자 문 밖에서 대기중이던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시에 성 안으로 몰려들자, 의병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때 박준

1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I, 2001, 26쪽.

영은 배신행위가 드러나 의병들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다.<sup>18)</sup>

한편, 『한성신보』(漢城新報)에서는 의진의 와해 원인에 대해 위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성이 함락되기 수일 전부터 성 안의 간부들 사이에는 해산론과 반대론이 대립되었는데, 주장 박준영이 해산을 반대하다가 반대파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군심(軍心)이 흩어져 군사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관군이 서문으로 들어가 함락시켰다는 것이다.

이같이 상반된 의견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그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좌익장 김귀성이 관군측의 회유로 귀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박준영이 처단 내지는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최후의 수성전에서 의병측의 저항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 점은 당시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한 전군장 김태원이 남긴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적병은 일제히 산에 올랐고 서로 공격하였는데 어둠이 칠혹과 같았고 동서가 구분되지 않았다. 삼경부터 날이 밝기까지 큰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시체가 싸이고 피가 흘러 병사와 군마(土馬)의 죽은 수가 5백 여명이었고, 적병의 죽은 자가 3백 명이었다. 이에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탈출하여 싸우며 행군하였는데, 처음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따르는 군사가 4백 여명이었다.<sup>20)</sup>

18) 金奎聲 譯, 앞의 책, 24-25쪽 참조; 金泰元, 『集義堂遺稿』, 1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1, 223쪽.

19) 『漢城新報』 1896년 3월 25일자; 『東京朝日新聞』 1896년 4월 5일자.

20) 柳漢詰, 앞의 논문, 24쪽; 金泰元, 『集義堂遺稿』, 16-17쪽.



결국 이날 “의병측에서는 희생된 병사와 군마가 5백 여기에 달하였고, 관군도 3백 여명이나 전사하였”을 정도로 쌍방 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의병은 남한산성을 점거한 지 한 달만에 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고 말았다. 패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본 공사관에서 본국에 보낸 공문에서는 “지방의 폭도도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던 한 무리의 적도가 패산한 후로는 그 세력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혹은 여전히 양근(楊根)지방에 집합했다고도 하고, 혹은 용인(龍仁)지방을 배회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원래 양식 등의 준비가 없는 다수의 폭도가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패전후 큰 손실을 입은 이천의진은 4월 7일경 김하락·구연영·신용희·김태원 등이 다시 모였으나 더 이상의 의병활동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김하락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제의에 따라 연고지인 영남으로 이동, 다시 의병을 모집하여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의진규모는 채 1백 명도 되지 않았다.

1896년 4월 9일 이천을 출발한 김하락의진은 4월 12일 제천에 도착하여 유인석의진으로부터 환대와 격려를 받았다. 남한산성의 잔여의병은 안동, 경주, 영덕 일대에서 김하락이 전사하는 1896년 7월까지 활발한 재기항전을 전개하였다. 남한산성 패전 이후 잔여의병은 그해 5월 광주군수가 ‘비도(匪徒)들을 치고’ 있었다는 기록과,<sup>21)</sup> 5월 9일 정부에서 각지 의병 탄압을 위한 군대를 세 길로 파견할 때에 60여 명의 관군이 광주로 내려갔다는 기록 등을 통해 볼 수 있다.<sup>22)</sup>

전기 의병전쟁은 정부의 선유에 의해 1896년 10월 경에 끝이 났다.

21) 『독립신문』 1896년 5월 7일자.

22)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자.

그렇지만 전기의병이 끝난 후 1898년 11월 23일 『황성신문』 기사에는 “광주·양근·가평 3군의 동비여당(東匪餘黨)과 의요여생(義擾餘生) 40-50명이 부상도회(負商都會)에 참여하려고 상경하였다”는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은 재기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성남지역의 중기·후기 의병항쟁

성남지역에서는 남한산성 전투와 같은 대규모 전투가 있는 후 산발적인 반일항쟁이 진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즉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던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대립 속에서 1904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일의 정서를 강제 체결시켰으며, 5월 말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05년 들어 일본은 봉천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조선을 식민지화를 노골화시켜 11월 이토히로 부미(伊藤博文)를 조선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을사조약은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의 외무성이 행사하고, 내정은 통감이 관할하는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실질적인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망국의식이 팽배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반일투쟁이 일어났다. 즉 상소투쟁과 자결,

---

23) 『황성신문』1898년 11월 23일자, 「잡보」.

도시상인의 철시, 농민의 납세 거부, 학생들의 동맹휴업, 군중집회와 시위 등이 연일 벌어졌다. 이러한 전 민족적 저항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대중적인 반일투쟁인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폭발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재기한 중기의병은 1907년 헤이그밀사의 거 이후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 일제의 일련의 침략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대 심화되어 대일 전면전의 성격을 띤 의병전쟁의 단계로 발전되어 갔다.

한편 동학농민전쟁 이후 피폐된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활빈당(活貧黨)·영학당(英學黨)·서학당(西學黨)·남학당(南學黨) 등의 농민운동이다. 전기의병에 일반 병사부로 참가하였던 농민층 가운데 상당수는 해산 이후 자신의 이념과 자신들의 조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sup>24)</sup>

이러한 농민운동은 반봉건투쟁의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의병으로 재기하기 이전의 과도기 단계의 투쟁이었다. 광주지역에서도 이러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들은 대개 해산의병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황성신문 1900년 1월 23일자에는 “어제밤 광주지역에 도적 15명이 출몰”<sup>25)</sup> 했다는 기사가 보이고, 1901년 1월 21일자에는 “어제 광주 잠실(蠶室) 등지에 도적이 나타나 가산(家産)을 탈취”<sup>26)</sup>해 갔다는 것과, 8월 23일자에는 보부상을 하던 조성준(趙成俊)이 광주군 송파(松坡) 상민(商民)들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잡혔다는 기사가 보인

24) 趙東杰,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37-40쪽.

25) 『황성신문』 1900년 1월 23일자, 「잡보」.

26) 『황성신문』 1901년 1월 21일자, 「잡보」.

다.<sup>27)</sup> 또한 김윤식(金允植)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당도(黨盜)가 횡행하며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백성들이 살기에 힘입지 아니하니 민망하더라”<sup>28)</sup> 라고 표현될 정도로 농민들의 항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기의병에 오면 유생층은 사상적·계급적 한계로 말미암아 투쟁을 방기하고 전투대열에서 탈락하여 가는 반면에, 지휘능력을 갖춘 평민 의장들이 대거 등장하여 농민 중심의 의병전쟁을 전개하게된다. 이때 경기도지방은 여타지역과는 달리 그 파급효과가 훨씬 빠르고 심각하였으나, 다른 지방에 비하여 항쟁이 눈에 띄일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경기 지방에서는 주로 양평·여주 일대에서 이범주(李範疇) 의병, 죽산·안성에서 박석여(朴昔汝) 의병이 활약하였다. 또한 당시 경기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해 오던 농민들이 을사조약 이후 국가위기에 처하여 반제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의병화해 갔다.

성남지역에서 중기와 후기의병 시기에 그 실체나 활동 전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단위 의병은 현재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이 시기에도 역시 의병이 편성되어 활동하거나, 다른 지역의 의병이 광주 일대로 이동해 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 시기 광주 일대에서 전개된 의병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자료상 확인되는 광주지역 최초의 의병은 1905년 6월에 활동한 의병이다. 즉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지만, 광주지역에서 약 2백 명으로 편성된 의병이 부민(富民)의 재물을 군자금으로 확보하고 충기를

27) 『황성신문』 1901년 8월 23일자, 「잡보」.

28) 金允植, 『續陰晴史』 제8권, 1896년 12월조.

수집해 갔다는 기록이 그것이다.<sup>29)</sup> 이어 같은해 5월(음)에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인물이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sup>30)</sup>

중기의병은 1907년 8월부터 전개된 후기의병으로 계승되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즉 중기의병은 1906년 후반에서 1907년 전반에도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이 퇴위당하고 정미조약이 체결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8월에는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의병전쟁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군인들은 해산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격렬한 시가전을 감행하였고, 지방에서도 군인들이 잇달아 봉기하여 의병에 합류하거나 의병을 조직하였다.

해산 군인의 참전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조직화되었을 뿐 아니라, 을사조약 이후 국가 위기의식이 고종의 강제 퇴위로 망국사태로 인식하게 되자, 온 민족이 반일투쟁에 참가하는 의병의 대중화 단계로 돌입하였다. 즉 일제는 미리 예정한 한국군 해산의 기본 방침에 따라 제1차로 서울 시위대의 해산을 꾀하였고, 제2차로 지방 진위대의 해산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군대 해산에 반대하는 군인들이 시가전을 전개하였고, 지방 진위대에서는 해산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합세하여 의병을 봉기하거나 기존에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 원래 진위대는 전국에 8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그 밑에 분견대를 두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에 본부를 두고 예하에 개성·안성·강화·북한산의 4개의 분견대를 두고 있었다.

29) 『皇城新聞』 1905년 6월 6일자.

30) 黃玑,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338쪽.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은 군사지휘관, 군사기술과 장비의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투력이 막강해졌다. 이러한 의병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1907년 12월 말 전국에서 1만 여명이 양주에 집결하여 서울로 진격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꾀하였다. 성남지방은 중앙의 정치적 상황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그에 대한 반응도 민감하고 급속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의병들과 달리 대일항쟁에 있어 격렬성을 띠게되었고, 그 항쟁이 직접 중앙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기 때문에 연합전선으로 발전하였고 좀더 조직적으로 항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도 지역의 항쟁은 적의 대응을 수비위주에서 공격위주로 전환시켜 경기지역의 의병들의 투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후기 의병은 주로 일본인, 밀정·일진회 회원 등 친일분자들에 대한 테러 활동이 많이 전개되었다.

후기의병 시기인 1907년은 광주를 비롯하여 죽산·용인·안성 등지에서 의병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이다. 특히 군대해산 이후 광주지역 의병들은 광주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돌아다니며,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루고 있었다. 1907년 8-10월간은 “완전히 폭도가 유린하는 바가 되었다”고 일제 정보기록에서 실토하였을 정도로 이 일대 거의 전역에서 치열하게 항일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즉, 1907년 8월 27일자 일본군의 보고서에도 “조치원에서 명령 대기중이던 이시가와(石川) 소좌가 지휘하는 부대(보병 1개 중대와 1개 소대)는 26일 오후 4시에 그곳을 출발하여 진천·죽산·이천·광주 부근의 폭도를 소탕하고 용산으로 귀환시킬 예정”<sup>31)</sup> 이라고 하였고, 또 8월

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IV, 2002, 58쪽.

28일 보고에는 “광주 부근의 폭도를 소탕하고 나아가 전신을 수리하는 인부[工夫]를 엄호하기 위해 28일 서울에서 출발하는 보병 1개 소대를 광주·이천 방향으로 파견했”<sup>32)</sup>다고 하였다. 또한 9월 19일자에는 “광주 수비대의 특무조장이 졸병 3명과 함께 적의 정황을 정찰하던 도중에 광주 북쪽 약 10리 지점에서 폭도의 사격을 받아 졸병 1명이 부상당했”<sup>33)</sup>다고 하고, 11월 1일자에는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파견되어 있는 1개 소대는 26일 광주 동쪽 약 30리에 있는 관음방(觀音坊) 부근에서 2백 여명의 적을 만나 이들을 궤란시켰”<sup>34)</sup>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광주지역 의병들이 활발히 활동하자, 1907년 9월 6일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가 외무대신 하야시(林董)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 50리에 있는 광주(廣州)에서 여주(麗州)·죽산(竹山)·안성(安城)·양지(陽智) 지방에 걸친 일대에는 이들 무리가 출몰하여 본국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대는 주력을 충주에 두고 이래로 이들에 대한 토벌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까지 평온을 되찾지 못함.<sup>35)</sup>

이처럼 광주를 중심으로 여주·죽산·안성·양지·이천의 의병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월 23일자 보고서에는,

3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Ⅳ, 2002, 60쪽.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Ⅳ, 2002, 91쪽.

3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Ⅳ, 2002, 118쪽.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Ⅳ, 2002, 79-80쪽.

광주 수비대였던 보병 제47연대의 1개 소대(소대장 이하 18명)는 우천(牛川은 楊根의 서쪽 약 40리에 있음) 및 분원동(分院洞, 우천 남쪽 약 1천 5백미터) 부근에 다수의 폭도가 집합해 있음을 탐지하고, 17일 오전 1시에 광주를 출발해서 이들 적을 향해 전진함. 동일 오전 6시에 분원동 부근에 도달하여 동지(同地) 남쪽 고지 부근에 있는 다수의 적과 약 1시간 반 동안에 걸친 교전 끝에 다대한 손해를 입히고, 이들을 양근 방향으로 격퇴했음. 적은 교전하는 동안 맹렬히 저항하였으며 또 포탄까지도 발사했다고 함(구식 山砲 1문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의 군수가 보관하던 무기 가운데서 빼앗은 것이 아닐까 추측됨). 적은 20구의 시체를 버리고 완전히 궤주했음. 노획품은 총 3정, 탄약 약간 그리고 조개나 팔이 1개임. 적의 병력에 대해서는 미상이지만, 분원동 읍민의 말에 따르면 약 4백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sup>36)</sup>

이와 같이 광주지역의 4백 여명에 달하는 의병들은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다. 특히 해산군인들이 의병에 다수 참가하면서 전투의병의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즉 1907년 12월 28일자 일본군의 보고서에는 “(1907년 12월 23일-필자) 이천(利川) 수비대에서 파견되어 있는 토벌대는 23일 광주 서남쪽 약 30리 지점에서 구(舊) 관병(官兵)이 혼합된 약 20명의 적을 만나 이들을 북쪽으로 격퇴시켰음. 적의 사망자는 7명이며 부상자가 수명 있음”<sup>37)</sup> 이라고 하여 광주지역의 의병과 해산군인들이 연합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며, 1908년 1월 8일에도 “광주 동남쪽의 경안역(慶安驛) 부근에서 이전의 한병(韓兵)으로

3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IV, 2002, 94쪽.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IV, 2002, 151쪽.



구성된 약 20명의 적을 공격하여 그 가운데 10명을 죽이고 총기와 그 밖의 물품을 노획함<sup>38)</sup>이라고 하여 해산군인이 중심이 된 의병이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은 일제 군경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908년 중반기 까지 그 성세를 떨치고 있었을 만큼 경기도 가운데서도 의병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곳이었다.<sup>39)</sup> 당시의 신문 기사에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의병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자 기사에는,

광주군 경안면 자위단장 남대희(南大熙) 씨가 일전에 의도(義徒) 4명을 잡아 포박하여 수비대에 보내어 4명 의도는 포살하고 남씨는 공이 있다 하여 사천냥을 주었는데, 삼작일(三昨日)에 의도 4백 여명이 남대희 씨 집에 돌입하여 남씨를 결박하고 무수 난타하였는데 사경에 이르렀다.<sup>40)</sup>

이와 같이 광주지역에는 4백여명의 대규모 의병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일본군과 교전하는 기사는 자주 보인다. 또한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4일자에는 “광주군 동남 방향 무갑산(武甲山)에서 의병 20여 명이 광주군에 주재하는 일본 수비대와 교전”<sup>41)</sup> 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고, 11월 4일자에는 “광주군 지방에는 의병 약 20명이 출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IV, 2002, 156쪽.

39)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暴徒史編輯資料』(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3, 1971), 513-514쪽.

40)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자, 「잡보」.

41)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4일자, 「잡보」.

몰한다”<sup>42)</sup>는 기사도 보인다. 또한 11월 28일자에는 “광주군 동남 30리 부근에서 의병 십여 명이 분견소 일본 헌병 및 보조원 4명과 충돌”<sup>43)</sup>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일본군의 보고서에도 1908년 “이천수비대에서의 특무조장(特務曹長)이 인솔한 토벌대는 6월 26일과 27일에 걸쳐 광주 남방에서 적(賊) 3명을 사살하고 총기 1정을 노획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성(京城)에서 파견된 경부(警部) 이하 수색대는 7월 5일, 6일 양일에 걸쳐 광주 군내에서 적(賊) 2명을 붙잡았다”, 또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의 수비병 및 순사는 8월 3일 군내에서 적(賊) 약 10명을 토벌하여 그 중 2명을 사살하고 총 5정을 노획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에서 의병들이 활동하자 일본군들은 일반 민간인을 의병으로 오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즉 “광주군 연주면 청담리 민 26명이 광주군 훈령(訓令)으로 진황지(陳荒地)에 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길에 의병(義兵)으로 오인(誤認)되어 이들 중 이수만(李壽萬)이 일본 정탐병(偵探兵)의 총에 왼쪽 어깨를 크게 다쳤다”<sup>44)</sup> 라는 것으로 보아, 광주지역에서 의병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를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들이 정탐병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광주를 중심으로 양주, 포천, 이천, 양근 등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으로는 김광희(金光喜)와 김광준(金光浚; 형제로 추정됨)를 비롯해 이익삼(李益三, 李春三?), 서가(徐可), 윤전(尹堧), 임문순(林文淳), 고재석(高在奭), 이근풍(李根豐), 임옥여(任玉汝) 등이 손꼽힌다.<sup>45)</sup> 이

42)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4일자, 「잡보」.

43)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8일자, 「잡보」.

44)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17일자, 「잡보」.

4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32쪽.

들 가운데 김광희, 김광준 두 의병장은 휘하에 8백 여명을 거느렸을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이와 같은 의병장들의 주도하에 광주지역 의병들은 일제 군경을 상대로 부단한 전투를 수행하면서 전국 규모로 전개되던 의병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현재 자료상 확인되는 교전사실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1907년에는 9월에 양지출신의 전 주사 임옥여 의병이 광주 실촌면(實村面)에 출현하여 원주 의병대장의 이름을 사용하여 포군 70여명을 소모한 뒤 용인, 안성 방면으로 이동하며 일본군과 교전하였다.<sup>47)</sup> 이어 10월에는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독점(獨店)에서 일단의 의병이 일제 군경을 상대로 교전을 벌였다.<sup>48)</sup> 또 12월 23일에는 약 20명의 의병이 광주군 대왕면(大旺面) 둔토리(屯土里)에서 일제 군경 연합의 ‘토벌대’와 접전을 벌였다.<sup>49)</sup>

1908년에 들어와서는 1월 4일, 18명의 의병이 경안면(慶安面) 중대동(中垵洞)에서 출동한 일제 경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sup>50)</sup> 6월 4일, 일단의 의병이 광주 관동(官洞)에 출현해 일군 4명을 처단하였으며, 같은 달 12일에는 다시 광주 소운동(小雲洞)에서 격전이 벌어졌다.<sup>51)</sup> 7월 6일에는 14명의 의병이 광주군 퇴촌면(退村面) 우산동(牛山洞)에서 광주 주둔 일제 군경과 교전을 벌였다.<sup>52)</sup> 8월 31일에는 의

46) 뒤마보, 「義兵傳」(尹炳爽, 「韓國近代史料論」, 一潮閣, 1979 所收), 52쪽.

47)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暴徒史編輯資料」, 504쪽.

48) 위의 책, 520쪽.

49) 위의 책, 522쪽.

50) 위와 같음.

51) 黃玪, 「梅泉野錄」, 460-461쪽.

52)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앞의 책, 527쪽.

병 20명이 광주군 오포면(五浦面) 능곡의 ‘무명산’에서 출동한 일제 군경을 상대로 접전하였다.<sup>53)</sup> 9월 28일에는 의병들이 광주 경안역(慶安驛)을 공격하였고, 11월 7일 다시 광주에서 교전이 있었다.<sup>54)</sup>

그리고 1909년에 들어와서는 3월(음)에 김광희, 김광준 의병장이 부하 8백 여명을 이끌고 광주로 들어왔으며,<sup>55)</sup> 9월(음)에는 다시 이춘삼 의병도 일시 광주에 들어 왔다.<sup>56)</sup> 마지막으로 국망 직전인 1910년 7월 22일 광주에서 교전이 벌어졌다.<sup>57)</sup> 현재 자료상으로 볼 때 이 전투가 광주지역에서 벌어진 최후의 전투로 확인되고 있다.

---

53) 위와 같음.

54) 黃玟, 앞의 책, 474쪽 및 478쪽.

55) 위의 책, 491쪽.

56) 위의 책, 516쪽.

57) 위의 책, 537쪽.

## 일제하 성남지역 항일 의병정신의 계승

직접무장투쟁의 방략론을 고수한 성남지역의 항일 의병정신은 3.1운동과 광주신간회, 광주공산당협의회 사건, 의열 투쟁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계승 발전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국권 회복과 주체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 정신적 맥락의 근원은 실학의 발상지인 광주지역에서 태동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항일 의병투쟁은 해방투쟁에서 요구되는 직접무장투쟁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한편 3.1운동의 거족적 투쟁의 실마리로 작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지역은 실학의 핵심적인 실사구시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투쟁에서 요구되는 행동하는 실천적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성남지역은 일제 강점기에 광주지역에 포함된 관계로 인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광주지역까지 확대하여 의미 부여했음을 밝혀둔다.

## 1. 민족해방운동의 정신사적 조류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운동은 대내적으로 반봉건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외압으로부터 자주 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근대 민족운동은 두 개의 축을 기저로 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축은 개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선각적인 지식인, 신진관료, 상공업 자본가들이 민족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제국주의 침탈에 대응하여 성남인들은 일본과 결탁한 봉건적 지주, 예속 자본가에 대항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지식층들은 구사상과 구관습에 대한 개혁론을 제기하여 시민 정신의 함양에 치중하였다. 즉 이런 개혁론은 산업과 교육의 진흥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적·사회적 여건의 조성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성남지역에서 실력양성운동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는 단초가 해공 신익희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축은 반봉건과 반제국주의 기치 하에 민중들이 혁명 이념을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진행되었다. 민족운동은 동학농민전쟁, 활빈당 등의 농민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나아가 위정척사 사상을 구현한 의병운동도 맥락을 같이 한다. 직접 착취의 대상인 농민들은 의병대열로 결집하여 민족의 역량을 표출하였다. 실천적 독립운동가인 한순회나 이명하 등의 역정에서 나타난 정신사적 독립 의지가 성남지역의 전반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지역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위한 민족해방운동은 성장과 분화 과정을 반복하며 일면으로는 분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형태로 일관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지식인 중심의 간접적인 투쟁 형태인 계몽운동과 직접 무장투쟁을 표방한 의병전쟁으로 전개되었다. 계몽운동은 세계 시장으로 편입을 계기로 진화론적 제국주의 논리에 비판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한계성이었다. 반면에 직접 무장투쟁론은 근왕적인 유교주의를 극복하는 일차적 과제와 의병 구성원들이 요구한 계급모순의 해결 방안을 실현해야만 한다는 이중적 과제로 인해 민족 역량을 최대화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었다.

일제가 강점한 후 직접무장투쟁의 방략론은 강력한 탄압책으로 인해 일정 부분 잠재된 형태로 나타난다. 계몽운동의 형태가 우위를 점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망하는 것이지만 국권 상실의 충격은 일제 무단 통치에 굴하지 않고 지속된 것이 특징이다. 성남지역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 방략을 전환함에 따라 실력양성운동과 비밀결사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 유학생층은 1910년대 후반 귀국하여 국내에 새로운 지식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위력에 압도당하고 서구의 부르주아적 문화에 세례를 받은 후 국권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보여주었다. 1917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한 신익희 등이 실력양성을 통한 간접투쟁의 방략을 고수한 부류라 할 수 있다.

1915년에는 신익희·이광수(李光洙)·장덕수(張德秀) 등이 조선학회를 설립하는 한편 신익희는 유학생학우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유학생학우회는 웅변회, 졸업생 축하회, 신도래학생(新渡來學生) 환영회, 운동회 등의 행사를 통해 결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을 발간하는 활동을 하였다. 타협적인 한계성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익희는 3.1운동을 주도한 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하였다. 성남지역에서 민족운동가인 신익희의 역정을 살펴보는 것은 성남지역에서 의병 정신을 계승한 일단을 가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익희는 1892년 6월 9일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하여 1956년 5월 5일 익산의 호남병원에서 사망하였다. 호는 해공이며 다른 이름은 왕해공(王海公)이나 왕방우(王邦牛)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신익희는 1919년 김시학(金時學)·윤치호(尹致昊)·이상재(李商在)·이승훈(李昇薰)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민중 봉기의 방안을 협의한 후 대내외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상해방면의 독립운동 지사들과 연락을 위해 상해로 건너갔다. 상해는 지리적으로 동서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아온 동제사(同濟社)의 조직 및 신시대, 새로운 정세에 발 맞추어 활동하는 신한청년당원들의 활동이 국내외 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조완구(趙琬九)·조성환(曹成煥)·신석우(申錫雨)·조동우(趙東祐)·신규식(申圭植)·선우혁(鮮于赫)·한진교(韓鎭敎) 등과 함께 상해 불란서조계 보창로(寶昌路)의 허름한 집을 임시사무소로 정하고 모여서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비밀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4월 10일에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들을 의원(議員)으로 하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국호, 관제(官制), 정부관원 및 임시헌장 등을 의결 선포함으로써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을 맞게 된 것이다. 그는 임시의정원의 의원이 되어 4월 25일 임시의정원법을 낭독하여 가결, 채택케 하였으며, 임시정부의 법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임시의정원 제6차 회의인 1919년 9월 6일 오후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통과가 있는 다음, 다시 정부 개조안 토의가 있었다. 법무차장인 신익희는 현정부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며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준례만 따를 것이 아니라 발포 예정인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함이 부득이한 일이라고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의정원 의원들이 투표케 되었고 이승만(李承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1919년 8월 신익희는 다시 법무총장에 임명되었다가, 1920년 9월에는 외무총장이 되었다.

1922년 초에 개최된 태평양회의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는데 그 까닭은 태평양회의에 대한 외교의 실패로 인하여 임시정부의 동태가 파탄적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운동이 고조되었으며, 같은 해 2월 8일부터 개막된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3월 11일에 그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은 국민대표회의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국수습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부결되었고 국무원은 총사퇴하여 정국은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다. 따라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의정원이나 국무원에서는 대통령에게 전보를 쳐서 속히 상해로 건너와 사태를 수습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통령은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정국은 더욱 혼미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임시정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법정연구회(法政研究會),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 등이 조직되어 사태수습을 도모하였는데 신익희는 시사책진회의 핵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후 각처에서는 다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출현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지사들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승적(大乘的) 견지에서 통일된 단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임시정부 기치 하에 단결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타개책으로 시도된 것이 유일독립당(唯一獨立黨)의 조직이었다.

1932년 1월 일본이 상해사변을 도발하여 중국 본토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이 급변하는 객관적 정세에 비추어 독립운동 세력의 총집결을 절감하고 또다시 통합운동을 모색하였다. 그는 대한독립단의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이들 대표는 처음에는 선전 공작에 주력하다가 마침내는 단일당의 창립에 합의하여 1935년 7월 5일에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족혁명당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다시 분열되어 1937년에 그는 김인철(金仁喆) 등과 함께 조선민족투쟁동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조선민족투쟁동맹은 좌익진영인 조선민족 혁명단, 조선혁명자연맹과 합하여 조선민족전선(朝鮮民族戰線)을 결성하였으며 우익진영에서는 1937년 7월에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陳線)을 결성하였다.

1940년 5월에 광복진선에서는 한국독립당을 재건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 광복군을 창건하였으며, 민족전선측은 동시에 따로 조선민족 의용대를 조직하였다. 독립운동 단체는 양대 진영으로 완전히 분립되었으나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양분된 광복운동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절박한 현실은 사상적 대립에 앞서 민족의 총역량을 집결시키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민족 의용대는 광복군의 지대로 편입하게 되었고 민족전선의 간부들은 임시정부의 의정원에 들어와 독립이 될 때까지 항일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1942년 6월에 임시정부에서는 외교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23일에 외교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여 외교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익희는 장건상(張建相)·이현수(李顯洙)·이연호(李然浩)와 함께 연구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듬해 2월에는 박찬익(朴贊翊)·최동오(崔東旻)·김성숙(金星淑)·유림(柳林)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하여 그 진용을 보강하니 여기서 중대시국에 임시정부의 외교활동도 비로소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때 그는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1943년 4월부터는 새로이 대한민국 잠행관제(暫行官制)가 실시됨과 함께 정부 행정부의 한 부처로 선전부가 새로 설치를 보게 되니 여기서 선전 업무는 좀더 강력히 집행할 수 있었다. 초대 선전부장에 김규식(金奎植)이 선임되었으며, 신익희는 조소앙(趙素昂)·엄항섭(嚴恒燮)·유림(柳林) 등과 함께 선전계획 수립, 선전진행 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선전위원회의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즉 그는 임시정부의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내무차관, 내무총장, 국무원 비서장, 법무총장, 내무·외무·문교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끈질기게 항일 독립투쟁을 계속하였다. 광복 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민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국회의장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신익희 두 자녀인 신하균과 신정완도 아버지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아 독립 운동에 헌신하였다. 신하균은 1923년에 모친과 함께 상해로 부친 신익희를 찾아가 공부를 하면서 독립운동 대열에 참가하게 되었다. 1941년 1월 15일부터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중경(重慶)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에 입대하여 광복군 정위(正尉)로 임명을 받아 참모처에

근무하면서 번역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7년에 건국포장을 받았다.

신정완은 1919년 3·1독립운동 후 부친인 해공 신익희를 따라서 중국 각지를 전전하였다. 19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39년부터 1941년에는 임시정부에 의하여 산둥성(山東城) 제2전구 사령부에 공작원으로 파견되어 지하공작 첩보활동을 하였다. 1943년에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 2. 성남지역 의병정신의 배경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시대까지 성남지역을 포괄한 광주지역은 실학의 진원지로 근기학파(近畿學派)의 개조인 성호 이익(李翼)을 위시하여 안정복(安鼎福)·정약용(丁若鏞) 등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곳이다. 광주 지역에는 성호 계열의 남인학자들이 많이 살았고 서학과 깊은 관련을 갖는 주위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런 관계로 남인계열 학자들이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서양의 합리주의와 평등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포교 활동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남지역은 정약용의 근거지인 마재(馬峴:지금의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나 안정복이 향약을 실시한 경안(慶安)과 매우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국권회복운동은 실사구시의 정신과 주체성을

유지하려는 특이성이 근대화운동의 과정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주체적인 민족 정신은 직접무장투쟁의 근간이 되었다.

일제에 대응한 성남지역의 민중의 생존권 투쟁은 항일의식을 배양하고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등 민족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재편과정에서 보여준 토지에 대한 약탈은 한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성남지역의 농민과 소상인층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각종 잡세와 증세에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일제 침탈에 대한 투쟁은 기존의 주체적인 행동 양식을 폭력적으로 재편하려는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민족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갔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상품화폐경제로 편입되면서 한층 강화되는 원시적 약탈경제와 국권 침탈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성남지역에서 활발하게 발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계기가 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의 성남지역은 1차 의병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각되었고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줄기찬 투쟁이 이어졌다.

### 3. 일제 강점 후 성남지역의 의병 활동

1910년대를 전후하여 성남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병 활동은 일정 부분 잠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병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는 현상황에서 발굴을 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1910년 2월에 의병장 강기동을 체포하기 위해 변장 순사대를 조직하여 무기한으로 광주, 포천, 양주 등지에 파견했다는 사실이다. 변장 순사대

를 조직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했다는 사실은 광주지역에서 의병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광주지역에서 의병 활동은 강기동의 의병진과 변장 순사대의 전투가 펼쳐지면서 지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강기동의 의진은 주로 양주(楊州)·포천(抱川)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주변 일대 특히 경기도의 양주·포천을 위시하여 삭령(朔寧)·마전(麻田)·황해도(黃海道)의 토산(兔山)·금천(金川)·재령(載寧) 등지에서는 연기우(延基羽)·전성서(田聖瑞)·이한경(李漢京) 등이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강기동은 연기우의 의진과 서로 비밀 연락 아래 밀착된 전략을 전개하였다.

1910년 3월 6일 강기동은 이용규 등과 더불어 영평(永平)으로 들어가 활약하니 일인들은 현상금을 천금으로 올렸다. 4월 29일 강기동은 전성서와 함께 양주(楊州)에서 적군과 교전하였으며, 5월 16일에는 양주 노원(楊州 盧原)에서 교전하였다. 5월 27일 서울로 잠입하려다가 체포되었으나 순사를 넘어뜨리고 피신할 수 있었다. 강기동은 강두필(姜斗弼)과 함께 병력 1백 여명의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강원도 일대를 넘나들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 강점 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에 걸쳐 임시 파견대 1개 대대와 헌병·경찰대의 연합 병력으로 경상도 일월산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安東)·예천(醴泉)·영춘(永春)·봉화(奉化) 일대에 대한 포위 작전을 전개하여 의병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1910년 9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에 이르는 40일간에 걸쳐 황해도내 1개 여단(旅團) 병력을 집중하여 대살륙 작전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신민회 소속 애국 계몽운동가들의

거점을 소탕하였다. 일이 이렇게 급진전되어 가자 상당수의 애국지사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만주·북간도로 이동하였다. 이즈음 강기동은 계속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다가 그 후 북간도로 이동해 가던 중 1911년 2월 원산에서 체포·압송되어 서울 용산에서 총살당하였다.

다음으로 성남지역과 연관된 의병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병장 최운서에 관한 것이다. 즉 성남지역과 연관된 의병전쟁의 직접적인 자료는 의병장 최운서가 이 일대에서 활약했다는 기사이다. 1910년 2월 22일에 의병장 최운서가 광주군 포이리에서 경성의 필동 헌병분견대에 의해 피체되었다는 기사이다.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최운서가 활약한 전투 상황은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성남지역의 의병 활동은 타지역과 연관된 의병진의 위수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일제 강점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4. 유인석 의병부대의 소모장 이명하

성남지역에서 실학정신을 계승하고 직접무장투쟁인 의병전쟁을 실천한 인물은 이명하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의병운동과 독립군에서 활약한 이명하(李命夏)라 할 수 있다. 이명하는 1878년 광주 대왕면에서 출생하였다. 1902년 지방 관리직에 나아가 제천군 주사에 종사하다가 의병에 참여하였다. 1907년에는 유인석의병장 수하의 소모장으로 활동하던 중 단양·영춘군수를 참살하

였다. 이명하가 의병장 유인석의 소모장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유인석의 의병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이것과 연관시켜 유인석의 의병 정신에 대한 일단은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의암 유인석은 1842년 1월 27일 강원도 춘천 남면 가정(柯亭)에서 태어났는데 가정리는 고향 유씨 일족의 집성촌이었다. 유인석은 양평의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에게 글을 배웠는데 1868년 화서가 별세한 뒤 김평묵(金平默)과 유중교(柳重敎)를 스승으로 모시며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화서의 문하에서 의병장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최익현(崔益鉉)·유중교·김평묵·유인석 등이 그 정신을 이어받은 당대의 석학들이었다.

“국론이 친교와 전쟁 양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양적(洋賊)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의 설이요… 팔도 내에서 각각 인망있는 사람을 하나씩 뽑아서 소사(召使)라 칭하고 그들에게 위권(威權)과 존총(尊寵)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충성스럽고 기절(氣節)있는 사람을 수습하여 의려(義旅 의병)를 만들게 한 다음 그 의려를 관군과 함께 서울로 응원케 하여 적이 오면 절충어모(折衝禦侮)하여 왕실을 보호하고 적이 물러가면 이륜(彝倫)을 수명하여 사교(邪敎)를 종식케 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항로가 올린 이 상소문에서 일찍이 외적에 대한 의병의 조직이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암은 병인양요 당시 25세의 청년으로 스승을 따라 서울에 머물고 있었으니 의병론 상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제천(堤川)에서 강화하고 있던 의암이 전기 의병운동의 상징적 존재로서 전국 의병진의 중심적 세력이 되었던 것은 필연적인 사실로 볼 수 있다.

1900년 유인석은 황해도 평산(平山)과 평안북도 용천(龍川)·태천(泰川)·개천(价川) 등지에서 강화하였는데 평산은 종숙인 유종교가 강화하던 곳이고, 태천은 동문 박문일(朴文一)이 강화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리잡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의 문하에 다시 수많은 인재가 운집하여 그들이 모두 후일 을사의병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출국할 때 그를 수행하여 해외 독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중 전덕원(全德元)·백삼규(白三圭)·이진용(李鎭龍)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향약(鄕約)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일진회(一進會)에 대항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충청도·황해도·평안도 등지를 다니며 향약의 조직과 시행을 권장하였다.

1905년 10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일제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자 의암은 60여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국 유림에 통문을 돌려 비록 병토(兵討)는 못할지라도 언토(言討)·의토(義討)라도 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백인해(白仁海)·전용제(全庸濟)를 청에 파견하여 원세개(袁世凱)에게 청병하였다. 문인 박세화(朴世和)·원용팔(元容八)·정운경(鄭雲慶)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의암은 새로이 결심을 하고 요동으로 거수지행(去守之行)하기로 하였다. 유인석은 죽음이나 개별적인 항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어디까지나 살아서 국권 회복을 위한 조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해외기지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무력항쟁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1907년 8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고 군대 해산마저 당하자 의병운동은 전면적 항쟁으로 번지고 의병에 참가하는 신분 계층도 다양화되는 등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이를 저지하려는 일제의 노력도 강화되었다. 유인석은 전국적인 조직적 성토회로 적을 제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상경하였다. 의병운동은 국외로부터의 원조가 없이는 중국에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국외에 항구적인 항쟁 기지를 마련하여 그 곳으로부터 무기가 공급되고 본토 회복 작전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산으로 출발하였다. 이미 그의 고향 집과 가족은 일군에 의해 불태워지고 참살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유인석의 의병 항쟁을 위한 전략은 이명하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명하가 의병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후 해외로 망명하는 과정이 이것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명하는 의병전쟁에 참여한 후 1919년에 상경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10월 만주로 건너갔다. 1920년 1월 이명하는 대한군정서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립군 제 3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0년 2월 중국 삼도구(三道溝)에서 하야(河野) 순사부장(巡査部長) 등을 사살하였다. 음력 12월 25일 삼도구 중국인 집에 은거하던 이명하·백학원(白學元)·안중석(安重錫)·김근배(金根培)·박초식(朴楚植) 등 7명은 평북 제3부 일본경찰대에 포위 습격당해 교전하던 중 전사하였다.

이명하의 역경을 살펴보면 지방관료로 국가가 위난에 당면하자 결연하게 일어나 직접 투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직접 무장투쟁론자들이 독립군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한 일면을 보여 준다. 생애의 공로가 인정되어 1963년에 독립장에 서훈되었다.

## 5. 의병정신을 계승한 성남지역의 3.1운동

성남지역의 경우 의병정신이 잠재되었다가 폭발적인 위력을 과시한 사건이 1919년 3.1운동의 전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은 성남지역에서 무단통치에 반대한 정치투쟁이 결집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민중 스스로의 생존권 투쟁이라 할 수 있으며 의병정신이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무단농정 철폐와 토지 분배, 가혹한 세금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민중의 의지가 일시에 분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내재적인 요인은 의병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족의 선각적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잠재력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3.1운동은 처음에 천도교나 기독교 조직을 통해 일어났으나 점차 고종 국장을 참례한 일단의 농촌 지식인군이 귀향하면서 운동이 본격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지방의 운동소식과 선언서나 선전문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성남지역의 1910년대 후반기 민족운동은 일제 무단통치에 정면으로 반대한 투쟁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현재의 성남지역인 중부(中部)·돌마(突馬)·낙생(樂生)·대왕면(大旺面)을 중심으로 펼쳐진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부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남한산성을 중심축으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부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성남출장소 관내 단대리·탄리·수진리 등의 동리 주민들이 주도하였다. 남한산성 남문에 집결한 만세 시위대는 산성 안으로 진입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순 시위운동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시위대가 면사무소에 집결하면서 과격 양상으로 나타났다. 중부면의 독립운동을 위한

시위운동은 햇불을 신호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여 조직성과 중부면민의 단결된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돌마면의 시위운동은 농촌의 지식인층 일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런 관계로 참가자가 증폭하였고 낙생면과 연합시위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돌마면 율리의 한순회(韓順會), 한백봉(韓百鳳)은 1919년 고종 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면내의 유지들과 접촉하면서 시위운동을 모의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南台熙)와도 연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한백봉(韓百鳳 : 1881. 8. 28~1950. 10. 30)은 광주군 돌마면 율리(突馬面 栗里)에 거주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27일 새벽에 한백봉 등은 율리 동민 50여 명을 인솔하고 뒷산에 올라가 봉화로 시위를 예고하는 등의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3월 28~29일의 양일에 걸쳐 돌마면의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와 햇불을 들고 만세시위 행진을 계속하였다. 거사 당일 10시경 분당리 장터에서 군중이 운집하자 한백봉 등은 만세시위를 주창하여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면내를 순회하는 동안 시위 군중이 늘어났고 오후에 낙생면소재지 판교리에서 남태희가 주도한 시위 군중과 합세하였을 때 시위 군중은 1,000여 명에 달하였다. 밤에는 햇불, 낮에는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체포된 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돌마·낙생면민의 연합시위는 규모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이었다. 시위운동의 주도자들은 28일에도 봉화를 올리고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9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제 헌병이 시위 군중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도층 일부를 체포하자 일정 부분 시위는 약화되었다.

대왕면의 만세 시위운동은 중대면 송파리에서 일어난 시위운동이 이 지역에 파급되면서 시발되었다.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가 본적인 이시종(李時鍾)은 농사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참가한 후 대왕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조선독립신문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수서리에 돌아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이규문(李揆文) 등 100여 명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시위대는 만세를 고창하면서 면사무소에 집결하였고 일부는 면사무소에 진입한 후 조선독립신문을 꺼내 독립의 당위성을 낭독하였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이튿날 헌병주재소원에 피체되었다. 일제는 이들에게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보안법을 적용했다. 5월 15일 재판 결과 이시종은 징역 1년, 이재순은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대왕면 시위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반대한 운동이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왕면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부역 징발과 토지 수탈에 반대하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독립 투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남지역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햇불 시위운동은 4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지역의 시위 형태는 대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평화적 시위에서부터 밤에 산에서 햇불과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는 햇

불, 몽둥이를 들고 관공서 등을 공격하는 무력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 성남지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의지력을 보여 준 운동이었다. 결국 성남지역의 3.1운동은 의병정신이 일정 부분 잠재적으로 계승되다가 민족 역량이 결집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펼쳐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6. 1920년대 성남지역의 의병정신 계승 양상

일제는 3.1운동의 거족적 항쟁에 놀라 강압적인 무단통치 방식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배경 하에 일제가 표방한 정책의 일단이 문화정치였다. 그러나 형식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수반되었지만 본질적인 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즉 한민족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민족 투쟁은 민족 역량을 결집하려는 해외에서의 직접 무장투쟁, 비밀결사운동, 농민·노동자운동, 청년·학생운동, 조선공산당운동, 신간회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양상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와 조선공산당 결성, 무정부주의 운동, 대중 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진전된 것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민족해방운동은 표면적으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방운동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시켜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민족주의 진영의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무산자 계급과 동맹 의식으로 무장하여 민족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한 반면

에 사회주의 진영은 반제·반봉건의 혁명의식을 약화시키는 투항주의라고 비난한 측면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7. 성남지역 신간회운동의 전개 과정

국내 독립양상을 살펴보면 1920년대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즉각독립론 유보하고 실력양성운동이나 자치운동론으로 독립운동의 방략을 전환하였다.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일제와의 타협을 일체 거부하고 즉각적인 독립론을 주장하여 대립된 양상이 표출되었다. 따라서 민족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민족운동의 당면 과제로 부상하였다. 정우회 선언으로 인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동조하게 되었고 일시적인 공동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런 추세가 조직화된 것이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으로써 신간회 창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간회 광주시회의 조직과 활동상은 민족협동전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성남지역의 민족운동에 관한 일단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간회는 본부보다는 지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신간회는 전국 각처에 약 140개소의 지회를 두고 39,00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신간회는 주로 농민과 노동자, 학생운동을 지도하였다. 신간회 지회의 활동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간회 광주시회는 반제국주의의 중요한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7년 8월 8일에 성남

지회와 24일에 광주지회가 설립되었다. 경성지회가 6월 10일에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에 설치된 것이어서 신간회에 대한 지지의 열기가 고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1931년 광주 지역에서 광흥지회가 설립되었다.

광주지역에서는 사회운동단체들이 지역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광주중앙청년회, 송파광주청년회, 광명청년회, 진흥청년회, 노동공제회, 조선일보·중외일보·조선농민사 지국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속성을 살펴보면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사회단체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1운동에서 보여준 저력이 계몽운동의 형태로 잔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주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년운동의 활동 내역은 야학회·강연회·토론회·체육회·연극활동 등 개량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독립운동의 기본 토양으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수 있다.

민족협동전선의 흐름에 따라 돌마면의 독립지사 한순회 등이 이러한 단체를 토대로 하여 신간회 지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런 관계로 광주지회장에 한순회가 선임되었고 간사로 한백봉(韓百鳳), 한백호(韓百鎬), 이대헌(李大憲), 유인목(俞仁穆), 박기환(朴基煥), 한용회(韓龍會) 등이 피임되었다. 광주지회의 구성원은 한순회 등 돌마지역 인사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신간회가 활성화되면서 독립운동의 일단을 담당할 수 있었던 내적 배경은 지역 지도자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8. 의병정신을 계승한 연암 한순회의 활동

3.1운동을 주도한 한순회(1885.12.14 ~ 1961. 1.27)는 천도교에 귀의한 후 천도교 광주교구장을 거쳐 중앙총부 중앙위원과 봉도까지 역임하였다. 천도교에 관여하면서 한순회는 포교를 위한 활동을 하는 한편 광주교구장으로서는 이천·여주·원주·음성 등지에 연락책임을 맡아 활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전국 순회 강연에 참여하여 독립정신을 양양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조달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은 당시 신간회가 추진하려던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간회 지회의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의 성격을 내재한 것이었다.

1938년에 한순회는 황해도 사리원에서 천도교 중앙간부 최준모(崔俊模)·김재주(金在柱)·김경성(金庚成) 등과 함께 일제 관헌에 피체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기도 하였다. 광주지회의 활발한 활동은 이러한 한순회와 같은 지역 인사의 역량과 노력이 배어 있는 것이어서 높이 평가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9. 1930년대 성남지역의 민족해방투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합작하여 민족투쟁을 전개한 역사적 경험은 민족해방투쟁의 과정에서 융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준다. 사

회주의 진영의 운동이 반제운동으로 집약되면서 노동자·농민의 의식 고양에 요구되었고 그 운동 방향은 민족 의식에 기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민족 의식은 식민지 모순의 해결을 위한 공통 분모에 해당되어 민족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1930년대 통일전선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민중운동이 폭력 투쟁의 단계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노동운동은 민족해방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노동운동은 폭력화하였고 비합법적인 적색 노동조합의 형태로 진전되었고 사회주의 운동에 경사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30년대 민족운동은 폭력을 수반한 폭력적인 정치투쟁이 일상화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파업 등에 국한되지 않고 무장투쟁과 연계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위축된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내재적인 역동성이 강화되면서 통일전선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36년 원산에서 활동하던 이주하 등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주력하던 전술을 수정하여 일제와 파시즘에 반대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 결성을 시도하였다. 중경의 임시정부, 연안의 독립동맹, 국내의 건국동맹이 결집된 통일전선운동은 해방을 위한 주요 전술로 대두되었다.

1940년 3월 박헌영, 이관술, 김삼룡 등이 서울에 경성공그룹을 결성하고 인민전선부, 노동조합부, 가두부, 학생부 등의 부서를 편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성공그룹은 반전투쟁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반제국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무장봉기 등의 실천적

인 투쟁에 몰두했다. 1944년 8월 여운형 중심의 건국동맹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전 반일세력을 결집하려 했다. 건국동맹은 공출·징용·징병 등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노농군과 치안대의 편성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민족해방투쟁의 전반적인 흐름과 긴밀하게 연관된 성남지역의 독립투쟁은 사회주의가 대두하면서 의병정신의 실천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 10. 광주공산당협회의의 활동

1930년대 일제의 대륙침략이 시작되고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계층의 항일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즉 중화학공업에 의한 공장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자계층도 더욱 성장하였고 일제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 가혹해져 갔다. 따라서 193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은 비합법적 투쟁으로 전환되면서 폭력화 경향을 강하게 수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는 검거 투옥되었고 이런 탄압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 강구되는 상황이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의 공간이 위축당하자 노동운동은 비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조직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주의운동과 밀착하게 되었다.

당재건을 추진한 사회주의자들은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하향식 조직 방법론에 대한 일단의 반성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려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노동자나 농민을 토대로 당을 건설하려는 상향적

방침을 고수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색 노동자와 적색 농민조합 등의 대중적 조직을 지역 단위로 건설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남에서 펼쳐진 노동운동은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당면 과제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1930년대 조직 노선의 변화와 대중운동을 지도하려는 전국적인 경향에서 주목되는 지역이 광주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조직 형태나 활동의 일단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1934년 조직 개편된 광주공산당 협의회 사건이다. 이 조직의 출발은 1930년에 조직한 남한산노동공조회(南漢山勞動共組會)라 할 수 있다.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근거한 남한산노동공조회는 석계환, 정영신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노동운동의 단체이다.

표면적으로 남한산노동공조회는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노동자·농민·상인 등을 망라하여 조직한 것으로 드러난다. 남한노동공조회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야학을 설립하는 한편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것은 노동계급의 의식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노동공조회는 성남의 남한산으로 제한된 지역적 한계성이 내재되어 제한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성원 자체가 노동자·농민·상인을 망라한 형태여서 대중 연계는 가능하였지만 조직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산노동공조회는 일시 광주서의 탄압으로 1933년에 광주공동조합(廣州共同組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일제의 경찰력을 피하는 한편 지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재편책에서 시도된 것이다. 광주공동조합은 성남지역이 수공업주의 공업 기반에 기초한 관계로 조직 활동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서 광주 지역으로 조직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계통적인 노동조직 체계로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신간회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연합하여 해방운동을 추진해 온 사회주의 계열은 독자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기도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남지역은 1934년 12월 광주공산당협의회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강화되었다. 광주공산당협의회 핵심 요인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석계환, 정영신(鄭榮信), 구상회(具想會), 구본흥(具本興), 김흥종(金興鍾), 구용홍(具溶弘), 정영배(鄭永培), 이양식(李良軾), 구희서(具喜書), 선진수(宣鎭秀), 강달영(姜達榮), 이순웅(李順應), 김귀용(金貴用), 許某 등이 세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광주공산당협의회 자체 구성원은 점원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의 전위 단체는 극비밀리에 유지되고 운영된 점을 감안하면 성남지역에서의 세포 단체로는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공산당협의회가 조직화되면서 내부적인 조직 체계를 강화하면서 외연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1934년 12월에는 광주공산당협의회를 조직한 후 1935년 2월에 광주공산당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활동 사항에서 주목되는 사업은 내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화 작업에 치중하는 한편 외부 조직과의 연계 투쟁을 강화한 점이다. 월 1회씩 노동회관에 모여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노동야학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광주공산당협의회는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서울 영등포와 인천 등지에까지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광주공산당협의회는 대중교양을 위해 서적을 구입하고 교양사업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내부적인 직원들의 노동자 의식을 확대하고 대중 운동의 핵심적인 세포 조직원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매월 1회씩 뼈라를 작성하여 배포했는데 조직원은 서울·인천·영등포 등지의 공장에 잠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공산당협의회 조직 활동은 당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공동 노선이나 지령에 의해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사회주의 대중화하려는 양상의 일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성남지역의 남한산성에 기초한 것은 일제의 감시망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고 이 지역의 정서가 반일적인 항쟁 의식에 토대하기 때문이다.

광주공산당협의회 직원들은 인천과 영등포 공장지대에 침투하여 연계 활동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난다. 1934년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차원에서 조직 강화된 인천적색노동조합과 연계 투쟁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지역은 자료가 불분명하지만 당시 조선공산당 재건정리위원회와 연계되어 활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광주공산당협의회가 경기도 지역의 사회주의 세포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1936년 1월 조직원이 실수로 노상에서 분실한 조직 관련 물건이 일본 경찰 손에 우연히 들어가 조직은 붕괴되고 말았다. 1936년 1월 9일 석계환·정영신 등 13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과적으로 광주공산당협의회 조직이 와해되었다. 1936년 3월 16일에 광주공산당협의회 사건 관련자 12명 중 구희서 등 5명은 기소중지로 석방되고 석계

환 등 7명은 공판 회부되었다. 4월 20일에 광주공산당협의회 사건의 주도자 석계환 등 7명은 징역 6개월형에서 3년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남한산성에서 조직된 운동단체가 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와 인천에까지 조직원을 파견하였다는 점은 통합성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11. 석계환의 항일의식

성남지역에서 의병정신의 실천성을 시현하면서 행동한 지성인은 석계환이라 할 수 있다. 석계환은 1890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지주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초창기 석계환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온건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광주신간회 활동에 참여한 석계환의 행동 형태에서 이러한 일단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는 남한노동공조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신간회 광주지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1935년 1월 광주공산당협의회를 결성하고 비서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6년 4월 경성지법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해방 후에는 남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사회주의 운동 노선을 견지하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석계환은 일정 부분 민족주의적 운동 노선을 유지하다가 사회주의 운동 노선으로 방향 전환하여 치열한 삶을 영위하였다.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을 두루 섭렵한 역경에서 보면 석계환은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선각자라 할 수 있다.

## 12. 민중직접혁명론에 기초한 의열투쟁

3.1운동을 목도하면서 민중의 직접 투쟁을 인식한 신채호는 기존의 무정부주의 이론인 민중직접혁명론에 대한 체계화 과정에서 독립운동 방략에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였다. 투쟁방략의 전환과 일제하 식민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집이 1923년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서이다. 조선혁명선언서는 의열투쟁을 위한 정신적 원천이 되는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일제에 투쟁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명쾌하게 선서한 것이다. 성남지역의 의열투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상적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기 위해 조선혁명선언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조선혁명선언에 나타난 신채호의 직접 혁명론은 기존의 독립운동 방략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기초하면서 혁명의 필연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 제기된 문화운동론과 외교독립론 및 준비론을 통렬히 비판하고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구축할지며, 강도 일본을 구축하자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다”라고 하여 혁명성을 명확하게 했다. 신채호는 민중에 대해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식민지 상황에서 특권계급인 일제와 매국노를 제외한 전 민족의 피지배자층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민중의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주는 유일한 희망이고, 식민지 통치자를 타도할 수 있는 절대다수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신채호는 민족독립운동을 민중해방운동과 동일시하면서 노동자·농민의 해방은 노동자·농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무정부주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혁명의 방법론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중 봉기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즉 모든 국민이 각자의 역량과 처지에 따라 총궐기하는 민중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민중직접혁명에서 민중의 각오가 혁명의 전제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영웅이나 지도자가 지도하고 계몽해서 각오 즉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민중을 위해서 불합리한 장애부터 먼저 타파하는 행동을 통하여 민중 스스로가 각오하게 된다.”는 주장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혁명방법론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소극적 비협조의 불복종운동과 적극적인 폭력 투쟁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투쟁은 노동자의 경우 파업투쟁, 농민은 소작료 불납이나 납세거부 등을 의미한다. 반면에 적극적인 투쟁은 투사들의 폭력에 의한 항쟁을 강조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직접민중혁명의 경우 폭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점이 다른 방략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신채호는 민중 직접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혁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폭력은 정규군에 의한 결전이라 아니라 게릴라적 폭력이어야 하며 그 내용은 암살, 파괴, 폭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독립군을 10만 양성하는 것보다 한발의 폭탄을 던지는 것이 더 나으며 억천 장의 신문, 잡지보다 한번의 폭동이 더 나은 것”이라는 주장은 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신채호의 민중 직접혁명론은 무정부주의의 혁명방법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중과 폭력은 민족독립혁명의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인식하는 한편 기존의 혁명에 관해서 냉철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개화당의 갑신정변은 민중적 지지가 뒤따르지 못한 낡은 혁명이며, 국치 전후의 의병투쟁은 봉건적인 독서계급의 사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안중근, 이재명 의사의 폭력적 행동 뒤에는 민중적 역량의 기초가 결여되었음을 직시하였다. 반면에 3.1운동은 만세소리에 민중적 일치의 의기가 나타났지만, 폭력적 중심을 갖지 못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직접 민중혁명이라는 것이다.

### 13. 광복군 염재항의 투쟁

신채호는 직접 민중혁명만이 현단계의 독립투쟁 전술론으로서 가장 유효하고 이상적인 방법임을 시사하면서, 이 전략을 의열단의 투쟁 이념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전술은 일정 부분 의병투쟁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무장투쟁론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지역에서 주목되는 의병정신의 투지를 계승하고 무장투쟁론을 실천에 옮긴 인물은 광주군 중대면 출신인 염재항이다. 염재항(廉宰恒, 廉波 : 1899. 9. 22 ~ 1985. 12. 15)은 광복군 제 2지대에 입대하여 초모를 위한 공작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적에 대한 정보수집, 유격전 등 항일 활동을 펼쳤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 침탈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한민족 기상을 발현한 성남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정신사적으로 의병 투쟁의 맥락을 계승하려는 지역적 특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성남 지역의 항일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 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

## 1. 머리말

역사문화적 의미에서 하나의 공간은 사람이 살면서 비로소 숨쉬기 시작하고 의미를 지니게 된다. 모든 땅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연이 층층이 쌓여있다. 이 세월과 사연을 우리는 역사라 하기도 하고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를 보고 읽어내는 것은 시력이 아닌 안목이며, 이를 간직하고 전하는 것은 기억이며 기록이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육안으로 포착되지 않는 공간의 세월과 사연을 보아내지 못하며, 기억하고 기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연을 후대에 전달하지도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인류든 역사를 알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기 마련이고, 문화를 알지 못하면 삶 자체가 천박해진다. 역사와 문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성남 땅 또한 최소 수천 년의 세월과 사연이 내포된

곳이다. 굳이 대단한 사건이나 유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는 길에는 옛사람들의 노래와 한숨이 배어있고, 우리가 사는 고층 아파트 아래에도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다. 어떤 이는 우리의 도시를 가리켜 역사가 빠진 사회적 공간이라고 지적한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식민지를 경험했고, 자주권을 회복한 뒤에는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었으며, 그 뒤로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도시는 역사의 표상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내포한 수도 서울의 거리에서 우리는 좀처럼 그 500년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급속하게 형성된 도시에는 기껏해야 10년~30년의 숨가쁜 성장의 흔적만 있을 뿐이다. 살아온 자취를 꼼꼼하게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할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도시의 역사가 짧다고 해서 삶의 역사까지 짧은 것은 아니다. 청년 도시 성남은 깊고 튼튼한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분주한 도시의 삶 속에는 수백 년의 유장한 세월이 흐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돌아보는 일이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역사와 문화를 발견하는 안목을 기르는 일이다. 이 글은 현재 남아있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1895~6년 성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기 의병운동과 일제하 독립운동의 실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는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의병들의 항쟁이 있었고, 국권을 상실한 뒤에도 주권을 찾기 위한 지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화려한 야경 속에서 의병들의 분노에 찬 함성 소리를 듣고 나라를 찾으려는 비분강개한 지사의 눈빛을 볼 수 있을 때, 이 미래를 지향하는 최첨단 도시의 문화적 내포가 풍부해지고 미래 또한 밝아질 것이다.

## 2. 김하락(金河洛)의 <진중일기(陣中日記)>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래 일제의 정치·경제적 침투로 한국 농촌의 사정을 날로 악화되어 갔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저항하여 1894년 1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청국군과 일본군이 차례로 조선에 출병하였고, 조선에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에 동학농민이 척왜(斥倭)의 기치를 세워 2차로 봉기하였고,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한 가운데 일제는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김홍집 내각은 같은 해 11월 15일 단발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앞서 병인양요 등 몇 차례의 외요(外擾)를 겪으면서 조선의 유림들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이념을 공고하게 구축하였는데, 이는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항쟁으로 실천되었다. 유림은 국모의 원수를 갚아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아울러 오랜 유교 문화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항쟁에 나선 것이다. 金河洛의 의병운동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일어났다.<sup>1)</sup>

김하락(金河洛)의 자(字)는 계삼(季三)이고 호는 해운당(海雲堂)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1846년 12월 14일 경상북도 의성읍 교촌리에서 부 김운휘(金運輝)와 모 덕수 이씨 사이에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초명은 吉周이다. 그의 집안은 조선후기에 들어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여 처사의 가풍을 유지하여 왔다. 그의 생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1) 1890년대 전기 의병운동이 일어난 여러 배경에 대해서는 이완재, <韓末 義兵運動의 歷史的 背景>, 《경기도 향일독립운동사》(1995)와 정제우, <1890년대 의병운동의 성격과 의의 : 전기 의병운동>, 《동북아》3 (동북아문화연구원, 1996)을 참조하였음.

것이 없다. 어릴 때 황학산에서 수학했다고 하는데 스승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현재 그의 학통을 파악하기 어렵다. 서울로 이사하여 충무공의 후손인 이정배(李庭培)의 따님과 혼인하였다. 을미사변 이후 잘못 되어 가는 나라 형편에 비분강개하다가 하루는 열 살 된 딸 영규(榮奎)와 네 살 된 아들 병우(秉宇)를 앞에 놓고 영규에게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글을 읽어 의리의 대절을 대강 알고 있으니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국가가 곧 패망할 위기에 있음을 보고 신민으로서 좌시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복의토적(伏羲討賊)의 대의에 몸을 바쳐 군국(君國)의 원수를 설치(雪恥)하려 하니 만일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여도 맹세코 이 역적들과 일천(一天)을 공대(共戴)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비록 나이 어리나 제법 총혜(聰慧)하니 내 말을 명심하여 이 아버지를 생각 말고 나중에 너의 자모(慈母)와 치제(棼弟)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이 말에 영규는 앞드려 울먹였고, 며칠 뒤에 김하락은 분연히 거의(擧義)하였다고 한다.<sup>2)</sup> 그의 인상에 대해 김도현은 “키가 크고 시원스러우며 말은 쾌활하고 씩씩했다.”고 하였다.<sup>3)</sup>

〈진중일기(陣中日記)〉는 단발령이 선포되던 날인 1895년 11월 15일부터 1896년 6월 4일 안동에서 적탄에 맞고 투신 자살 직전까지의 일기이다. 여기에는 당시 의병 운동의 배경, 의병의 구성, 의진 결성의 과정, 투쟁의 경과, 의진의 내부 사정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 초기 의병 운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아울러 의병 운

2) 이상 김하락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위 정웅(鄭雄)이 지은 《海雲堂金公行錄》을 참조하였다. 이 글은 김규성 역, 《金河洛征討日錄》(계몽사, 1968)에 실려있다.

3) 《碧山先生倡義顛末》, 《독립운동사자료집》 2권, 28쪽.

동에 임하는 지식인의 자세와 진중에서의 심회 등이 절절하게 기록하여 이순신의 <난중일기> 전통을 잇는 진중 문학작품으로 꼽을 만하다.

<진중일기>는 길이 7cm 가로 11cm의 모필본으로 당시 그의 막하로 있던 인물(미상)의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글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경위도 자못 감동스럽다. 1896년 6월 4일 영덕 전투에서 총탄에 맞은 채 투신했던 김하락의 시신을 영덕 강하구에 살던 손치원(孫致元)이 수습하여 가매장하였고, 한규열(韓奎烈)은 이를 잘 보살폈다. 1914년 따님 김영규는 남편 정웅과 함께 머리를 깎고 남북을 한 채 비밀리에 부친의 유해를 충남 서천읍 남산에 반장(返葬)하였다. 이후 김영규는 의병장의 유족이라 하여 일제의 박해를 받으며 각처를 유리하던 중 우연히 전의(全義)의 송만섭(宋萬燮, 임진왜란 당시 순사한 송상현의 종택)의 집에 우거하면서 비장하고 있는 이 일기를 소책자로 깨알 같이 정사하였다.

책이 크면 보관하기도 어렵고 일정에 발각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마침내 1917년 겨울에 만주로 떠나가면서 송만섭의 부인 이대길(李大吉)에게 전해주며 뒷날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대길은 6·25 전쟁 중에도 이 책만은 몸에 지니고 있다가 1967년 의성 김씨 종친회에 돌려주었다.<sup>4)</sup>

여기서는 김하락 의진에 대한 기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sup>5)</sup> 자료의 면면을 소개하기로 한다. 일기의 머리 부분은 의병 운동의 역사, 개인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4) <진중일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경위는 김규성 역, 앞의 책 서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원본은 이 책 뒤에 부록으로 영인되어 있다.

5) 김하락 의진에 대해서는 유한철, <金河洛義陣의 義兵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글에서 김하락의 의병할

우리 나라가 열린 지 504년, 성상(고종) 32년 을미년(1895)에 나라의 운수가 다하여 亂臣이 정권을 잡고 혁신을 내세워 어진 인물들을 배척하고 섬 오랑캐와 몰래 내통하였다. 수천 년 동안 호시탐탐하던 왜적이 이 문호 개방의 기회를 타고 이 해 6월에 적병 10만 명이 바다와 육지로 동시에 진출하여 각 항구와 각 요해처에 기지를 만들고, 동래로부터 의주에 이르기까지 3천 리에 뻗쳐 수십 개소에 진을 치고 마침내 도성으로 돌진해 왔다. 이때 적신들은 밖으로 왜적의 세력을 끼고 안으로 임금을 협박하여 선왕께서 국법으로 제정한 의복을 다 버리고 오랑캐 옷으로 바꾸어 입게 하여, 8도의 수령과 서울을 출입하는 사람이 모두 검은 옷을 입었다. 이에 민심이 흉흉하여 혹은 깊은 산골로 도망가고 혹은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갔다. 이 해 8월 21일 밤에 적신 俞吉濬, 鄭秉夏, 趙義淵, 張博 등이 일본 군대를 궁중에 불러들여 난을 일으키고, 안 대궐로 넘어 들어 우리 국모를 살해하였다. 아! 지극히 통분할 일이었다. 그 뒤 9월에 宋近洙, 申應朝가 장차 의병을 일으켜 원수 갚을 일을 모의하다 성사하지 못하고 적당의 모함을 받게 되었다.<sup>6)</sup>

我朝開國五百四年，聖上三十二年乙未，國祚陽九，亂臣秉政，煽倡革新之說，擯斥賢流，潛通島夷。數千年狐視之賊，乘此開門之機，是年六月，賊兵十萬，水陸竝進，設塞於各港口及諸要害處，自東萊至義州，三千餘里，結陣數十處，突入都城。于時，賊臣輩，外挾賊勢，內嚇君父，盡去先王法服，

동에 대한 내용은 모두 여기에 의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1970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독립운동사자료집 1집》 안의 〈의병항쟁사자료집〉에 활자화 된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다. 원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에서는 이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

6) 번역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본을 바탕으로 하여 부분 부분 필자가 개역하였음.



變着夷制，八域守領及畿內出入之人，舉皆黑衣。是時，民情洶洶，或逃竄深山，或乘船入海。及至八月二十一日夜，賊臣俞吉濬·鄭秉朝·趙義淵·張博等，召日兵入宮，作亂。踰入闕內，殺我國母，噫嘻痛矣。其後九月，前大臣宋近洙·申應朝，將謀倡義復讐，事未售而爲賊黨所陷。

의병 운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서술이다. 전체적으로는 1895년 일본군의 진주와 여기에 힘입은 친일내각의 구성에 유생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 의병 운동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 낭인들의 8월 21일의 명성황후 시해였다.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군신관계는 부자관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목숨을 바친다는 군욕신사(君辱臣死)의 이념이 몸에 배어 있었던 유자들은 응징을 결의했다. 9월 18일 현풍 유생 문석봉(文錫鳳)은 유성에서 ‘聖母가 해를 당한 것은 천고의 대변’이라면서 ‘대의로 일어나 흉당을 토벌하고 사직을 바로잡자’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또 11월에는 김이언(金利彦)과 김규진(金奎鎭), 김창수(金昌洙, 김구의 본명) 등이 만주 삼도구에서 300여 명의 포수를 포함한 의병부대를 이끌고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격문을 발표하고 고산진을 점령 강제로 진격하였다. 두 차례의 의병 운동은 관군과 접전 끝에 패하여 해산하고 말았다.<sup>7)</sup>

이듬해 2월 김구가 황해도 치하포 나루 주막집에서 일본군 중위를 죽이고 큰길가 벽에 ‘국모보수(國母報讐, 국모의 원수를 갚다)’라 써 붙인 것은 이 만행에 대한 상징적인 응징이라 할 수 있다.

7) 정재우, 앞의 논문, 73쪽.

11월 15일 밤에 유길준 등 여러 적당이 머리 깎는 칼을 가지고 대궐 안에 들어와 임금님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이어 조신들의 머리를 깎았다. 다시 관리와 병졸을 풀어 칼을 가지고 사방을 누비게 하니, 도성 안 사람들이 대부분 강제로 머리를 깎여 화를 면한 자가 드물었다. 이른바 예외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을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아 통분스럽도다! 저 조정 당국자들은 극독한 수법을 자행하고 망극한 변고를 만들어 마침내 5백 년 종사와 수천 만 백성을 오랑캐 손에 넘겨주려 하니, 이들의 죄악은 고금 천지에 가득 차서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다. 이때 서울에 있는 지사들은 가슴을 치고 주먹을 불끈 쥐며 통분을 이기지 못하였다.

十一月十五日夜，俞吉濬等諸賊，持剪刀入闕內，勒削君父之髮，仍削朝臣。更發吏卒，持刀橫行，畿內人皆被其勒難，免鮮。所謂禮義之邦，豈期至此腐敗乎。嗚呼痛矣。噫，彼當局者流，肆行劇毒之手，刼造罔極之變，終以五百年宗社，數千萬生靈，付與於賊人之手，此輩之罪，貫盈今古，萬戮猶輕。當時在京有志人士，椎胸扼腕，不勝慟憤。

의병운동을 폭발시킨 계기는 단발령 공포였다. 17세기 이후 유자들은 조선을 소중화(小中華)라 자부하였다. 이는 만주족이 중국에 청나라를 세우면서 공자 이래의 도통과 문화를 잇고 있다는 문화적 자존심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친일 내각의 단발령 선포는 오랫동안 유자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몸과 머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身體髮膚，受之父母，不可毀傷.’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에 가뜩이나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분개하고 있던 전국 각지의 유생들은 ‘보형보발 保形保髮’ 또는 ‘목은 자를 수 있어도 머리는 자를 수 없다.’는 기치를 내세워 봉기했다.



김하락도 문화적 자존심을 건드린 이 조치에는 더 참지 못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투쟁을 결심하게 이른다.

이튿날 아침 김하락은 이종 사촌 아우인 조성학(趙性學), 동지 구연영(具然英)·김태원(金泰元)·신용희(申龍熙) 등과 함께 한강을 건넜고, 17일에는 이천에서 화포군도영장(火砲軍都領將) 방춘식(方春植)과 상의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에 용인·안성·포천·시흥·수원·안상 등 경기도 일대의 여러 고을에서 의병들이 결집되어 이천으로 모여들었다. 이천의 의진(義陣)은 자연스럽게 경기도 일대의 의병들을 총 지휘하는 수창의소(首倡義所)되어 크게 기세를 떨쳤다. 이때부터 안성의 의병장이었던 민승천(閔承天)이 창의대장을, 김하락은 각 군 도지휘를, 조성학은 여러 군문의 도총을 맡는 등 임무를 분담하였다. 이어 전 의병을 3기구대법(三騎九隊法)에 따라 향오(行伍)를 편성

하여 훈련에 들어갔다.

이에 일본군 수비대는 이천으로 180명의 군사를 급파하였다. 12월 3일 이 소식을 들은 김하락은 무기가 열악하고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의병의 실정을 감안하여 매복 작전을 펴기로 하였다. 김태원으로 하여금 1초군을 인솔하여 백현(魄峴)<sup>8)</sup> 아래 깊은 골짜기에, 김귀성과 신용희에게는 2초군을 거느리고 백현 상봉에 매복하게 하고, 또 조성학은 백현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서 적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 작전은 맞아 떨어졌다. 4일 아침 이천 쪽으로 진군해오던 일본군을 조성학이 맞아 싸우다가 갑자기 쇄북을 울리며 백현으로 달아났다. 일본군이 추격하여 백현 아래 이르렀을 때 구연영·김귀성·신용희 등이 산중턱에서 협공을 하고 조성학은 퇴로를 차단하였다. 백현 아래에서만 수십 명의 적병이 사살되었다. 이 날의 전투는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 날의 분위기를 김하락은 아래처럼 묘사했다.

한참동안을 닦치는 대로 무찌르다 보니 날은 벌써 저물었다. 초생달은 서쪽 하늘에 떠있는데 추위는 뺏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윽고 달은 지고 밤 10시경이 되자, (적은) 한 가닥 길을 찾아서 몰래 도망가기 시작했다. 좌우의 우리 군사가 밤새도록 추격하여 광주군 노루목[獐項] 장터에 도착하였는데, 바로 초닷새 날 새벽이었다. 새벽 별은 반짝이고 닭 울음 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위 아래 行陣에서는 포성이 끊이지 않았다.

廝殺良久，日已昏矣。初月在西，寒霜砭骨。俄而月落。三更時分，尋一條路，暗暗逃去了。左右諸軍，達夜追趕，至廣州郡獐項場基，則初五日曉頭

8) 백현의 현재 이름은 이천시와 광주시의 경계에 있는 광현(廣峴, 넓고개)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속한다. 현재 이천의병전적비가 이 곳에 세워져 있다.

也. 曙星耿耿, 晨鷄喔喔, 上下行陳, 砲聲不絕.

추위가 뼈 속으로 스며드는 동짓달, 예리한 초생달이 서쪽으로 저서 어둠이 더욱 깊어지는 때에도 전투는 그치지 않았다. 어둠을 틈타 일 본군은 도주를 시작했고 의병의 추격은 밤새 이어졌다. 격렬한 추격 전 끝에 한숨을 돌렸을 때는 새벽 무렵이었다. 닭 울음 소리와 포성이 섞여 간간이 들리는 고요한 새벽 풍경의 묘사가 밤사이의 치열한 전투와 대비되어 인상적이다. 이때 적병들은 장터<sup>9)</sup>에서 휴식을 하다가 추격한 의병에 의하여 다시 또 수십 명이 사살되었다. 백현 전투에서 36명이 달아났고 새벽에 또 광주에서 대부분 죽고 살아 달아난 적병이 두셋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서야 의병들은 장터에 모여 음식을 먹었다. 이날의 승리는 전기의병사상 얻은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다. 이는 이후 의병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장기적으로 항전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sup>10)</sup>

첫 번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천 의병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다음 싸움에 대비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격문을 보내 의병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던 중 12월 3일 고종이 은밀하게 각도의 의병에게 내린 조칙이 전해졌다. 조칙의 대강은 “왜적이 대궐을 침범하여 국가의 안위가 조석에 박두했으니 힘을 다해 토벌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경기도와 충청도와 영남의 의병을 각각 순의군(殉義軍)·충의군(忠義軍)·장의군(仗義軍)로 삼았으며 8도 각 고을은 여기에 호응하여 창의

9) 여기서 말하는 노루목(獐項) 장터가 어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리적 위치를 고증하여 밝히고 역사의 현장임을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10) 유한철, 앞의 논문, 15쪽.

(倡義)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고무된 김하락은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조칙을 안고 통곡하며 뜻을 받들 것을 다짐했고, 장졸들도 눈물을 뿌리며 죽기로 싸울 것을 맹세했다.

하지만 일본군은 200명의 군사로 재차 공격해왔고, 1895년 12월 30일 이현(梨峴)<sup>11)</sup>에서 접전을 벌이던 의병은 강한 눈보라를 맞으며 싸우는 불리한 상황까지 겹쳐 결국 패퇴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일본군은 전투가 벌어졌던 이현 마을을 모조리 불질러버렸다. 김하락은 일단 여주로 몸을 피했다가 병력을 수습하였다. 1896년 1월 18일에 이천으로 돌아왔고 24일 각지에서 모여든 군사의 수를 점고하니 장수와 종사관을 합쳐 모두 2천을 헤아렸다. 이에 박준영(朴準英)을 대장으로 삼고 며칠 동안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천에서는 더 이상 일본군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려웠던 터에 광주·의 남한산성을 점거하고 있던 의병장 심진원(沈鎭元)의 구원 요청으로 김하락은 남한산성으로 병력을 옮겼다. 당시 남한산성은 여전히 방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었으며, 조선후기 이래 군사적 기능을 다하고 있어 다량의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다. 아래는 <진중일기> 1896년 1월 30일자 기록이다.

광주 산성으로 진을 옮겼는데, 사방 산이 깎아지른 듯이 솟고 성첩이 견고하여, 참으로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이라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성중을 두루 살펴보니 쌓인 곡식이 산더미 같고, 식염이 수백 석에 달하고, 무기도 갖추어져 있어, 대완기가 수십 자루, 불랑기가

11) 이현(梨峴)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의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梨峙里, 배고개)로 추정되고 있다.

수십 자루, 천황포와 지자포 역시 수십 자루, 천보총이 수백 자루였고, 그 나머지 조총도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탄약 철환이 산더미 같으므로, 여러 장수들은 군용이 유여한 데다 진칠 곳마다 견고함을 몹시 기뻐하였다.

移陣于廣州山城，四山削立，眞一夫當關，萬夫莫開之處也。周視城中，積粟如山，食鹽數百石。軍物豐備，大完器數十柄，拂狼器數十柄，天黃砲地字砲亦數十柄，千步銃數十柄，其餘爲銃，不可勝數，積鐵如山。衆將劇歡軍用之有餘，且喜陣處之堅固矣。

남한산성은 1624년 수축 이래 수도 방위를 담당하던 곳이었다. 다산의 분류대로라면 산성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버들광주리의 형세를 갖추었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안이 넓고 물이 풍부한 곳이다.<sup>12)</sup> 여기에 서울이 가까워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비록 1637년 수성을 포기하고 나가서 항복하기는 했지만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는 함락된 적이 없는 천험의 요해처였다. 게다가 그 안에는 수많은 무기와 탄약이 구비되어 있었다. 전열을 새로 정비한 남한산성의 병은 선봉 김태원은 남문을, 후군 신용희는 북문을, 우익장 김정성은 서문을, 좌익장 김귀성은 동문을 각각 지키고, 구연영은 장교청에 진을 마련하여 중앙을 지키고, 김하락은 유격병 두 연대를 거느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지휘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의병이 남한산성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은 고종을 협박하였지만, 조치가 없자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 우리 군대 5백 명을 징발하여 남한산성을 포위

12) 산성의 유형에 대해서는 정약용\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民堡議·民堡輯說》(1989) 참조.

하였는데, 관군은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한 뒤 쉽게 공격하지 못했다. 이후 의병은 2,3차례 국지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강화도의 지방병 300여 명을 증파하고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여 항복을 권유하였다. 이에 의진에서는 오히려 관군을 설득하는 글을 보냈다.

지금의 팔로의려(八路義旅)는 20~30만을 밀돌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적을 벌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일시에 들어가 倭館을 포위하고 저들에게 ‘우리나라와 너희나라는 脣齒로서 相保해 온 지 300여 년인데 어찌 서로 의리를 끊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너희나라가 우리 국모를 살해했으니 의를 끊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너희가 먼저 우리를 끊은 것이요, 우리가 너희를 끊은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금일 너희는 10일 이내에 집을 철거하고 한사람도 남기지 마라. 혹 한시내에 떠나지 않는다면 부득불 병력으로 도륙할 것이다.’라고 선유할 것이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리를 모아 칠 것이다.<sup>13)</sup>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남한산성 의진의 서울진공은 3단계로 계획되었다. 1단계는 수원 근방의 의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는 남한산성 의진과 춘천·분원·공주·충주 및 수원의진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 및 일본군을 협공하여 격파하고, 3단계는 삼남 지방의 의병까지 합세하여 서울로 진공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일본군을 구축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

---

13) <동경조일신문> 4월 2일자,



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2단계를 추진 중 남한산성이 함락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남한산성 의진은 지휘체계 상의 혼란과 적의 유인책에 넘어간 내부 인사의 내용으로 1896년 2월 21일 새벽 허무하게 함락되고 말았다. 이때 성안으로 들어온 정부군들은 오히려 의병들의 도주로를 터주며 “빨리 달아나라. 일본놈을 만나면 죽는다!”고 소리쳤다. 남한산성이 함락된 뒤의 광경은 다음처럼 짝막하게 기록하였다.

여러 장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니 그림자 하나 남은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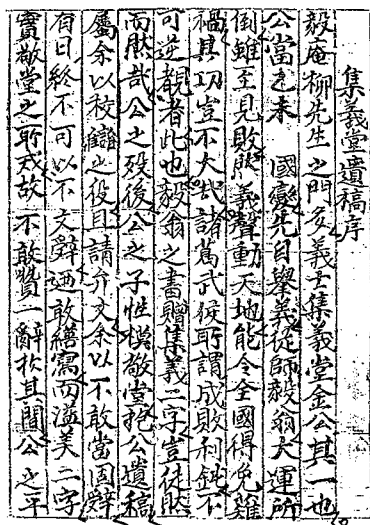
諸將卒四散投去，一無形影。

산성을 탈출한 뒤 김하락은 25일 신용희, 김태원, 구연영 등과 함께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영남으로 내려가 의병활동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30일에 제천에 내려가 유인석 의병에 합류하였다. 이후 영남으로 내려간 김하락은 예천, 상주, 안동, 의성 등을 유력하며 항전을 계속하였다. <진중일기>는 6월 2일로 끝난다. 6월 1일 밤 꿈에 노인이 나타나 “내일 아침 대장기가 떨어지면 네 목숨이 다한 줄로 알라.”고 하였다. 6월 2일 아침에 조성학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흥몽이니 행군을 포기하자고 권하였으나 김하락은 “내가 의병을 일으켜 이미 1년이 되었으나 오직 민생에게 노고만 끼쳤을 뿐이요, 성상의 잠 못 이루는 근심을 덜어드리지 못하였기로 노상 초조하여, 한 칼로 적의 배를 가르지 못해 한이거늘, 하물며 실상이 없는 꿈 때문에 적을 보고서 퇴진한단 말인가. 또 죽고 사는 것이 명에 있는데 무엇을 한탄하랴. 내가 비록 단명하더라도 그대는 이로써 의기를 상실 말고 대사를 스스로

책임지고 신민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sup>14)</sup>고 당부하고는 군사를 재촉하여 길을 떠났다.

김하락의 일기는 6월 2일에서 끝난다. 이후 3일 동안의 사적은 당시 참관했던 부로(父老)들의 전언에 토대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이날 행군을 시작할 때 거센 바람이 불어 대장기가 떨어졌다. 이에 군사들이 당황하였고 조성학은 회군을 청하였지만, 김하락은 개의치 않고 말고 말을 재촉하여 전장으로 향했다. 영덕에 도착하여 관군과의 1차 접전에서 승리했지만,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 동래에서 증파된 관군의 기세에 눌려 의병들이 패주하는데 그 와중에서 좌우 어깨에 두 발의 탄환을 맞았다. 그러자 하늘을 우러러 “우리 5백 년 예의

의 나라가 개 같은 섬 오랑캐놈들에게 먹힌단 말이냐! 아, 우리 수천만 민족이 참혹한 희생을 면치 못한단 말인가! 내 차라리 물고기의 밥이 될지언정 살아서 도적놈들에게서 수모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절규하고는 물에 투신하였다. 이때 김하락의 나이는 51세였다. 김하락의 의병은 전기 의병사상 최초로



集義堂遺稿

14) <진중일기> 6월 2일 “余起義一年，徒貽生民之苦楚，未慰我聖上乙夜之憂，居常焦慮，恨未能一劒?剖盡賊漢腹，況以無實之事，臨賊退陣耶。且死生有命，亦何恨焉。吾壽短命，君勿以此灰心喪氣，以大事自任，盡臣民之義務。”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장기적으로 항전하였는데, 이는 이후 의병 운동의 정신적 지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 3. 김태원(金泰元)의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

金泰元(1863~1932)은 김하락과 함께 의병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로, 자는 춘백(春伯) 호는 집의당(集義堂) 본관은 해풍(海豐)이다. 그의 문집인 《집의당유고》에는 <유사(遺事)>와 <행장(行狀)> 및 <묘표(墓表)>가 실려있어 그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다. <유사>는 문집을 편찬한 아들 김성모(金性模)가, <행장>은 김태원과 동문인 이규현(李奎顯)이, <묘표>는 김태원의 스승이었던 유인석인 후손인 유제함(柳濟咸)이 각각 지은 것이다. <행장>은 <유사>를 근간으로 지은 것이고, <묘표>는 다시 <행장>을 근거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세 글에서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다. 다만 항목에 따라 자세하고 성근 차이가 있어 서로를 보완해준다. 이 세 글을 중심으로 김태원의 생애를 살펴보자.

김태원은 1863년(철종 14년) 9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친 집성(鑣成)은 성균 진사였으며 어머니는 재령 이씨이다. 그의 성장기와 청년기는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다. 별군직(別軍職)에 종사하였고 선전관(宣傳官)을 지냈으며 동료들이 그의 기절(氣節)을 인정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무인이 기질이 강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젊어서부터 병법서인 《육도삼략》을 즐겨 읽으며 훗날을 대비했는데, 군사를 다루

는 능력은 뒤에 유인석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33세이던 1895년 11월 단발령이 공포되자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1896년 정월에 남한산성을 점거하여 서울로 진공하려 했지만, 2월에 장기림이 이끄는 관군에게 패하였다.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제천의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 1842~1915) 진영에 합류했다. 김태원은 이때 만난 유인석을 평생 스승으로 삼아 존숭의 예를 다했다. 뒷날 회고하기를 젊어서 방탕하게 지냈는데 의암을 만난 뒤로 사람됨의 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36세이던 1898년 정월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들어가 유인석으로부터 《대학》과 《맹자》를 받고 가을에 돌아왔다. 이때부터 지평(砥平) 금리(錦里)에 있던 금계(錦溪) 이근원(李根元)을 스승으로 섬겼다. 이근원은 위정척사파의 거두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1~1868)의 제자였으니, 김태원은 자연스럽게 ‘이항로 → 유인석 · 이근원 · 유종교 · 김평묵’의 화서 학통을 이었다. 평소 두주불사일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으나 의암의 가르침을 받은 뒤부터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으며, 평소에는 건과 버선을 벗지 않았을 정도로 평소 생활에 법도가 있었다.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관을 준수하여 절대로 서양 물건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39세이던 1901년 부인 이씨가 죽은 뒤로 가세가 몹시 곤란해졌다. 이 무렵 의병장 원용팔(元容八, 1862~1907)의 의거를 공모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1905년(44세)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 겨울에 의암이 나라를 떠나자 곡산까지 배행하였다가 돌아와 춘천 가정(柯亭)에 들어가 《华东史》(華東史) 간행에 참여했다. 면암 최익현이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키면서 의암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의암은 김태원을 보냈

다. 면암의 휘하에서 소토장(召討將)이 되었다가 한달 여만에 붙잡혀 전주감영에 갇혔다. 갇혀 있는 동안 입에서 꾸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말투나 낯빛도 매우 삼엄하여 그들도 감히 위해를 끼치지 못했다고 한다. 석 달만에 풀려나 개천(价川) 승화재(崇華齋)로 의암을 찾아갔다. 이때 의암은 그의 의기에 탄복하여 ‘집의(集義)’ 두 글자를 써 주어 집에 걸게 했다. 集義는 맹자가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의가 쌓여서 생기는 것’임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sup>15)</sup> 김태원은 스승이 내려준 이 두 글자를 평생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했다.

운강(雲崗) 이강년(李康季, 1858~1908)이 砥平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함께 모의하였다. 의암은 김태원으로 하여금 강릉에서 의거를 일으키라고 지시하였는데, 강릉에 도착하여 거사를 일으키기도 전에 이강년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 그만두었다.

1906년 12월 면암의 부음을 듣고 포천에 달려가서 곡하였다. 제문을 지었고 석달 동안 상복을 입었다. 1915년 11월 의암이 요양(遼陽)의 회인(懷仁)에서 죽자 달려가서 곡하였다. 1918년에는 금계가 죽었다. 이 뒤로 집에 의암과 금계 두 스승의 遺像을 모셔놓고 吉月이면 심의(深衣)와 대대(大帶) 차림으로 심알의(審謁儀)를 행하였다. 1921년 봄 양식이 떨어져 하루 한끼로 연명하였는데 조금도 근심하지 않으며 “굶어죽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절의를 잃는 것은 지극히 큰 일 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이라고 말한 뒤 필사(筆師)에게 쓰게 하여 벽에 걸어놓았다. 젊어서 낭패자(狼狽者)였는데 의암을 만난 뒤로 사람됨의 도리를 알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평생 《육도삼략》을 즐겨 읽

15) 《孟子》, 〈公孫丑上〉.

으며 쓸 날을 기다렸다. 1남 2녀를 두었는데, <집의당유고>는 아들 性模가 1951년 편집하여 묶은 것이다. 1932년 3월 5일 원주에서 죽어 한남산(漢南山)에 묻었다. 묘소가 있는 곳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이다.

<집의당유고>는 한문 필사본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1989년에 간행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3책 《한말의병자료집》에 간단한 해제와 함께 원문이 영인되어 실려있다. 문집의 편차와 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 ○유지혁의 서문

- 시 3수 : 모두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이다. 그 중에서 <挽錦溪李先生根元>는 1918년 스승 이근원이 죽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그의 사후 문집 편찬에 참여했다. 《화서집》 부록 권 6에 그가 지은 <語錄>이 실려있다. 김태원은 1922년 12월 1일에 작성한 편지<與吳進士>에는 다음해에 스승 이근원의 문집을 간행하는 문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문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문집이 간행되었는지, 남아 전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편지 16수 : 반은 동문에게 보낸 것으로 師門의 여러 일들을 의논하는 내용이다. 1907년 9월에 작성한 <與華南左翼將李昌植>은 “아, 슬프다. 세상의 변화가 끝이 없어 4천년 요순의 도와 2천 년 공맹의 학문이 이제 영원히 끊어지려 하고, 5백년의 종사가 흔적만 남은 폐허가 되려 하고, 강토는 뚝간에 빠지고 …”로 시작한다. 7월에 있었던 정미7조약에 대한 통분이다. 이어 하반부는 이창식이 재물을 탐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서의 제자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준열하게 꾸짖는 내용이다. 편지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국가의 존망이 나뉘는 순간이다. 어찌 아프지 않은가! 어찌 슬프지 않은가!”로 마무리된다. 편지 또한 의병장의 의기를 잘 보여주는 글이 많다.

- 제문 3수 : 스승인 유인석과 이근원, 그리고 동문인 이강년에 대한 제문으로 김태원의 사우(師友) 관계를 잘 보여준다. 특히 〈祭穀庵先生文〉에서는 “소자를 자식처럼 대하셨으며 소자의 아들은 손주로 보셨습니다. 소자가 이 생애에서 得延한 것은 선생께서 내려주시고, 소자의 아들이 俗臼에 들지 않고 우리 학문의 훌륭한 사람 알게 됨도 선생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입은 은혜가 망극하니 비록 다시 태어나고 백번 몸이 바뀌어도 그 만분의 일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그가 얼마나 스승 유인석에게서 인간적인 감화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 통문 2수 : 1919년 10월에 지은 〈性齋先生墓儀通文〉과 1924년 2월에 지은 〈錦溪先生墓儀通文〉이다.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1821~1893)와 이근원의 묘역 조성을 위해 동문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다. 편지글에서도 1920년 4월에 작성한 〈與姜斯文復善〉과 〈與都斯文〉은 성재의 무덤 앞에 상석과 묘비가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그 일을 도모함에 뜻을 같이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 〈유사〉와 〈행장〉과 〈묘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문집은 대부분 화서 문하의 인물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말에서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위정척사를 내세웠던 근기 유럽의 동향과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다음 위에서 소개하지 않은 글로 <乙丙事略>이 있다. <을병사략>은 을미년(1895) 단발령 선포 이후 이천에서 수창의소를 설치했던 일에서부터 병신년(1896) 6월 강원도 낭천(狼川)에서 서상열과 함께 활동했을 때까지의 경위를 기록한 2890자 분량의 글이다. 여기에는 단발령 선포 직후 직후 李惠升, 徐明心 등과 모의하여 여주의 沈相喜를 찾아가기로 한 일, 이천에 首倡義所를 마련하기까지의 경위, 초기 이천에서의 전투 상황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남한산성과 관련해서는 <진중일기>에는 없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이 시기의 병사를 재구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광주의 의병장 심진원이 남한산성에 격문을 보내 이르기를 “이번 달 10일 성에 들어와 점거하였는데 참령 장기렴이 (관군) 800 명을 이끌고 와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군사가 적으니 함락될 우려가 있습니다.”라 하였다. 하루에 세 차례나 급한 사정을 알려왔다. 이에 친히 정예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큰 전투를 벌여 물리친 뒤에 입성하였다. 이날 윤량장 이덕승이 전사했고, 병사 또한 수십 명이 죽었다. 나도 몇 군데 탄환을 맞았다. 정월 15일의 일이다.

廣州義將沈鎮元, 在南漢, 送檄曰, 今十日, 入據城中, 參領張基濂, 率兵八百, 爲之數匝, 地要兵寡, 恐有陷城之患, 一日三次告急. 於是, 親率精兵數千, 卽衝圍而進, 大戰却之而入. 是日, 運糧將李惠升死. 士卒死者數十, 身亦受丸者數處, 正月十五日也.

남한산성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요해처인지는 이미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사도 인지하여 선불리 공격하지 않았던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지리적 우세를 익히 알고 있던 광주 의진은 먼저 남한산성을 점거하였지만 병력이 부족하여 이천 수창의소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마침 한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천 의진은 즉각 산성 입성을 시도하였다. 입성 중에는 수십 명이 전사할 정도로 산성을 포위하고 관군과 큰 전투를 벌였다. 이덕승의 죽음에 대해 김태원은 “덕승이 죽었다. 피는 뜨거웠고 지혈도 많았는데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었도다! 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군들 죽지 않으랴. 덕승은 죽을 곳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sup>16)</sup>고 하여 지사의 강개한 마음을 담아 애도하였다.

이천 의진은 입성하는 날로 기강을 바로잡고 밤낮으로 관군과 대치하였다. 장군으로 추대된 朴周英은 선봉을 맡았고 구연영은 중군을 맡았다. 그런데 하루는 장기렴이 박주영과 내통하여 의병을 깨뜨리고 귀순하면 광주군수를 삼는다고 유혹하고 김귀성에게까지 손길을 미쳤다. 이에 박주영이 넘어가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려 하였는데, 일이 사전에 들통났다. 이에 박주영을 沈軍에 보내 처형하였다. 이를 보고 겁먹은 김귀성은 밤에 성을 넘어 달아나버렸다. 이로부터 김태원이 다시 대장을 맡았다. 김귀성은 의병의 허실을 낱알이 알렸다. 처음에 성에 들어와 북장대의 雉堞이 파괴되어 이곳을 경계했는데 적들이 알지 못했지만, 김귀성으로 인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적군은 이곳을 통해 일제히 공격해왔다. 아래는 남한산성이 함락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다.

16) 《집의당유고》, 〈울병사략〉 109쪽 : “應承死矣. 慷慨多智, 不能終事, 身既先亡. 嗚呼, 人生斯世, 何人不死, 應升可謂死得其所矣.”

양 진영이 서로 공격하는데 밤은 칠흑처럼 어두워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다. 3경에서 시작하여 새벽에 이르기까지 큰 교전이 그치지 않아 시체는 산처럼 쌓이고 피는 강물처럼 흘렀다. 죽은 병사와 말이 500이 넘었는데, 죽은 적병이 300명이었다. 이에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나가 싸우면서 나아갔다. 처음 성을 벗어났을 때 따르던 병사가 400명이었는데 분원역에 이르니 겨우 80명 밖에 안 남았다. 응선을 돌아보며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사만 못하다더니 과연 그렇소.”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며 피를 토하면서 땅에 쓰러졌다. 좌우에서 부축하여 구호한 끝에 겨우 숨이 트였다. 이로부터는 교전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꿔 가면서 군사를 모으니 곧 수백 명을 얻었다. 응선에게 “듣자니 제천의 의병대장 유의암은 군세가 매우 성대하다고 하니 가서 의지하면서 뒷일을 도모해야겠소.”라 하였다.

兩陣自相攻擊，夜色漆黑，不分東西，自三更至平明，交大不絕，屍積血流，士馬死者五百餘，賊兵死者三百矣。於是潰圍，東出且戰且行，初出城也，從兵四百餘。至粉院驛，纔八十餘。顧謂應善曰，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果然也。忽數聲咳吐血，而昏憤於地，左右扶持，救護半晌，呼吸始通，自此絕不交鋒，轉進招募，乃得數百軍。謂應善曰，吾聞堤川隊長柳毅庵，軍勢甚盛云，可往依之，以圖後事。

1896년 3월 22일 밤에서 이튿날 새벽에 걸친 싸움은 피아간에 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난 대규모 전투였다. 남한산성의 수축 이래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전투는 사실 처음이었다. 일시적인 의분으로 모인 의병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전투를 벌여나가기는 애초부터 어려

운 일이니 아무리 지형적 우세를 점했다고 하더라도 남한산성의 함락은 예정되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함락 당시 성안에 들어온 관군들은 오히려 의병들의 도주로를 터주며 “빨리 달아나라. 일본놈을 만나면 죽는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관군과 의병으로 갈려 싸우기는 했지만 일본군에 의해 같은 민족이 참살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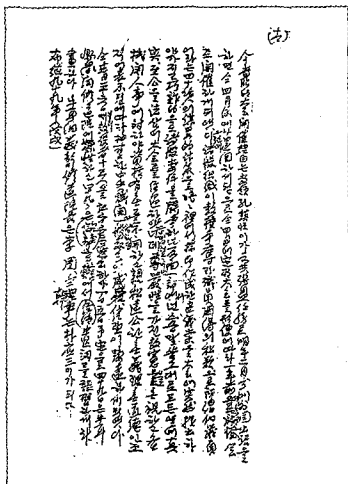
하지만 이때 죽은 관군의 대부분도 조선사람이었을 것이니, 아직도 남한산성에는 그때 흘린 피가 배어 있어 역사의 준엄함을 알려주고 있다. 의병의 패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싸운 게 창피한 것이 아니다. 이는 모두 역사의 소중한 교훈이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아직도 불과 100여 년 전에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처가 나으면 굳은 살이 생기고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으니, 역사는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라도 좋다. 정말로 위험한 일은 좋았던 일만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고, 실상을 왜곡하여 미화하려고 하는 버릇이다.

아무튼 이 전투로 해서 일제는 남한산성의 위험성을 인지했다. 1907년 일제는 남한산성 안의 사찰을 비롯한 온갖 군사시설을 폭파하고 무기들을 소각시킨 뒤 군청을 지금의 경안으로 강제 이전하였다. 남한산성은 어른들은 모두 포 쏘기와 활쏘기로 업을 삼고 아이들은 씨름과 투석으로 용력을 기르던, 활달한 기상이 넘치는 곳이었다.<sup>17)</sup> 유사시에는 왕이 머물면서 정사를 보고, 평소에는 유수가 행정 및 군사 업무를 통괄해서 보며, 늘 일정한 수의 군사가 주둔하고, 절기에 따라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던 남한산성이 지금처럼 위락·관광만의

17) 李晩秀, 〈又喜亭記〉, 《국역남한지》(광주군청, 1990)

공간으로 바뀐 것은, 모두 일제가 1907년 남한산성 내의 저항성과 중심성을 의도적으로 제거했던 데서 말미암는다.

#### 4. 한순회(韓順會)의 <제암일지(霽菴日誌)>



霽菴日誌

한순회(韓順會)의 자는 보경(輔卿), 호는 제암(霽菴), 본관은 청주이다. 1885년 12월 14일 평택군 평택읍 동삭리에서 부친 한진기(韓鎭基)와 모친 함평 이씨의 3남으로 태어났다. 성종조 좌찬성을 지낸 한계희(韓繼禧)의 14대손이다. 네 살 때 부친을 여의었다. 생계가 어려웠던 함평 이씨는 한순회가 10세 되었을 때 현 경기도 성남시 울동에 살던 한영우(韓永祐)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이때 죽

숙 한영창(韓永彰)에게서 한학을 익혔다. 불과 20세에 이장으로 선출되어 마을 일을 보는 한편 청년 운동에 앞장섰다. 경술 망국과 3·1 운동을 체험하면서 국민 계몽 및 독립 운동에 투신하였다. 일제하 울리에서 선각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한순회의 영향 때문이었다.

1919년에는 한백봉(韓百鳳)<sup>18)</sup>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하였다. 2월 말

18) 한백봉(1881~1950)은 호가 송헌(松軒)으로 청소년기에 분당리 진사 서상만(徐相晩)의 문하에서 한문을 수학한 뒤 농업에 종사하였다. 1990년 독립유공훈장 애족장(愛族章)이 추서되었다.

경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차 상경하였다가 3.1운동을 직접 목도하고 돌마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면내의 유지들과 모의한 후 전 낙생면장 남태희와도 연계, 거사를 계획하였다.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기로 날을 정하고 태극기를 마련하는 등 준비하다가 26일 저녁 8시 경 울리의 주민 50여 명을 인솔하여 뒷산에 올라 봉기를 알리는 봉화를 올렸다. 만세 당일인 27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분당리 장터에 집결, 오전 10시부터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 시위에 들어갔다.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면내 각 리를 순회 시위하는 동안 군중은 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시위는 오후 8시까지 계속되었다. 만세 시위는 이튿날에도 계속되어 돌마·낙생면 주민에 대왕면의 주민까지 합세하여 군주이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주도자들이 일제관헌에게 태극기를 빼앗기고 체포되자 시위 군중은 해산되었다.

일제 관헌에게 체포당한 인사들은 남한산성에 있던 용인현병분대 광주분전소로 이송되어 4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한백봉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을 거쳐 서대문 감옥에 이감되어 동년 5월 2일 징역 1년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증거불충분으로 방면된 한순희는 이후 서울을 오가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시위 혐의로 체포 수감된 사람들의 유가족을 도왔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주의와의 연결이었다. 그러나 비타협 투쟁을 내세운 사회주의 측과 일제와의 타협을 통한 합법적 조직과 운동을 지향하는 민족주의 측이 심각하게 대립하면서, 독립운동은 단일전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6·10만세 운동이 있는 다음 해인 1927년 2월 두 진

영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단일 조직인 신간회(新幹會)를 조직하였다. '민족 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안재홍(安在鴻)·이상재(李商在)·백관수(白寬洙)·신채호(申采浩)·신석우(申錫雨)·유억겸(俞億兼)·권동진(權東鎭) 등 34명이 발기했다.

정강정책(政綱政策)은 ① 조선민족의 정치적·경제적 해방의 실현, ②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함, ③ 모든 기회주의의 부인 등이었다. 초대 정·부회장에 이상재와 권동진이 각각 추대되었으며, 35명의 간사와 하부조직으로 총무·재무·출판·정치문화·조사연구·조직·선전 등 7개 부서를 두었다. 그러나 주요 직책을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불만을 샀다. 내부적으로 좌우익의 갈등은 있었지만, 신민회는 민족적·정치적·경제적 예측의 탈피,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의 쟁취, 청소년·여성의 평형운동 지원, 파벌주의·족보주의의 배격, 동양척식회사 반대, 근검절약운동 전개 등을 활동목표로 삼아 전국에 지회(支會)와 분회를 조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930년에는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와 3만 9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본에까지 조직된 각 지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는 '배일선인(排日鮮人) 가운데 저명한 인물은 거의 여기에 가입하였고 ...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하는 언동으로 보아 이 운동의 도달점은 조선의 독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당시 신간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한순회는 1927년 8월 24일 신간회 광주지회를 설립하고 직접 지회장을 맡았다. 석혜환(石惠煥)·한백봉·한백호(韓百鎬)·李大憲(李大憲)·유인

목(俞仁穆)·홍순석(洪淳錫)·박기환(朴基煥)·한용희(韓龍會) 등이 중심이 되었다. 1928년에는 부회장을, 1929년에는 감사위원장을 맡아 신간회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주요간부들을 체포하고, 또 조직 내에 잠재해 있던 좌우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1931년 해산되고 말았다. 광주지회 또한 자연 해체되었다.

한편 한순회는 3.1운동 이후 조직적인 교육과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천도교에 귀의하여 천도교광주교구장을 거쳐 중앙총부의 중앙위원과 봉도(奉道)를 역임하였다. 그는 포교를 위한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 독립 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상해에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백일기도회에서 강론 중에 〈안심가(安心歌)〉 중 “무궁한 내 조화(造化)로 개같은 왜적놈들 일야간(一夜間)에 멸하고서 아국운세(我國運世) 세계에 떨치리라.”는 대목을 한번도 빼지 않고 기도문에 넣은 것은 유명한 일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것이 조국독립의 호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 보아 장차 활동자금으로 쓰기 위해 특별회사금 모집에 나섰다. 전국을 4구역으로 나눈 뒤 각자 모금 담당 구역을 정하여 유력하고 독실한 천도교인들로부터 324원을 모금하였다. 그러던 중 1938년 4월 황해도 사리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천도교 중앙간부 최준모(崔俊模)·김재계(金在柱)·김경성(金庚成) 등과 함께 일제 관헌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70일 동안 옥고를 치르고 5월 12일 석방되었다. 그는 언행일치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항일 독립 투쟁의 원칙에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일제에 투옥되었을 때 신상기록카드에는 ‘치열한 민족주의자’라고 명기되어

있었다.<sup>19)</sup>

〈제암일지〉는 한순회가 1930년 10월 17일부터 1957년 12월 22일까지 쓴 37쪽 분량의 일지이다. 일자는 ‘포덕(布德) 71년’ 식의 천도교력을 사용했고, 내용도 천도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자료는 이완재 교수(한양대 사학과)가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문화유적을 학술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하여,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보고서》(경기도·한양대, 1991)에 처음 소개하였다. 이후 한 동안 자료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완재 교수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은 이연복 교수(서울교육대 사회과교육과)가 현대어로 활자화하고 자료 전문을 영인하면서 일반에게 알려졌다.<sup>20)</sup> 여기서는 이 자료에 힘입어 〈제암일지〉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地日 紀念 參禮次로 上京한 지방 頭目에게 대하여 上師 말씀이 安心歌 중 滅倭心告를 스승께서 傳統的으로 實行하여 왔지마는 이제는 時期가 返하였으므로 일반 頭目에게 “無窮한 내 造化로 개같은 倭賊 놈을 一夜間에 滅하고서 傳之無窮하여 놓고 대보단에 盟誓하고 한의 冤讐까지 갚겠습니다.”라고 朝夕食告에 지성껏 祈禱하라고 넉넉이 말을 하여 주라 해서 지방 頭目에게 其時 本 敎區로 在한 韓順會가 고요히 전달하고 중앙 직원에게는 말씀 아니하시었다.

포덕 77년(1936), 8월 14일

19) 이상 한순회의 생애와 행적은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민족문화사, 1996)의 136~140쪽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이밖에 이완재 교수님은 직접 발굴한 〈제암일지〉와 한순회 관련 자료들을 모두 기꺼이 제공하셨다. 본자는 이 분야에 공부가 깊지 않아 주로 이완재 교수님의 연구업적에 의거하였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자료를 제공하신 이완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20) 자료와 자료 소개의 경위는 《首善社會》8집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1996)을 참조.



去 77년 8월 14일에 지방 두목에게만 비밀히 실행시키었던 滅倭心告 祈禱 事件이 同 敎人 崔澤善의 누설로 信川 경찰서 고등계에 전입되어 黃海 全道 敎人을 전부 檢束 拘류하여 同 2월 27일에 종료하는 동시에 深藏하였던 8편 龍潭歌詞까지 7권을 색출하고 該 道 淵源 대표 洪順義를 拘檢한 후 同月 20일에 신천 교인 金鼎參이 상경하여 總部에 該 사실을 보고하여 총부 직원 일동과 기타 개인은 前記 心告 祈禱 實行 사실을 전부가 知하였으므로 憂懼思慮 뿐이었다.

포덕 79년(1938) 2월 17일

오후에 중앙 간부 중 최준모·한순희·김재계·김경성 4인이 황해도 사리원 경찰서로 검거되어 下去하다. 해 사건 전말은 별지를 첨부하다. 동시에 당국 지시로 道主 이하 중앙 직원이 치안유지법 위반에 의하여 사임되고 敎憲이 폐지되었으며 別定の 敎則이 發佈되어 중앙직원을 改選하다.

동 3월 4일

천도교 내부의 사정을 기록한 문건이라 용어 자체가 낯설다. 기본적인 용어부터 풀이하면 지일(地日)은 최시형의 승통(承統) 기념일이다.<sup>21)</sup> 상사(上師)는 천도교의 4대 도주인 춘암(春菴) 朴寅浩(1855~1940)이다. 그는 천도교인들에게 멀왜기도를 지시한 인물이다. 심고(心告)는 천도교인들이 지켜야 할 5관(款) 중의 하나로 기도를 말한다. 식고(食告)는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이다. 그 다음에 연원(淵源)이란 말이 나오는

21) 천도교에서는 최제우의 득도 기념일을 천일(天日), 손병희의 승통 기념일을 인일(人日)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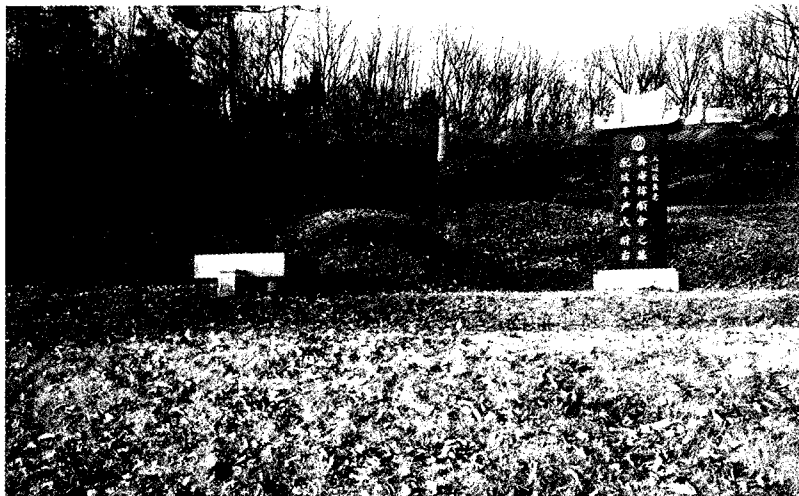
데, 이는 동학이 사교로 탄압받던 시대 포교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인맥 조직을 뜻한다.<sup>22)</sup>

세 인용문은 1936년 한순회가 도주인 박인호의 지시를 받아 지방의 교내 지도자들(두목)에게 멸왜기도를 지시하는 데서부터, 1638년 비밀리에 행해지던 멸왜기도가 일경에 발각되어 천도교의 중앙 간부들이 체포되고, 천도교의 체제가 강제로 개편되기까지의 경위를 잘 보여준다. 한순회는 20대 중반에 국권의 상실을 맞아 독립운동의 뜻을 키웠고, 30대 중반에는 분당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며 독립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종교 조직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제암일지>는 그 중에서 종교를 통한 민족 운동의 실상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연복 교수가 <제암일지>를 현대활자화 함으로써 이용이 용이해졌으나, 아직도 판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오탈자도 군데 군데 발견된다. 이 자료가 현대인들이 쉬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판독하고, 또 주석을 통해 이해를 돕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순회는 해방 이후 천도교전국임시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을, 1957년에는 천도교 중앙총부 장로를 맡아 천도교의 단합과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하다가 1961년 1월 27일 서거하여 고향 청주한씨 묘역에

---

22) 천도교의 조직은 전도인(傳道人)과 수도인(受道人)의 인맥관계로 조직되는 연원(淵源)조직과 지역단위로 조직된 교구(敎區)조직이 있다. 연원조직은 동학이 사교(邪敎)로 탄압받던 비밀시대에 포교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속인주의(屬人主義) 원칙에 근거하여 조직된 것이다. 포교활동 및 교단의 비밀활동은 연원주(主)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교단의 운영이나 공개적인 활동은 교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원조직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천도교가 3·1운동에 대거 참여한 것은 교구단위가 아니라 연원조직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한순희의 묘소, 현재 성남시 분당구 율동 공원 안에 있다.

안장되었다. 1993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1998년 6월 묘비를 세웠다. 파평 윤씨와 결혼하여 4남 3녀를 두었다. 4남 모두 보성전문을 졸업하였으며,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해방공간에 월북하였다. 이로 인해 냉전 반공이데올로기 시대에 한순희의 활동은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에 있어 사회주의 성향을 지녔던 독립운동가의 삶과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전문(傳聞)과 증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후일로 미룬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김하락의 <진중일기>, 김태원의 <집의당유고>, 한순희의

〈제암일지〉를 중심으로 성남지역에서 있었던 항일 의병투쟁 및 독립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무형의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조명하고 의의를 되새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중앙 학계가 중심이 되어 사건 중심의 역사서술이 주축을 형성해왔지만, 이제 그 무게의 중심을 어느 정도 지역 공간으로 분산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진정한 지방화 시대는 지방의 문화와 역사가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중심을 확보해야만 이루어진다는 명제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sup>23)</sup>

이제까지 의병사 또는 독립운동사의 맥락에서 연구되어 온 맥락을 살리되, 이를 공간(또는 현장) 중심의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 있는 유형의 문화재는 물론 여기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1,2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 글에서 소개한 〈진중일기〉를 비롯한 세 자료와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수집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새로운 탐색의 방향을 가능하게 한다는 원론적인 의의 외에도 많은 부수 효과를 지닌다. 이렇게 할 경우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전시하고, 나아가서 출판·강좌·전시·답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문화의 창출을 성남문화원이 주도할 수 있기를

23) 이런 의미에서 이완재 교수의 앞 저서는 그러한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란다.

한 가지 글을 쓰면서 마음 아팠던 것은 이 사회는 이들 민족지도자들의 업적과 그 후예들에 대한 대우에 너무 인색하다는 점이다. 김하락 장군의 딸과 아들은 일경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1917년 만주로 떠나갔다. 그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는 지금도 중국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그들의 후예를 찾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월군 주천군 금마리에 있는 김태원 장군의 묘역을 찾는 일과 한 순회 선생의 후손을 만나는 일을 함께 계획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찾아보려 한다. 누구인들 자기의 몸이 소중하지 않으며 가족이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친 지사와 그 후예들을 홀대한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몸을 바칠 것인가? 모든 것이 풍부하고 기억은 알아져 가는 시대를 보며 든 생각이다.



자료

# 김하락의 정토일록 원문

金河洛先生 征討日錄





李鍾愈領張相弘率二隊軍送清河口暮夏  
性學士高振率二隊軍送興海口暮李未  
父李俊父洪秉泰率五隊軍送盛治起本  
陣合勢青松陣與盛德陣合勢向興海而  
去余即行陣至四十里丑山帶陣二十六  
日雨不可行軍二十七日晚雨止先鋒  
左翼兩將來見二十八日晚雨行陣入盛  
治府本陣來迎于五里亭下寨於將校廳

二十九日安東陣前軍柳時到率軍九隊  
來見請合勢共入花府六月初一日松本  
陣中軍使之起兵合勢本陣堅卧不起以  
義功責使之連起辰刻本陣亦使來盡兵  
丁三百餘名破興海陣時入盛德俄而召  
春將黃桂學告曰之兵丁消息香不可聞  
故因為致心松柳時別分付曰汝亦同生  
是處討賊後共入花府柳堅執辭避乃設

軍門殺罪曰汝既為義將遇賊則避徒掠  
殘民罪不可容推出行刑神岡知所措問  
其年終終二十四歲以年少當免諸軍皆  
曰避賊之陣軍物何用即奪銳刀而逐出  
矣柳再來見乞放還總軍器好言曉諭而  
送先沁李朱父李俊父洪秉泰三將率精  
兵百餘連夜馳去于盛德余與趙性學明  
將陸續進兵是夜余得一夢有一老人來

言明朝大將旗墜則汝命休矣因驚悟心  
神恍惚初二日早朝趙性學入帳余說夢  
事趙將曰此是公夢勿為行陣余曰余起  
義一年徒貽生民之憂楚未慰我聖上  
已夜之憂居常焦慮恨未能一劍剖盡賊  
漢之腹況以無宗之事越賊退陣爾且死  
生有命亦何恨焉趙跪短命楚勿以此灰  
心空氣以大幸自任盡生民之義務遂催

軍行陣

絕筆

是日行陣之際忽狂風大起大將旗幟  
忽折墜地衆軍失色蒼黃趙性學伏于  
馬前泣諫回軍公笑曰吾命已盡矣但  
恨鐵賊未除聖恩未報死不能瞑目  
然天既不佑命適至此何必區區逃命  
大丈夫得死疆場何恨焉又促馬前進  
將卒泣飲而隨至昱德卷下寨翌日與

賊交鋒終日斬殺所殺甚衆賊兵四散  
逃之一軍大潰皆曰極矣則吉果然翌  
日乃六月初四日也午時暴雨卒作俄  
而仆候急報兵丁幾百水陸并進紛紛  
風雨衆軍相顧戰慄未試一砲四散奔  
走喝住不得公乃奮然出馬隨後者不  
過數十人而已冒彈馳進左右呼突進  
中二九左右齊大聲呼天曰我五百

年禮義之國歸於犬羊鬻勇手鳴呼我  
數十萬民族果未免犧牲之虞于吾寧  
矣於其腹不欲生而受辱於賊漢即投  
江而死跟隨的軍卒亦同時投水  
右三日事績取當時表觀父老之傳  
說而記之

陣以待之初十日早朝賊兵果分兩路而大至一路從南門風凰一路從西門將治本府尹率數隊軍登西山造起軍幕指熙觀望趙性學李永久洪東泰登南門先發砲拜賊兵遂登山交鋒不分勝負賊知我軍之堅守回軍東門我軍亦聚軍東門賊不敢前進又回軍北門守卒一齊放砲接戰殺時賊兵死者十餘人遂退軍直取

西門西門守將李時敏被殺時賊退軍登山遂登應砲城中居民爭持酒肉未勦是夜嚴陣相持十一日昧爽賊環四門亂放彈凡四門守卒勦力應砲戰數時賊兵死者二十餘人我軍無一人傷者賊兵連日不利將近夕陽自度無素運乳柴於北門將欲放火我軍一齊放砲賊奔紫如走即開門追擊所殺甚衆賊遂奔西門將

進至應砲是時軍中稟將之入本府稟庫則所存盡是黑土耳必本府尹預先輸去矣是夜軍情泣、諸將皆未告聞余巡各軍令曉諭觀勢同退十二日丑時望砲軍突道仁急告曰各門軍卒奔皆逃散余即巡四門則所存不遺四隊即令分排於四門及各軍令未及東門賊兵大呼曰汝之逃躲軍死者七人即收屍而去遂放砲馳

至于時余獨在東門計窮無素親攷一砲空作指揮之狀適時砲軍一人來到連放二砲殺得二人賊大驚退急欲後知我軍之空乘復來攻城四門守卒出死力終日接戰賊兵死者二十餘人遂退軍而去即買猪二百餉軍日已昏矣余謂趙將曰今日生門在東汝與李永久洪東泰巡于各軍時噉今夜一齊來會于東門也三將

依玄將近夜時收軍至東門則賊兵羅列于門外余當先出門親執鐵杖大喝一揮左右四人一時死倒賊遂散即率眾至高城襲則賊兵乘勢襲來一軍已乏眾凡四散逃走余連中五九幸穿入衣成更廣則無一處受傷馬匹輜重盡為賊兵所獲既至達城店諸將幸先至此店而左于相台中右肩而卧即付藥治之眾將見余

中凡處皆大驚曰神人神人余笑曰余之命在天豈有神而然哉即招集散軍數至六隊連大將旗仍為行軍至十里杞溪店下寨留宿潰散之軍歸次未集俄而有一軍果若義城兵赫固白補大將收聚散軍見即行長面去十四日朝派出使訖軍提致云斷回左右欲依律行刑余痛責曉諭遂放散是日辰刻一拜跪等致隊軍犯

至乃杞溪店將李鍾俞車已齊軍未授近既潰散之事仍同為行陣至十里應登店留宿十五日朝東率兵將李俊父未拜行陣直取輿海而去下寨於人吏麻指戶長百吏百校分付勿避舉行十六日入本縣軍器庫庫儲銀九即已房二隊軍候楊壽春為砲軍領事夕陽行陣至五里龍田刻大雨驟至冲昏冒雨馳至清河邑下

崇十七日起本縣義陣軍總三十以本陣中軍安萬根統之十八日青松陣下乘十幾日午後合陣行軍至盤港長沙洞留陣二十日雨不可行二十一日連雨二十二日行陣至四十里盤港下寨於將校廳本陣我將來見姓中氏也二十三日留陣二十四日雨不可行陣仍起本縣義軍百餘在青陣分寨于城外二十五日使李相

則豈非誤了國家大事乎軍法無私然今  
也特着廖軍之面而姑恕此後刻別注意  
也石將賴有謝罪午後行陣至青松和目  
店留宿二十九日至道洞則中夜前都哨  
領將李俊性率軍四十餘名來到泣吉失  
散之事五月初一日至道洞則前者潰散  
之軍轉次來待因為作九隊初二日行陣  
至安遠店留宿初三日宿柳川店初四日

宿永川主嚴乃旅軒張先生仗屨之所初  
五日細雨午後行至慶州仁庇店金炳文  
李時敏徐斗杓朴永教來見原未徐斗杓  
勇力能倫前已提聞至是相見歡甚因差  
出陣諸將以李未久為慶州都正募李俊  
久李建俞張相弘李寓禎朴永教為泰烈  
徐斗杓洪東泰為左左先鋒安玉聖之  
李為左右翼李益和為中軍金斗杓為後

軍容觀李相台為左左鋒黃性學李時  
敏為左右砲將金炳文為領率分撥已之  
各將皆拜伏受制與倭人張相弘李寓禎  
斬山人李益和率容觀慕西義氣果是未  
投慶州人洪東泰為青松陣先鋒收軍先  
鋒於和目楊基聞我陣之將下慶州率一  
隊軍來投投道洞留陣初六日早朝徐斗  
杓以亡父琴拜請歸本第放限十日給由

即行陣至四十里安原店送徐相廷金春  
三西人於府中便探虛實初七日早朝點  
軍馬倍道疾馳走至高城縣則店人問曰  
昨日真無違下侯於容府耶其人想必過  
遲矣余驚問其由曰昨晚邑諒兩人收公  
錢次出來見貴府侯即為捉去矣今曉頭  
連放三砲必西人因又探問城內事曰砲  
軍五十餘名已於數日前還伏于東北西

門莊義旅之力所可破也余抽一卦即使  
趙性學為攻城先鋒殺精兵一隊連復  
旗使之可驅馳至東門外黃五里城內兵  
一齊放砲余使一軍並拜大叱曰汝等亦  
是我國民族抗我漢離之軍是助大罪逆  
終是執迷則未免玉石俱焚矣速開城門  
無有後悔即喚金漢龍虛大澤兩人分付  
令去東北西門趙將大呼曰助賊逆類火

中之鬼行將不遠而猶此執迷冒死前進  
俄而東北西門大光冲天即麾軍至東門  
城上兵抱頭鼠竄而走前隊砲軍權水壽  
許鳳龍朴奎到即踰城而入大開城門李  
奇李玄謝中軍尹興淳皆望風逃走一邊  
令軍滅火下寨於人吏廳令砲軍注下  
侯二人在微中守絕扶至陣中手執方姓  
通身得委便同死屍因撫其杖處而痛哭

諸軍無不下淚是時城中諸民皆移居  
擔一城空虛即下令若有秋毫犯民者勿  
論將官軍卒皆依軍律施行事揭村四門  
馳檄各面大姓使之同拜信義又委守城  
將使李容觀崔鎮暉守東門李炳遠守東  
小門黃性學吳學文守南門李時敏守西  
漢守西門金學文虛性浩守北門遣起軍  
幕於鹿城凡二十八處矣使李侯久為東

率而召募將李鍾翁為杞溪面召募將金  
炳文為竹長面召募將東北西門外被燒  
火的人家各給百緡錢民皆安堵初八日  
各面召募將皆領命去了城而有一死軍  
侵掠村民即令捉致嚴懲十五度橋不改  
惡念又掠民家即砲殺于東門外九日午  
夜驟雨大作夕陽下後來志兵丁三百餘  
名分兩路而來於是合軍中事傳索凡

即取奔湖崇山以擊其頑趙以學軍軍  
其尾余率餘軍出沒為疑兵以敵其中賊  
遂殺出未及交鋒一哨長李懷性一砲殺  
得一人金仁植一放殺倒二人賊遂駭散  
隨後掩殺總中四人日已盡矣行且回軍  
賊更隨後趕來前時預伏砲軍二人逆堤  
隨間兩邊一時發砲賊疑有伏兵不能進  
追及撥軍歸陣後賊復疾趕余觀執千步

既即殺二人諸將戮力夾攻殺却四人而  
回共聚于水淨寺大賞一軍因命把守如  
前矢二更時分賊兵隊長率數哨軍作掩  
襲之計入于把守處為伏兵所敗因存器  
械而走十三日朝後賊兵分四枝來圍我  
軍亦出馬兩陣對圓陣九如兩自辰至申  
不決勝負賊畏山勢險絕遂回軍而走所  
過各洞衣服牛馬沒殺掠奪痛托以義兵

物件痛矣此真賊兵也十四日朝趙性堂  
抽一卦即掩旗大呼退軍曰賊乘旺氣而  
朱先動為貴余罵曰凡移陣之際易致亂  
軍故古之將者尚戒之今賊未至而先自  
妄動軍心耶時在風大起揚沙走石未掛  
火綫耳崇先飛各軍只荷望銳相顧戰慄  
是時自京營跟隨砲軍二人方自病席未  
能運動不忍棄之使諸將率軍先踰于飛

鳳山余親扼兩卒尋岩穴以乳柴掩而置  
之追後登飛鳳山則賊果大至山寨砲聲  
振天矢率軍至池洞宿留宿十五日遂軍  
人二名於水淨寺負病軍而來是日具然  
突畏賊勢甚感密諭于軍中曰將位本是  
嶺南人親戚故舊多居此地設有不吳之  
虞必多保護者我輩十里孤壁時肯顧恤  
不如預先歸去遂率其麾下三十餘名皆

向京畿而去曉稍有義氣者而如此至元  
不度者有幾人哉此其非余不能抑下之  
策然亦國運之致歟泣久之十六日點軍  
則不通四隊行陣至黃山洞居民初於兵  
丁之暴掠舉皆逃避黃山民曉諭因留宿  
十七日早朝行陣至二十里斗音山中火  
遂登黃鶴山下寨是山余之初年修工處  
山腰有一石室可容數十人上則峰巒削

至下則樹木森列又有亂石成汰難以按  
足真避亂處也遂偕近洞男釜及糧米餉  
軍及留宿石室十八日行陣至七東金鶴  
山極樂庵中火踰一嶺又有一庵極為淨  
潔因為留陣時有春川李炳連來投奔以  
為春川陣敗事因本陣敗軍遂踰投義城陣  
又逢黃山之敗潛踪未投其志氣可尚因  
為送事留陣三日至二十二日遂行軍至

黃鶴山下寨翌日殺小宰余山神二十四  
日行陣至黃山留宿二十五日行二十里  
至寶萊洞砲軍全仁植全行吉領護二十  
六日終日大雨義城中里吳赫固亦未領  
護矣二十七日雨霽因行陣出閭兵丁五  
十餘名追趕我軍是時我軍不滿三十計  
雖抵敵即令軍中四散分隊若賊至如此  
如此一軍保令四散潛伏矣賊果果自寨

葉洞追至山下余揮旗大呼數十外一齊  
放砲吶喊賊疑有四下伏兵急為退軍而  
走余收軍行二十里至全豐店有酒甚佳  
王故使趙將領軍同飲余素不嗜酒故先  
行至數谷宿所至夜深不來使徐相珪朴  
游華尋覓四方終夜不見二十八日早朝  
始末見余大叱曰方今賊兵在後不可斯須  
我陣地乃伐性之藥昨夜若有不虞之虞



賊大將金家理議合勢討賊之事有頃忽  
一騎馳入我陣乃青松陣教鍊軍官李教  
植也定兩陣下處於臨基軍半散處各洞  
留宿云余大責曰兵法以備不虞若敵軍  
將至何暇留軍于因命出令與義賊合陣  
至文居店留宿初二日午候義賊興而來  
言京兵一百七十餘名再昨自大邱來聞  
鴨谷寺知我軍之已退因為追及至和目

登  
店今將至于大峴矣即令軍中出馬迎敵  
青松陣將官無一人來見者至于大峴之  
計設伏命具然英率二隊軍伏于女忠之  
後申龍殿率二隊軍伏于安忠凌上洋金  
敬誠率二隊軍伏于城隍主山趙性學率  
二隊軍伏于城隍觀余率遊兵一隊高觀  
望義賊大將與副將送至遠處使觀破敵  
青松陣在安忠機陣退去是日午刻賊兵

自和目至于安忠凌江邊至取我軍于時  
勾令軍中放砲賊晏然不知直至城隍觀  
於是即令千步執五柄一齊放砲賊陣前  
隊潰散乃揮旗大呼四下裹伏兵齊發賊  
軍中死死者十餘人賊兵大亂即向前山  
而走善砲者十餘人持千步執追及放銃  
殺得數十人賊遂四散逃去遂退軍本陣  
將餉于飯賊乘時更追即令左右一齊發

砲戰方酣青松民兵送酒二樽余勿令飲  
酒撥改賊會飲矣忽前山絕頂處上舞砲  
響數聲軍殺下乃青松中軍收散砲二隊  
忌未接應賊乃挫氣遂向青松陣去即率  
左右伏兵進殺賊陣逆事崔順龍金順三  
大叶似有伏兵勿為追趕余叱曰終日交  
鋒走者無數况青松陣二隊軍自山上出  
伐何敢設伏遂向南風放殺却八人青松

所殺二人時目已昏矣黑夜慮黑衣設伏  
即令左右大喊急擊賊兵四散逃去於是  
只存一隊而志眾追殺掩殺賊陣砲斃水  
絕時已近夜即回軍火現令我軍二隊及  
青松軍把守於本陣大軍宿文居店初三  
日早朝點軍義城軍已先逃去而只存十  
大人本陣軍卒無一人傷者義賊大將趙  
回軍義城召聚散軍合勢教事余應議行

陣至和日店中火洞人未言昨晚兵丁百  
餘三四作隊或痛或蹙逃去義賊等地利或  
逃去新莊等地皆當利川陣真強兵嘆勿  
言急等之過此午後行陣至義城梧桐村  
宿四日宿土規五日宿雲台義城大將  
擊牛二隻餉軍一邊傳令召募六日入于  
水手寺下寨令各面督率軍需準備軍卒  
未服七日各面砲丁一齊來會教至百餘

名與我軍雜為作隊以一騎三隊法作位  
軍拜補振八日傳令山下各洞設軍幕於  
山頂四方令諸將軍軍把守左翼中龍熙  
守雲谷要路右翼金敬誠守天馬峰義賊  
出令金斗柄守藍峴趙性學守金城隘口  
斥侯來言兵丁二百餘名方入山雲登高  
視之果然更令各率軍迎敵左右翼軍  
三隊伏于飛鳳山金斗柄率軍二隊屯于

飛鳳山下中軍及金順三伏于天馬峰趙  
性學率軍三隊伏于水淨洞口余率軍安  
一隊注來指揮義賊大將率餘軍守藍峴  
于列賊兵直衝水淨洞而入趙性學角高  
於麥田之中直至賊陣前舉頭揮旗大喝  
一拜隨三隊後軍一時放砲賊驚其不意  
皆散去乃登青路驛案山追殺掩殺却  
殺名鳴金收軍于餉後令軍于率五隊軍

朴氏也定下處於樂亭留陣二日徐討  
請余問曰方今安東觀察李南圭養兵於  
尚州甚是嚴肅此可伐乎余曰不可若而  
尚州必歷咸昌比到尚州咸昌胎峯之倭  
折其歸路而州兵擊其前而北腹背受  
敵兵家之最忌慎勿輕動徐討亦然之  
十一日徐討命本陣為餉我軍擊牛二  
隻而及其進食也惟草蔬而已蓋其下私

自採食也我軍皆忿然未嘗余曰飲食之  
人則人賤之然彼軍之無律此略可見與  
此輩豈可望救乎即令行軍至桃李洞  
金漢星與本陣軍官急來謝過請為回陣  
余不應促行陣至安東豐山店日已昏黑  
留陣于楊基翌日細雨不行露積於各洞  
分給各軍幕仍為留陣夕陽湖陣遠左軍  
毀隊持私通來請會于鳳侍寺同為齋宿

十三日兩齋朝飯後安東遊擊將李錫祚  
來見請與合勢將近午頃忽聽得一拜跪  
響自西而來使軍官哨探徐討與醴泉  
中軍率數十隊來中火于豐山店午後未  
見請會于鳳侍寺更為約束然我軍以遲  
報未及仍留該洞十四日午後始會于鳳  
侍寺本寺狹窄難以容眾因下寨於洞口  
十五日上下寺與徐將相見因說列邑合

陣之事通世東通文來到請速來圍聚於  
本府徐將應諾回通午後行陣即向本府  
而去同為下寨於安寺驛原未本陣大將  
自本府燒火之後領軍移陣於琴台獨中  
軍率數哨軍而在守城十六日趙性學為  
訪其師向大邱八公山而去留陣數日余  
欲討這賊注賊徐將以兵微將寡止之余  
乃分陣以軍官葛真俊貪淫良女強奪民

物毀軍門跪殺下令軍中若有欲寬犯民者依此律令金泰元等奏行陣至義城金山水呼寺下寨二十七日發向至有路店中大是時京兵三百陣子軍威云余欲乘夜劫寨趙性學言自是還陣苦諫不可余曰君計在何趙將曰此去義興邑二十里也軍中俱之藥丸若有不虞必敗乃已余敗義興與崇九向慶州北溪州長而面則十

日之內可得三百軍矣余應鑑即催久飯全駒軍後將白義興令軍中勿得喧嘩今夜候走入邑即邑人余然不知即入東軒衣穿逃走令趙性與登驢豐樓論衆以無策出堵之意即取軍器及藥丸五六顆而回陣於人吏庭背後忽有砲喊即令軍中應砲頂吏震然無聞蓋本邑吏輩率民兵數百將欲掩襲不果而俱散二十八日行陣

至左里谷朝飯細雨霏微冒雨行陣至龍崖則雨始晴至鳴谷寺下寨宿陣一日是夜五更狂風淫雨遂成夜方大作趙性學與諸將佐俱至余所而言曰今日乃甲子兵家之所忌此日狂風淫雨遂成夜方未北方義陣舉皆不利我軍將奈何余曰慎勿妄動軍心第觀動靜也二十九日義賊敗報至趙性學抽占一卦曰北兵不足憂

南兵可慮夕飯訖良方至可得勝即令移陣于良方至沙品塢已鳴矣四月初一日行陣至大谷朝飯義賊敗軍二人來到驢關本大將去處答以率軍五十餘名移陣于青松云即催軍至和目店中大忽自義賊陣急報兵丁百餘名自義城易峴來襲本陣乞行軍速未相救於是即向義賊陣我軍遂屯剗白沙場余與具莊英注見我

第觀動靜三日金貴星暗自逃縣果不知去處十八日更加措未嚴守十九日余因暴病下山調理至二十一日聞城陷之報氣滿胸膛頓足呼痛不覺仆地蓋賊兵自敗歸之後與政黨謀曰義降廷法未可遽擒潛通義將誘以利害為上計也乃密寄于朴準英曰若歸化則汝當為廣州留守金貴星為水京留守不服則舉全國之

兵以討朴金兩漢急於利己與賊相通向日人京偵探之行實某日某時敲門之約而金賊之逃縣乃朴賊時自放逐者也二十日朴賊擊牛醢酒大餉軍卒是夜各門把守將卒皆醉倒不省人事朴賊賊軍人之深睡二十一日寅時大開西北兩門一陣將卒全然不知至卯刻末鳴鼓大起陣倒軍卒驚起視之過城中皆是賊兵二千

將卒伯覺朴賊之所瞞即將朴準英三父子並扼殺急出城外兵丁遽為護送曰速走遇日漢使充矣華雖過於賊勢良心尚猶未泯噫彼朴賊身居將位不顧君父氏族之君作此枉惡大罪自取滅絕之禍大監昭亦不可誣也諸將卒四散投去一無形影查過數日心神恍惚同知所為二十五日申龍照金泰元具然英收散軍

大隊來投余所泣告前事白誓已至此更無用武之地然方今形勢惟有速起義旅誓死討賊耳而現今大將之材非先生則無可擬之人望不推辭即上木即余避席辭曰至於舉義一歎雖非諸公之言吾輩不死不休而大將之任則決非庸陋所堪當三人再三固請是時先妻方在病席三人自入厨炊飯翌朝亦然余感其誠惻可

與同謀因語之曰此地人心與敵無計可  
施巖南素稱鄒魯之鄉人材府庫同生  
以教大舉如何三人曰唯命二十七  
日發程軍總九隊同日宿駱州二十八日  
行陣宿興原二十九日宿白雲山下三十  
日八堤川義陣大將柳麟錫中軍安永  
先鋒洪大植欣然迎接殺牛一隻餉我  
軍三月初一日宿丹陽初二日宿豐基  
初三日

行陣至東面山法洞事敗南家中火日  
晚八順前留陣原來趙性學家住同郡  
白雲洞余性拜逆母因性學論以更起  
性學曰軍不滿百何以滅敵不如不發  
余曰古有隻奉赴敵者為人臣子當此  
板蕩之時惟以兵微勢窮垂手傍觀可  
乎逆母性學而囑曰以我報國死亦何  
恨汝勿以我為念曉汝涕兄之言性學  
遂受命出身留

陣兩日至初七日發行指蔡川昌保驛  
初八日宿安東榆洞驛翌日食本洞金  
民穀三十石抄出貧賤無依之民三十  
餘戶以賑之湖陣台討將徐相烈遣前  
軍金溪呈請與合勢趙性學曰使此軍  
撫蔡川安東青松慶州而一邊急募  
援隊軍入于慶府請出該府尹使之  
亡募則不過十日軍拜大振此為上計  
與台討合勢因

招巖底各邑之陣同并戮力即回達營  
則巖下一道大起義此為中計獨牽孤  
軍任陣者何得余曰君見臣合理然今  
最急務惟在團體湖陣既請合勢取中  
為可與金溪星同為行陣至甘泉金  
里中大直至千泉徐台討又遣左翼  
將軍殺除軍未也犯入湖陣相見歡  
甚引見醒泉亦陣大將乃

諸軍手足失措但持空銃四散圖卻勢甚  
倉黃不得已收軍本陣賊遂入梨峴放火  
一洞掃蕩無餘鴟大亦盡喘吁嗟美各將  
軍卒大半散逸大將軍其親兵向竹山去  
了趙性學奔其軍物望嶺南而去具然英  
向原州而去其餘將卒四散無餘稱天痛  
哭勢莫之何暫寄民家宿是日乃除夕  
也百感彌中伴燭達曙丙申正月初一日

賊兵四面搜索初二日始得出脚往原州  
陣所大將沈相桂甚欵待留連數日觀其  
陣勢則未鍊之兵不滿五百余謂沈將曰  
今賊鋒綢羅孤軍無用武之地不如移陣  
利川拉集散兵更教大率沈將曰願從命  
意早之大計十八日歸梨峴則厭達之餘  
無容身處十九日通奇于教處笑將卒稍  
來會具然英起原州軍教百中龍熙全

貴錫收軍三哨金泰元亦收散軍而來軍  
鮮復振二十三日馳檄安城招問承天右  
將軍而來二十四日點考軍總則砲軍  
一千八百將官從事合二千餘人咸曰敗  
軍之將不可更試乃以朴準英為大將沈  
相桂為原州大將余為軍師無指揮都立  
勇金貴錫先鋒金泰元中軍具然英左翼  
金貴星右翼金敬誠後軍申龍熙其餘恭

謀從事依初倡義時人施行數日合陣教  
鍊三十日移陣于廣州山城四山削立雄  
傑堅固真一大富閑萬夫莫開之處也周  
視城中積粟如山食鹽數百石軍物豐饒  
大砲器數十柄拂狼器數十柄天黃砲地  
字砲亦數十柄千步銃數百柄其餘馬銃  
不可勝數藥鐵如山衆將怪散軍用之有  
餘且喜陣處之堅固矣二月初一日擊牛

二隻餉軍二日各差把守先鋒金泰元守  
南門後軍中龍熙守此門右翼金敏誠守  
西南左翼金貴星守東門且然英陣將校  
嚴守中央余率遊兵數隊往來指揮各將  
皆依令把守倭賊聞我陣之人于廣州山  
賊脅我至導曰既為兩國修好之地使  
民起兵害我為在開化之本旨甚累次上  
言聖上終無如何之勅乃與改策密議

矯詔發我國兵五百來圍山城四面是雖  
我國民族乃赴賊之兵不得已以賊兵吞  
做初三日余率砲丁三十六人埋伏於三  
十六處松楸間賊向山腰之際三十六處  
賊人放砲賊疑有伏兵退軍下去余笑曰  
賊不在多兵在用之如何仍為收軍初四  
日賊又圍四山亂放砲九我軍應砲相距  
稍遠但放空砲初五日賊又未端詭計

不得其便只探城外逗遛初六日又來請  
戰我軍應砲出戰交戰數時我軍在城內  
賊在城外雖千萬放砲徒費藥先賊自料  
不敵撤軍還歸北門守將申龍熙大呼軍  
卒曰賊弃其大砲而去得此砲者賜百金  
賞仍開門衆軍爭先出門即開門急呼曰  
已出門則出死力討賊可也衆軍雖欲逐  
陣門已閉矣不得已即趕賊兵殺倒殺十

人賊遂退軍逃走伏實北門卒之初七日  
賊兵還歸京城我軍翹首北望皆唱萬歲  
廣望岳夷之縮首初七月初八日如前堅  
守初九日金貴星為偵探入京城十二日  
還陣言賊兵之無慮十三日中軍且然英  
往金貴星把守外見一封書落在地上  
取拆視之乃與賊密約文字也未告于余  
曰姑未知其中之有私為先帝因重庫



即鳴金退軍向硤峴而走賊兵吶喊一次  
隨後趕來至硤峴之下一聲砲響具然英  
絕住前面金貴星中龍照自山腰殺下趙  
將橫截歸路四下夾攻賊在後心進退無  
路余揮軍掩殺賊兵死者數十人我軍無  
一人傷者廝殺良久日已昏矣初月在西  
寒霜砭骨俄而月落三更時分尋一條路  
暗處逃去了左右諸軍連夜追趕至廣州

郡律項場是則乃初五日晚頭也曙星輝  
晨鷄啼上下行陣砲聲不絕于時賊  
兵暫歇于場望見我軍之殺到即向前向  
而走追後襲擊殺倒數十箇餘賊或棄彈  
銃或奔佩刀而走鳴金收軍還律項場基  
帥軍及聞洞民之言再昨日賊兵一百八  
人矣昨日只有三十六人敗走矣又除今  
朝之殺賊則生歸者應不過數人即日回

軍於利川本陣六日擊大牛三隻餉軍七  
日休軍八日休前教鍊九日十日設大軍  
門教鍊十一日微雪不可教鍊余曰兵法  
以傳不吳賊漢今番敗陣雖曰盡應後必  
再舉不如堅守隘口以防來賊仍差諸將  
年要害處使趙性學守梨峴具然英守南  
川金泰元守元寂山要路中龍照守野州  
界金貴星守陽智界沈鍾萬守遊兵一有

巡江上下分撥已定各將皆領命去了十  
二日余與大將馳檄于各道各郡使之同  
拜倡義以赴國難十三日朝後有一人呈  
上一封書視之乃哀痛 詔勅也其畧曰  
倭賊犯關社稷安危迫在朝夕勸力剿討  
卿等子孫宜有厚祿使金炳始為三南偏  
義都指揮使桂宮亮為木市官將布木印  
京畿為殉義軍忠清為忠義軍廣南為伏

義軍領下八道八道各郡皆齊輝擊義余  
集諸將抱 詔痛哭而告曰使社稷至累  
叩之危君父御針德之上皆臣民之罪也  
嗟我諸君同心戮力圖報國家萬一之恩  
於是諸將卒揮淚誓死十四日送泰封李  
春鑄起兵於忠州清州各郡應拜倡義  
暮列邑軍容甚盛大將乃析麟錫也又送  
全黃錫於駝州使之倡義大將沈相禧也

十五日余暫歸梨峴十七日遂陣十八日  
巡視各把守營軍四立日後二十四日入  
于本陣則大將語余曰聞今倭賊將大起  
兵來到之何以待之余曰伏讀 詔勅望  
於臣民至矣惟當肝腦塗地竭力剿除以  
報 聖上之恩二十五日送一介使偵探  
虛實賊果大起軍而來矣二十六日又送  
介使於鐵內通察賊勢二十七日拍各外

把守將一營來會于梨峴以救防禦之策  
二十八日介使來言賊兵二百餘名昨日  
發程宿于廣州府今將至矣即令衆軍為  
左右伏嚴陣而待之二十九日晚頭賊兵  
果分四隊來襲金泰元率一哨軍即向賊  
前突戰趙性學從元寂山斬其歸路具然  
失率一哨軍守梨峴洞口中龍熙沈鍾萬  
各率一哨軍為左右伏余將進兵一哨登

高指揮大將與倭事安王熙崔時鎮率一  
哨軍固守中央陣設伏已了各將左右夾  
擊砲聲如雷彈丸如雹終日交鋒不決勝  
負各自收軍三十日晚頭賊兵又為來襲  
各將勦力前進大戰數時至已刻西北風  
大起黑雲滿天少頃大雪暴下咫尺難分  
是時賊兵皆西北而向東南我軍皆東南  
而向西北風雪拍面使人不能開眼左右

我朝開國五百四年

聖上三十二年乙未國祚陽九亂臣秉政  
煥倡革新之說擅中賢流潛通島夷數十  
年仇視之賊乘此開門之機是年六月賊  
兵十萬水陸并進設寨於各港口及諸要  
區處自東萊至義州三千餘里結陣數十  
處突入都成于時賊臣輩外挾賊勢內嚇  
君父盡去先王法眼愛者夷制八箇中令

反畿內出入之人舉皆黑木是時民情  
或逃竄深山或乘船入海及至八月二  
十一日夜賊臣俞志清鄭秉朝趙義淵張  
堪等召日兵入宮作亂隔入湖內執我  
國母嬪喜痛矣其後九月兩大臣宋近沐  
申應祚將親倡義復職事未竟而為政  
野陷十一月十五日夜俞志清等諸賊持  
刀入闕內勒削君父之髮仍割削臣吏

殺吏率持刀橫行畿內人皆被其勒殺元  
之鮮所謂禮義之邦豈期至此腐敗乎  
呼痛哭噫彼當局者流肆行亂毒之手  
造同柱之憂終以五百年宗社數十萬生  
靈付與於敵人之手此輩之罪貫盈今古  
萬劫猶難當時在京有老人士植肯扼腕  
不勝憤憤余與姚從第趙性學同偕人具  
外英奎泰元中龍熙數人十六日早朝渡

江十七日入利川郡招火砲軍都領將方  
春植取砲都案發砲軍百餘名後分作幾  
隊使之召募其然英奎二隊軍送楊根丞  
平兩郡趙性學率二隊軍送龍州金泰元  
送安城申龍熙送陰竹分撥已定余在梨  
峴矣趙性學入廣州山城使別牌陣軍官  
金順三起別牌陣砲軍三百餘名以金順  
三李俊性兩人統之其然英奎楊根丞

起軍三百餘名申龍熙去陞付竹山起火  
砲軍三百餘名自礮轟砲亦百餘名以本  
郡人沈鍾萬統之金泰元入安城本郡已  
為倡義而大將則聞水天也與之合勢于  
時倡義之士廣府蜂起龍仁楊州抗川始  
興水原安山等郡各起兵一齊來會于利  
川首倡義所於是軍聲大振仍為作隊推  
閔承天為利川倡義大將余為各軍都持

擇趙性學為諸軍門都總金貴星為左軍  
申龍熙為右軍金泰元為先鋒具然英為  
中軍朴準英為後軍金貴錫為右軍金敏  
誠為遊擊沈鍾萬為突擊安玉熙安車學  
為余從事崔順龍金明信為大將從事趙  
熙為都總從事崔鎮驛為中軍從事李下  
各人後以三騎九隊法敦定行伍一騎一  
隊十長許奉龍二隊十長金奉學

三隊十長李敬雲二騎一隊十長李相  
二隊十長金漢龍三隊十長表金河三  
一隊十長文奇現二隊十長李俊性三  
十長申卓元旗抱高登拔一騎三官金  
三二騎三官高應善三騎三官植榮寺  
哨三官洪大現五哨三官金萬錫六哨  
官韓錫琪作隊已畢各將受指揮教鍊  
十二月初三日賊聞義兵之大賊送守

隊步兵百餘漢將擊我陣余謂大將曰  
練習之兵我軍則糾合之眾也結未熟  
正之度主客之勢抵敵之方莫若先設  
而待掩殺也即老金泰元一哨軍去  
現休兵具然英率一哨軍去現休兵  
伏兵金貴星申龍熙率二哨軍去現休  
昨伏兵趙性學率二哨軍去現休下山  
慶初四日早朝趙將與賊交鋒頭陣數



金奎聲譯

自一八九五年十一月十六日  
至一八九六年六月四日  
(大韓帝國末期)

故義兵大將  
海雲堂

金河洛先生征討日錄

義城金氏宗親會

## 편집위원

백남옥, 천화숙, 전보삼, 서승갑

## 집필진 소개

전보삼 : 신구대학 교수,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도형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서승갑 : 건국대 강사,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승수 : 한양대 강사

## 성남지역의병조사연구

---

발행일 2002년 12월 일

발행처 성남문화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전화 : 031)781-1020 팩스 : 031)709-5246

펴낸곳 동진인쇄

---

비매품

帝仁祖大王十四年丙子十二月金大舉東搶

南漢被圍暘溪鄭公好仁慷慨倡義召募鄉兵遠  
近響應鄉人推公爲義兵將乃備器仗整軍伍至  
聞慶界自嶺南都義陣參判金公提時爲都大將差公爲前管  
將未幾自副元帥營召以從事官已而南漢解圍  
義陣遂罷

### 義兵將

監察鄭好仁

字子見贈暘溪壬辰義兵將剛義公之孫孫慕堂張掖軒門人戊午進士丁卯

文科官至牧使文學政績蔚有時望所莅郡有去思碑行誼實蹟詳見郡誌有

丙子錄